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韓比較研究-經濟

南北韓 統合假定下의 經濟成長豫測 比較

研究執筆責任 李 滿 基

(韓國 金融研修院 副院長)

朴 宇 熙

(서울 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教授)

崔 九 寬

(韓國 商業銀行 企劃調查部 次長)

金 鎮 國

(大韓投資信託 企劃調查部長)

刊行責任 金 榮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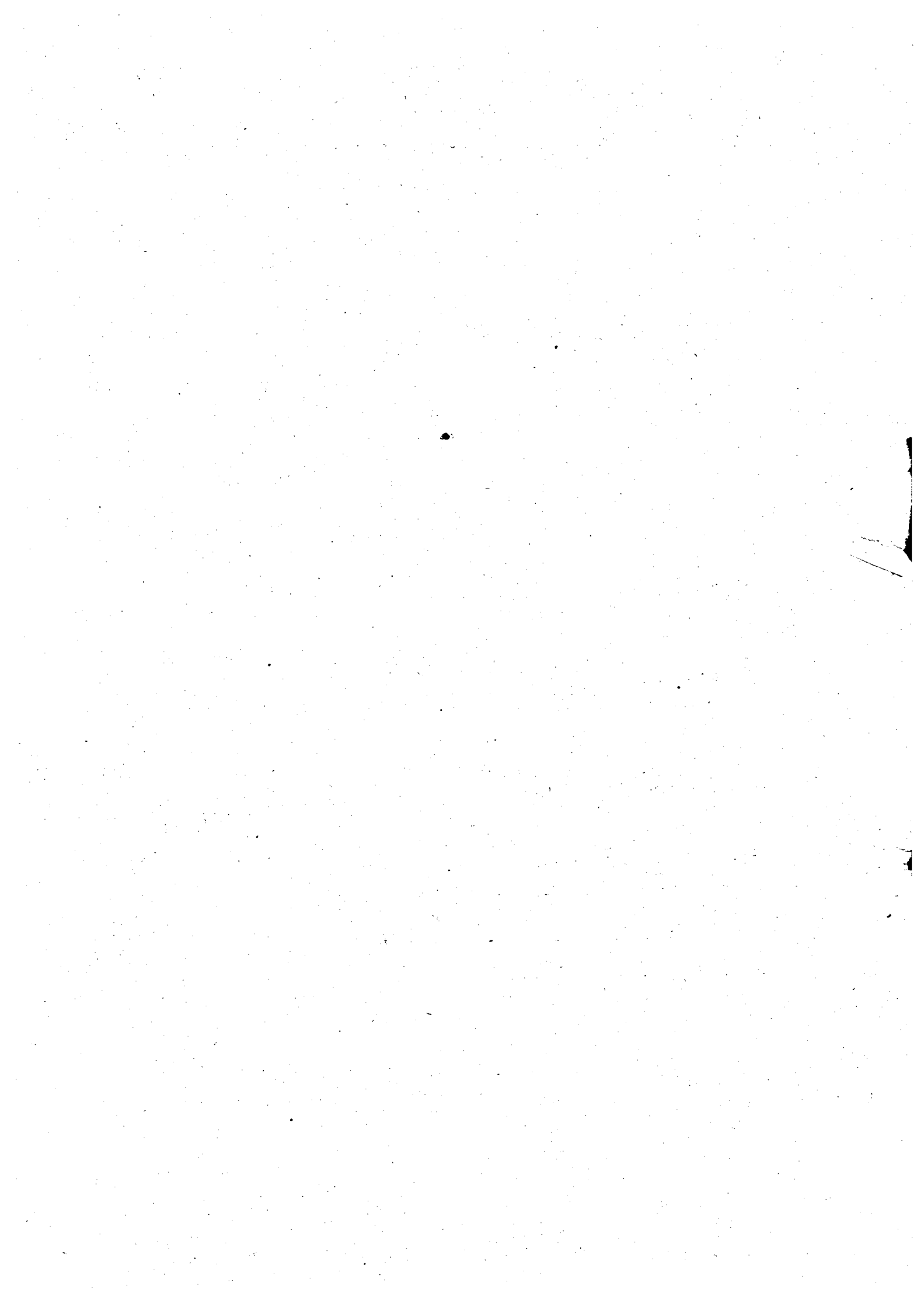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註

本 研究는 現在의 諸 經濟与件下에서 南北韓이 各者의 体制에 依해 韓半島를 統一하는 것을 假定할 境遇, 10年 後에는 各各 어느 程度의 經濟成長 및 發展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인가를 予測하여 相互比較한 것임.

따라서 本 冊字에서 'A案'은 韓國의 体制에 依한 統合의 境遇를 'B案'은 北韓의 体制에 依한 統合의 境遇를 指稱하는 것임.



目 次

第1編 南北韓의 經濟与件 및 現況比較	金 鎮 国	9
〈要約〉		11
第1章 序		15
第2章 經濟体制의 比較		18
1. 韓國의 經濟体制		18
2. 北韓의 經濟体制		20
3. 綜合比較		21
第3章 經濟政策의 比較		24
1. 韓國의 經濟開發政策		24
2. 北韓의 經濟開發政策		28
3. 綜合比較		30
第4章 經濟的 与件의 比較		32
1. 人口 및 教育		32
2. 国土 및 自然資源		33
第5章 主要 部門別 經濟現況 比較		35
1. 總量規模		35
2. 農業部門		37
3. 鉉工業部門		40
4. 社会間接資本		44
5. 國際収支 및 貿易規模		48
第6章 南北韓 經濟成長의 評價		51
第7章 南北韓 經濟成長의 展望		53

第2編 統合時의 經濟發展 促進要因과 摩擦要因.....崔 九 寬.....	57
<要約>	59
第1章 序 論	63
第2章 發展促進要因	71
1. 地理的 統合과 資源擴大	71
가. 鉉工業發展의 促進要因	71
나. 農林水産業	74
다. 社会間接資本	77
2. 对立의 止揚과 經濟投資	80
가. 投資財源의 增加	80
나. 産業의 再編成과 人力活用	85
第3章 統一後의 摩擦要因	87
1. 摩擦要因의 根源	87
2. 自由化에의 摩擦	90
3. 共產化에의 摩擦	94

第3編 統合時 經濟成長予測을 為한 理論 및 方法論의 檢討	朴 宇 熙	101
<要約>		103
第一章 假 定		107
第二章 定義와 理論의 歷史		109
第三章 理論과 分析方法의 內容		110
1. 統合의 靜態的 側面		111
2. 統合의 動態的 側面		117
第4章 單純巨視的 接近		135

第4編 統合假定 10年後의 經濟成長 및 部門別 發展展望 李 滿 基	151
〈要約〉.....	153
第1章 成長의 條件	159
1. 序 論	159
2. 体制의 差異와 成長潛在力	159
3. 資源과 成長條件	163
가. 人的資源	163
나. 自然資源의 賦存	169
第2章 供給側面에서의 成長潛在力 評價	173
1. 過去의 成長実績	173
가. 韓國의 成長実績과 要因	173
나. 北韓의 GNP 와 成長実績	175
2. 成長潛在力の 評價	180
가. 北韓의 成長潛在力	180
나. 南北韓의 要素要因別 成長潛在力の 評價	185
(1) 勞動投入과 成長寄與率	185
(2) 資本投入과 成長寄與率	190
(3) 生産性向上의 成長寄與率	202
(4) 供給側面에서의 成長潛在力 一要約一	208
3. 弗貨表示GNP의 成長展望	210
가. 弗貨表示成長率의 推定	210
나. 人口增加率과 1人當 GNP	215

第3章 産業別成長의 展望	217
1. 鉍工業	217
가. 統一前의 現況과 展望	217
나. 統一前提下의 工業化展望	222
(1) 鐵鋼工業	222
(2) 機械工業	229
(3) 電子工業	230
(4) 化學工業	233
(5) 纖維工業	234
(6) 工業化展望의 綜合分析	238
다. 統一後의 에너지需給展望	239
2. 農水産業	244
가. 統一前의 現況과 展望	244
나. 統一後의 農業展望	250
3. 社會間接資本	253
가. 統一前의 現況과 展望	253
나. 統一後의 展望	258
(1) 電力	258
(2) 輸送	258
(3) 通信	261
4. 貿易과 國際收支	263
가. 南北韓의 貿易構造와 政策基調	263

나. 統一假定下의 貿易展望	267
(1) 輸出展望	267
(2) 輸入展望	274

第 1 編 南北韓의 經濟与件 및 現況
比較

金 鎮 国

- (略歷)
- 1964. 高麗大学校 商科大学 卒
 - 1964. 韓國貿易協會 調查部
 - 1970. 韓國投資公司 調查部
 - 1974. 高麗大学校 政經大学 經濟学 碩士
 - 現在. 大韓投資信託株式会社 企劃調查部長

附录

姓名	李天	性别	男	出生年月	1980.01	籍贯	湖南
学号	1001	专业	计算机	入学时间	2000.09	毕业时间	2004.06
身份证号	430101198001010001	联系电话	13801010101	电子邮箱	1001@163.com	联系地址	湖南长沙

< 要 約 >

1945年以後 昨今에 이르기까지 南北韓의 經濟發展의 成果를 評價함에 있어 政治的 体制의 差異를 넘어서 두 經濟集團을 보다 客觀적으로 評價할 수 있는 客觀的 觀點은 國民의 經濟的 福祉追求를 위한 産業化의 過程으로 評價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韓半島는 日帝下에서 처음으로 産業化의 過程을 經驗했으며, 이 過程에서 賦存資源에 따라 北韓은 鎔業과 重工業為主, 南韓은 輕工業과 農業爲主의 産業構造를 갖추어 兩分된 두개의 体制로 産業化의 過程을 시작하는 与件부터 南北韓 각기 다른 特性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各各의 經濟与件上 特性은 産業化에 있어 北韓이 豊富한 電力과 鎔物 및 重工業設備를 갖추어 韓國에 비해 絶對 有利한 与件이었다고 評價된다. (1945年 8.15 當時 北韓은 重工業 80%, 鉄 87%, 無煙炭 89%, 有煙炭 98%, 電力 94% 偏在) 그러나 韓國은 自由民主主義를 바탕으로 한 資本主義 經濟体制로, 北韓은 共產社会主義 經濟体制로, 産業化로의 過程에서 30年 이 지난 現在 産業化의 水準이나 國民福祉의 面에서 顯隔한 差를 보이고 있다. 經濟規模面에서 1人當GNP는 北韓이 1968年까지 優位를 (1968年 韓國 168 弗, 北韓 193.6 弗) 보였으나 1969年 부터 反轉되어 특히 「오일·쇼크」를 克服한 1974年以後 급격한 차이를 보여 1977年 韓國은 864 弗로 北韓 405 弗의 2倍를 上廻하고 있으며, 總GNP는 4.7倍, 輸出은 16倍를 보이고 있다.

또한 60年代까지 北韓이 優位에 있던 重工業部門도 韓國이 1, 2次 5個年計劃을 통해 輕工業을 國際競爭産業으로 育成하고 3次 5個年計劃에 부터 重工業에 집중 投資케 됨에 따라 金屬, 化學, 電子, 機械, 造船等 거의 모든 部門이 輸出爲主의 産業으로 發展할 만큼 北韓과는 絶對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國民生活福祉의 面에서 76年 基準으로 1人當 消費水準은 韓國이 507 弗로 北韓의 133.9 弗에 비해 3.8 倍의 優位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韓國은 産業化의 條件에 있어 北韓에 비해 顯隔히 不利한 條件에도 불구하고 戰後 가장 成功的으로 産業化를 이룩할 수 있었던 要因은 다음과 같이 集約할 수 있겠다.

첫째로, 政治的 要素에 있어 韓國은 自由民主主義를 共產主義의 攻擊으로 부터 防禦하는 立場에 서으로써 政治的인 努力을 消費的인 部門 즉, 黨을 中心으로한 政治深化나 軍事部門에 浪費를 보인 北韓과 달리 經濟開發에 집중함으로써 産業化에 資源을 效率的으로 配分할 수 있었으며, 後進社會의 産業化에 絶對的인 條件인 經濟的인 成就意慾을 刺戟하여 資本主義 經濟의 特性을 效果的으로 作用할 수 있는 條件을 만든 점이다.

둘째로, 經濟體制面에서 韓國은 市場價格機構와 私有財産制를 中心으로 經濟諸部門間의 競爭性을 바탕으로 한 資源配分의 效率性과 더불어 利潤 및 富의 增大를 動機로 하여 進取的으로 經濟를 運營했던 반면에, 北韓은 가장 硬直된 社會主義 經濟體制로 創意와 能率生産性의 低下,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로 資源配分에 있어 集權

者の 選好를 위주로 한 結果 資源配分の 歪曲 (例로 77年 GNP의 23%를 國防費에 配分, 韓國은 6.2%)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經濟開發戰略에 있어 韓國은 對外指向的 開發政策을 追求함으로써 國內의 資源과 市場의 制約條件을 넘어 外延經濟의 擴大를 통해 供給面에서 資本과 技術導入, 需要面에서 輸出擴大를 도모하여 自立經濟를 달성하는 한편, OECD諸國에 競争國家로 成長하였으나, 北韓은 對內指向的인 自給經濟를 追求했음에도 불구하고 食糧과 消費財의 極甚한 不足을 겪고 있으며 (韓國은 1976年 食糧自給) 外債償還能力喪失 等の 難境에 (76年4月 現在 2,144百萬弗) 빠져 있다.

이러한 諸要因들은 앞으로도 상당시간 繼續 制約要因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 向後 南北韓 經濟의 展開에도 根本적으로 影響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南北韓의 經濟的 隔差의 深化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漸增되는 經濟力의 隔差는 民族史의 大進行이라는 觀点에서 볼 때 韓國을 主導로 한 南北韓 經濟協力の 可能性은 더욱 增大할 것으로 思料된다.

끝.

第 1 章 序

後進國으로서 가장 成功的으로 資本主義 經濟發展을 이룩한 韓國과 極端的으로 閉鎖的인 社會主義를 固守해 온 北韓의 兩經濟集團의 現況을 平面的으로 比較 評價한다는 것은 客觀的인 合理性을 갖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東·西陣營의 兩體制의 優越性에 대한 가장 集中的인 論議가 「國民福祉를 위한 가장 効率的인 體制」라는 命題에 歸結되고 있음에 비추어 南北韓 經濟構造 및 體質의 差異點과 戰後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經濟發展의 成果를 相互 比較하여 이를 國民福祉의 追求라는 次元에서 評價 展望하는 것은 比較的 偏向的인 先入見을 떠나 보다 科學的으로 接近할 수 있는 方法이라 하겠다.

南北韓은 모두 戰後 復舊의 共通된 負擔을 가졌던 開發途上國의 位置에 있었고, 이에 따라 戰後以來 政策的인 努力은 産業化와 經濟成長에 集中되었다. 즉, 南北韓은 余他的 新生國家와 마찬가지로 國家形成과 國民意識 統一의 다음 政治的 課題로서 國民福祉의 向上에 注力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努力은 經濟의 成長에 집약되었다.

이 過程에서 南北韓의 經濟成長을 比較 評價할 수 있는 共通된 因子로서, 韓國의 경우 産業化는 당연한 歸結이라 볼 수 있으며, 北韓의 경우에도 社會主義化 過程을 K.Marx 流의 理念的인 側面에서가 아니라 産業化의 方法내지 過程으로서, W.W.Rostow가 言及한 바와 같이 ("A Non Communist Manifesto") 共產主義는 伝

統社會의 過渡的 段階에 있어 跳躍을 위한 先行條件을 정비하여 社會를 技術的으로 成熟段階로의 轉換을 遂行케하는 形態로서 把握하고 成果를 國民福祉의 向上이라는 觀點에서 評價함으로써 兩 經濟集團의 比較評價는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社會主義化의 過程을 産業化의 側面에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K.Marx의 預言과는 달리 실제 社會主義의 革命은 落後된 後進諸國에서 完수되었다는 점이나, 아프리카 諸國 및 中南美의 경우에도 이 國家들의 急速한 社會主義化는 政治的인 性格에서 보다 産業化의 한 方法으로서 解釋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合理性의 根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社會主義 革命이 完수된 후 當面한 課題는 生産關係의 社會化로 土地沒收와 土地再分配이나 土地分配의 結果가 낳은 小農의 低生産性의 問題를 解決치 못해 곧 集團化의 過程을 겪게 되었으며 또한 生産關係의 社會化와 計劃經濟의 실시에 成功을 거둔 蘇聯의 경우에도 中央統制 計劃經濟方式만으로는 持續的인 生産力의 增大가 어렵게 됨에 따라 「리베르만」方式에 의한 NEP (新經濟政策)等 市場機能에 의한 分配와 生産效果를 인정하고 國民經濟 「메카니즘」에 점차 관심을 높혀가고 있는 現實 社會主義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社會主義化는 理念의 問題에서 보다 産業化로의 性格을 강하게 反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韓半島는 有史以來 한 民族으로서 하나의 經濟圈을 유지해 왔고, 日帝下에서 처음으로 産業化를 經驗한 하나의 經濟圈이 1945年 解放以來 理念的으로나 經濟體制로나 전혀 相異한 두개의 經濟圈으

로 30年以上을 持續해 왔다는 點, 또한 北韓은 余他の 社會主義 國家와도 달리 가장 閉鎖的인 經濟體制를 固守해왔고, 韓國은 代表的인 對外指向的인 經濟政策을 遂行해 왔다는 點에서 두 經濟圈의 發展過程을 産業化의 觀點에서 把握하고, 國民福祉의 向上을 尺度로 그 成果를 評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思料된다. 다만 北韓의 各種 經濟統計 및 資料는 大部分 對外弘報用的 性格을 띠고 있어 그 信빙성이 낮다는 點, 그리고 各種 統計의 集計方法 및 時系列等이 南北韓에 極甚한 차이를 보여 南北韓 經濟現況을 把握하는데 큰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하겠다.

第 2 章 經濟体制의 比較

1. 韓國의 經濟体制

韓國은 根本的으로 自由資本主義 經濟体制이다. 따라서 基本的으로는 生産手段의 私有財産制度를 認定하고 있으며 私的利潤追求의 極大化가 도모되고 있다. 여기에는 經濟競爭의 原理에 立脚한 自由競爭과 市場價格機能에 依한 自律的 資源配分이 尊重된다.

그러나 解放以後 日帝 植民地經濟의 殘骸위에서 높은 經濟成長을 追求해 나감에 있어 高度로 發達된 先進資本主義 經濟体制의 以上의 諸 特質이 그대로 適用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低開發의 後進段階에 있는 모든 國家들이 그러하듯이 貧困의 惡循環(vicious circle of poverty)의 고리를 打破하고 빠른 時日안에 近代化의 過程을 밟기 위하여는 高度로 組織化되고 訓練된 政府의 主導的 經濟參與가 必然的이었다. 따라서 現在의 大部分 先進資本主義 國家들이 經驗하지 못했던 政府主導의 成長政策이 實施되었고 韓國은 現在 公式的인 經濟計劃機構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私經濟部門을 잠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私經濟部門의 成長을 指導하고 그 經濟的與件의 助成에 目的이 있는 만큼 비록 私經濟部門에 對한 部分的인 規制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自由資本主義 經濟体制의 根本的性格에는 조금도 變함이 없는 것이다. 다만 經濟成長의 過程에서 公經濟部門의 比重이 높았으며 그 寄與度가 높았던

것은 事實이며 이러한 點으로 韓國의 經濟體制는 純粹한 自由資本主義體制라기 보다는 後進資本主義型의 混合經濟體制로 봄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즉 先進資本主義國家가 總需要, 고용, 物價 등의 全體 景氣變動要因에 対処하여 「Keynes 型의 混合經濟體制를 지니고 있는 反面 韓國의 그것은 經濟成長의 도모가 그 主目的이 되고 있다. 그러나 最近 經濟規模 및 構造가 점차 擴大 深化되면서 所得再分布 및 景氣變動과 公害等 先進國型의 經濟問題가 抬頭하게 됨에 따라 經濟에 對한 政府計劃의 役割도 점차 그 모습을 달리 하고 있음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이와 같은 韓國의 資本主義體制의 基本的特徵을 經濟主體 및 經濟計劃의 役割에 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經濟主體로는 私的經濟部門과 公的經濟部門이 併存하고 있으나 經濟構成面에서는 私的經濟部門이 圧倒的인 優位를 가지고 國民經濟의 根幹을 이루고 있다. 公的經濟部門은 一部の 國營企業과, 專賣事業 등으로 構成되고 있으며 약간의 公私混合企業이 存在하고 있다. 그러나 經濟發展過程의 總固定資本形成 및 成長主導役割에 있어 公共部門의 比重은 상당히 높은 實情이다. 이밖에 政府는 私的經濟部門에 對하여 여러가지 形態의 制限을 加하고 있는데 價格의 統制를 비롯한 市場에 對한 干涉, 統制 등에 依한 所得再分配, 農地 등에 對한 所有의 制限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經濟計劃의 役割에 關하여 살펴보면 韓國의 經濟體制는 一般的으로 自由競爭에 依한 市場機構가 基礎가 되지만 이중 廣範

困한 部分은 政府의 計劃과 統制에 依해 規制되고 있어 先進資本主義諸國에 있어서 보다 훨씬 強力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그러나 韓國의 經濟計劃은 어디까지나 自由市場經濟를 基礎로 한 調整的 彈力的인 政策體系의 提示라는 點에서 社會主義國家의 中央集權的經濟計劃과는 그 性格을 달리하고 있는데 즉 韓國의 經濟計劃은 모든 國民經濟活動을 組織的이고 直接的으로 規制하는 것이 아니라 民間의 왕성한 經濟活動을 助成하고 이를 政府의 經濟基本目標와 接近할 수 있도록 誘導하고 影響을 미치게 하는 間接的이며 方向提示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北韓의 經濟體制

北韓은 社會主義諸國中에서도 가장 硬直된 經濟體制를 가지고 있으며 徹底히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體制를 取하고 있다. 이에 따라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와 分權的인 市場機構는 全面的으로 否定되고 있으며 黨과 國家가 모든 生産手段을 掌握함으로써 中央集權的인 組織的, 直接的 計劃에 의한 強制的 資源配分을 行하고 있다. 企業利潤은 一部配給制度에 依한 私的部門에의 分配를 除外하고는 모두 國家에 帰屬되며 法的 및 公的經濟機關이 經濟活動의 主体가 되고 있다. 解放以後 当初에는 小規模企業 및 零細商業部門에 對한 私有財産制度를 認定하고 있었으나 1958년에는 「利用」 「制限」, 「改造」라는 3段階의 口號를 내걸면서 이를 完全히 廢

止하고 現在에는 國有와 協同組合所有의 두가지 所有形態만이 있었
었다. 즉, 地下資源을 비롯한 天然資源, 山林, 河川, 鉍工業, 운수,
通信機關, 銀行 및 商業流通網, 住宅, 科學文化機關등 經濟活動의
거의 모든 領域이 國有化되어 있으며 協同農場, 所有耕作地 및 부
대시설, 農場所有 관계시설 및 文化厚生施設, 小規模 生産協同組合
및 消費協同組合등은 協同組合形態의 公有分으로 남아 있는데 이들
도 점차 固有化 되어가는 傾向을 보이고 있어 私有 및 私營業部
門의 여지는 一部 터밭 및 自家生産分을 除外하고는 전혀 없는
實情이다. 이와 같은 生産手段의 國有화와 農業生産의 集團化를
바탕으로 모든 經濟活動은 中央集權的인 計劃當局의 包括的이며 硬
直的인 命令과 指示의 下達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實情이므
로 北韓에 있어서의 中央計劃當局에 의한 經濟體制 및 統制는 北
韓經濟에서 絶對的인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生産單
位의 生産의 運營指標는 利潤을 目標로 하는 것이 아니라 中央計
劃當局의 劃一的인 管理에 의하여 統制받고 있으며 消費者 選擇의
自由는 勿論 職業選擇의 自由등도 效果性爲主의 社會主義的 競爭原
理에 의하여 극도로 制限되게 된다.

3. 綜合比較

韓國의 自由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와 北韓의 社會主義計劃經濟體制
는 여러가지 測面에서 서로 相反되는 特徵을 가진다. 먼저 生産

手段의 所有面에서 韓國은 私有制를 取하고 있으며 北韓은 國公有
制의 形態를 가진다. 따라서 經濟主体에 있어서도 韓國은 民間企
業이 投資의 主体인 反面 北韓은 國家計劃에 의한 國營企業 등이
이를 맡고 있다. 韓國이 私的利潤追求誘因에 의한 個人的 創意와
能力發揮를 經濟의 가장 主된 運營手段으로 삼는 反面 北韓은 社
會主義의 宣傳에 의한 勞動者 및 農民集團의 党性을 가장 重要視
한다.

資源의 配分에 있어서도 韓國이 原則적으로 價格機構에 依한 市
場의 自律的인 需要供給에 依存하는 反面 北韓은 中央集權的인 計
劃에 의한 強制指示에 依存하고 있다. 市場의 價格機構에 의한
資源配分이 自由指向的이며, 合理的 彈力的인 性格을 가지는 反面
計劃當局에 依한 그것은 統制指向的이며 當爲的, 硬直的인 性格을
內包하게 된다.

經濟計劃에 있어서도 南韓의 그것이 私部門의 經濟活動을 促進하
고 与件을 마련하기 위한 間接的이며 誘導的 性格을 가지는 反面
北韓은 經濟全般에 걸친 包括的이며 命令的 直接的인 性格을 지니
고 있다.

이와 같이 韓國의 經濟體制는 諸般 經濟의 運用에 있어 個人的
創意의 能力發揮의 極大化를 통한 보다 積極的인 形態를 지닌 反
面 北韓의 그것은 硬直的, 統制的인 性格의 限界를 가지게 됨으로
써 個人的 創意性 및 能力發揮의 機會가 欠如되는 結果를 가져오
게 되었다. 그 結果 國民經濟 全般의 端末部門까지에 걸친 과다

한 計劃業務로 非生産的인 管理業務從事者는 繼續 增加를 보이고 있으며 生産業務에 從事하고 있는 大多数勞動者 및 農民의 경우에도 個人의 創意性 欠如로 因한 生産意慾喪失과 勞動의 能率低下로 技術革新이 遲延되고, 生産性이 低下되었다.

蘇聯 및 西歐諸國도 이러한 經濟体制上的 欠陥으로 因하여 1960年代부터 生産單位에 소위 「리베르만」方法을 導入, 生産活動에 私的利潤概念을 適用하고 經濟活動의 決定單位를 中央集權的인 計劃에서 各 經濟主体別로 分散시킴으로서 制度改革을 斷行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이른바 Marx-Lenin主義의 解釈 및 實踐에 있어 가장 教條主義的이며 強壓的인 經濟体制을 維持하고 있는데 이는 北韓이 아직도 社會主義的工業化에의 發展段階가 後進을 脫皮치 못한데 起因하는 것이다.

第 3 章 經濟政策의 比較

1. 韓國의 經濟開發政策

解放以後 50年代까지 韓國經濟는 日帝植民經濟의 遺産을 完全히 舐拭하지 못한 狀態에서 그리고 国土分断으로 因한 破行的經濟構造의 脆弱點속에서 年平均 20%를 上廻하는 慣性的인 인플레이의 繼續, 높은 人口增加率, 産業構造의 零細性, 低所得으로 因한 低貯蓄, 投資의 低位로 說明되는 貧困의 惡循環을 繼續하였다. 그러나 1960年代에 들어와 5個年經濟開發計劃이 實施되면서 韓國經濟는 急速한 成長을 보고 있다.

이는 開發初期段階에 內在한 不均衡을 短期間內에 解消하고, 높은 經濟成長을 達成하기 위하여 政府의 広範圍한 經濟介入과 開發政策의 樹立및 實施에 기인한 것인데 1962年부터 實施하기 始作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中心으로 韓國의 經濟開發政策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韓國經濟의 開發政策을 計劃期間別로 概觀해 보면 1次計劃(1962~66)期間에는 經濟成長基盤의 構築을 위한 社会間接資本의 投資, 基幹産業의 育成 그리고 消費財輸入代替등에 注力하였고 2次計劃期間(1967~1971)에도 輸出主導型 經濟体制를 構築하고, 工業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消費財 및 中間財의 輸入代替産業 育成, 消費財등 輕工業製品의 輸出增大, 繼續的인 社会間接資本補充 및 基幹産業의

育成 등에 힘을 기울였으며 3次計劃期間(1972 ~ 76)은 成長 安定均衡의 三大經濟目標을 標榜하고 이를 위하여 相對적으로 落後部門이었던 農漁村經濟의 開發, 中間財 및 施設材를 包含한 輕工業製品 輸出의 深化, 그리고 重化學工業의 基盤마련 및 建設에 力點을 두었다. 또한 77年부터 實施하여 81年까지 繼續될 4次計劃期間中에서는 成長, 能率, 衡平의 理念下에서 自力成長構造를 構築하고 經濟開發을 통하여 衡平을 增進시키며, 技術을 革新하고 能率을 向上할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이를 좀더 仔細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가. 自力成長構造의 實現

國內貯蓄率의 提高를 통한 投資財源의 自力調達과 國際收支의 均衡 그리고 技術 및 熟練勞動集約的 産業中心의 重化學工業의 比重提高를 통한 産業構造의 高度化 基盤위에서 自力成長構造의 實現을 도모한다.

나. 社會開發의 促進

經濟의 量的인 擴大와 함께 衡平의 增進으로 國民福祉의 向上을 期함에 있어 經濟發展段階에 適合한 所得分配와 生活環境의 改善에 力點을 둔다. 이를 위하여 1次的으로는 雇傭, 教育, 保健, 職業訓練등의 1次的 所得分配의 改善強化와 함께 綜合所得稅制와 政府의 移轉支出을 통한 2次的 所得分配改善의 制度와 基盤을 마련한다. 한편, 計劃期間中에는 農漁村電化, 給水, 지붕改良等 生活環境改善事業을 完結토록하고, 住宅을 擴大普及하며, 經濟發展段階에서 派

生되는 公害等 副作用을 最大限 防止 함으로써 生活環境에서의 基本 需要를 充足한다.

다. 技術의 革新과 能率의 向上

科學技術投資를 1981년에 國民總生産의 1%水準으로 높임으로써 새로운 技術의 導入과 土着化를 促進하고 技術開發能力을 擴大함으로써 生産性을 向上시키고 社会全般의 能率을 提高한다. 한편, 勞使協同体制의 強化, 各種 支援体制와 行政制度의 改善등을 통하여 公正한 競争秩序를 確立하고 企業과 國民의 創意力을 啓發하며 自由로운 經濟活動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또한 公正競争秩序의 強化, 産業情報伝達体制의 整備, 企業의 經營合理化등으로 國際競爭力의 強化를 도모한다.

라. 開發政策의 特徵

以上の 經濟開發目標를 達成함에 있어 韓國은 民間自由企業의 經濟活動을 토대로 價格機構를 中心으로 하는 効率的이며 彈力的인 經濟運用과 輸出을 先導로 하는 開放的이며, 對外指向的인 經濟體制 그리고, 社会間接資本 및 輕工業의 基盤擴充을 통한 漸進的인 重化學工業의 育成을 도모하고 있다.

(1) 民間自由企業의 經濟主導

韓國의 經濟開發政策의 原則은 民間自由企業의 創意와 能率 向上을 爲主로 하고 基幹産業과 그밖의 民間部門의 投資가 困難視 되고 部門에 對하여는 政府가 直接介入하거나 各種 支援策의 提供

으로 民間投資를 誘導하는 形式을 取하고 있다. 政府의 役割은 社会間接資本 등의 補充과 行政 및 稅制 金融上의 支援에 의한 民間企業의 投資環境을 助成하는데 그치는 것이며, 經濟主体는 어디까지나 民間의 自由企業에 依存하고 있다. 따라서 市場의 價格機構에 의한 自律的인 經濟運用이 그 基調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点에서 韓國의 開發政策은 彈力的이며 伸縮的인 運用이 可能하였다.

(2) 對外指向的 開放經濟體制

韓國經濟는 開發初期段階에서의 投資財源不足을 外國資本에 의해 充足시켰으며 國內賦存資源의 欠如, 高度의 人口密度, 國內市場의 貧困等 制度的條件을 打破하기 위하여 繼續的인 對外貿易의 擴大로 外向的經濟成長(outward-looking growth) 함으로써 開發計劃期間中 劃期的인 輸出增大를 이룩하여 77년에는 輸出이 100億을 超過하게 되었으며 國民總生産에 對한 輸出入依存度는 66.5%에 達하게 되었다.

(3) 消費財와 生産財의 調和

韓國經濟는 工業化에 있어 輕工業育成에 의한 消費財産業의 補充, 農漁民所得增大 등의 段階를 거쳐 重化學工業建設에 着手하였다.

이는 消費財와 生産財의 均衡있는 供給을 通하여 國民生活을 安定시키고, 間接的으로는 國民福祉를 向上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2. 北韓의 經濟開發政策

生産手段의 私有를 否定하고 모든 經濟活動을 國家의 統制下에 두고 있는 北韓에 있어서 經濟計劃은 絶對적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에서의 모든 經濟活動은 國家的인 次元에서

解放以後 北韓은 蘇聯의 社會主義體制移植을 바탕으로 殖民地經濟의 一般的 脆弱點을 是正하고 社會主義的 自給經濟體制를 確立한다는 命題下에 소위 「民主改革」등 一聯의 經濟計劃을 實施하여 왔는데 解放以後 1976年까지의 北韓의 經濟發展은 대개 다음의 6段階로 나누어 說明된다. 第1段階는 1946年부터 1950年6월까지의 期間으로 經濟的基礎確立時期 또는 經濟民主化의 時期라고 부르며 同期間中 土地改革實施 및 産業의 國有化가 이루어졌다. 第2段階는 1950年6月부터 1953年7月까지로 戰爭經濟의 時期이며 第3段階는 1954年부터 1956년까지이며 戰後復旧와 社會經濟改造의 3個年計劃의 時期이다. 第4段階는 1957年부터 1960년까지이며 工業化의 基礎造成과 農業集團化完成의 5個年計劃의 時期이다. 第5段階는 1961年부터 1970년까지이며 社會主義工業化를 完成했다고 하는 7個年計劃의 時期이다. 끝으로 第6段階는 社會主義의 物的基礎를 擴大하고 民生의 質的向上을 進行시켰다고 하는 6個年計劃의 時期인 바 1971年부터 1976年까지의 期間을 이른다.

이를 韓國의 經濟開發計劃이 實施된 1962年과 期間을 맞추어 1961年부터 實施되었던 人民經濟 7個年計劃부터 좀더 상세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7個年計劃의 基本目標은 重工業의 優先的 發展, 輕工業과 農業의 同時的 發展, 全面的 技術革新 및 文化革命과 住民生活의 向上이다. 그러나 이 計劃은 當時 中·蘇紛爭의 틈바구니 속에서 北韓이 당초 의도했던 蘇聯의 支援을 計劃대로 얻지 못하게 되어 目標達成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3年間 더 延長되어 1970年에 終結되었다.

다음으로 人民經濟 6個年計劃이 1971年부터 1976年까지 實施되었는데 同 計劃은 7個年計劃에서 이룩한 工業化의 成果를 公高히 發展시키며 技術水準을 보다 높은 段階로 進進시켜 社會主義의 物質的 技術的 土臺를 튼튼히 하고 經濟의 모든 部門에서 勞動者를 重勞動에서 解放시킬 것을 基本目標로 내세웠다. 이를 위하여 첫째 重勞動解消와 勞動時間의 短縮 및 女性을 家事勞動에서 解放시키며 둘째, 이와 關聯된 經濟土臺와 生産의 潛在能力을 最大한 活用하여 勞動 生産性의 提高로 工業을 급속히 發展시킨다는 것이다. 세째는 技術革新과 함께 文化革命을 展開하여 社會主義 文化建設을 促進시킴과 同時에, 네째로 勞動階級化를 積極 推進시킨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全体人民의 武裝化, 全地域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全軍의 現代化로 國防力을 強化하고, 여섯째는 人民生活의 均衡的 体系的發展의 積極化, 그리고 일곱째로 國際革命力量 強化등의 基本政策方向을 두었다.

以上の内容を 가진 北韓 經濟計劃의 主要 特徵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自由市場이나 價格機構를 否定하고 強力한 中央集權的 計劃機構의 設置로 生産資源의 할당제 또는 消費財의 配給등 모든 經濟活動을 中共으로부터의 命令에 귀속시키는 作用을 한다. 그러므로 北韓에서의 經濟計劃은 自由經濟에서의 價格機構와 同一한 役割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北韓의 經濟計劃은 「自立的 民族經濟」를 표방하고 나섬으로서 철저한 아우타르키 (Autarky) 的, 对内指向的 (inward-looking policy) 閉鎖經濟體制를 가지게 되었다.

셋째 北韓은 重工業優先政策을 實施함으로써 國民의 消費生活은 극도로 抑制되었으며 國防爲主의 經濟體制를 지니게 되었다.

3. 綜合比較

南北韓의 經濟開發政策은 經濟成長의 目標에서부터 그 性格을 달리 한다. 즉 韓國은 經濟成長의 目標을 國民福祉의 向上에 두고 消費財育成등 輕工業의 基盤擴大위에 重工業의 育成을 圖謀하였다.

그러나 北韓은 國防力強化에 力點을 둔으로써 軍需産業등 重工業 優先政策을 實施하였으며 따라서 國民의 消費生活은 극도로 抑制당하고 있으며 主要 生必需品도 配給에 依存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計劃의 內容에 있어서도 韓國은 價格機構에 依한 消費者選

択의 多樣性을 認定하고 이의 充足을 위하여 社会間接資本의 扩充, 등 國民의 基本的要求에 적절히 対応하고 있으나 北韓의 경우 中央統制者의 選好에 依拠하여 計劃이 作成되므로 人民의 慾求가 反映되지 못한다.

南北韓 經濟計劃의 가장 커다란 差異點은 開發戰略으로서 韓國은 对外的 (outward-looking policy) 開放經濟體制를 指向하였으며 北韓은 对內的 (inward-looking policy) 閉鎖經濟體制를 指向하였다는 點이다. 이것은 다만 開發戰略으로서 一律的으로 評價할 수는 없으나 一般的으로 資本 및 資源이 不足하고 技術 및 經營能力이 欠如되어 있는 開發途上國의 경우 对外指向的 經濟成長이 보다 効率的인 것으로 認定되고 있다. 事實上 韓國은 高度의 經濟成長을 示顯하였고 높은 貿易依存度에도 不拘하고 財政 및 投資財源面 등에서 初期의 外国依存狀態에서 거의 完全히 脱皮함으로써 自立經濟基盤을 構築하였는데 이것은 閉鎖經濟體制만이 自立經濟를 可能케 한다는 消極的인 成長戰略과 크게 对照되는 것이다.

第 4 章 經濟的与件的 比較

1. 人口 및 教育

가. 韓國

1976年 現在 韓國의 人口는 3,586万名이며 이중 經濟活動 人口는 1,306万名에 達하고 있는데 이는 總人口의 36.4%, 14 歲以上人口의 57.9%에 該當하는 것이다. 한편 人口增加率은 1962 年에는 2.9%였던 것이 1976年에는 1.64%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教育部門에서는 韓國은 높은 教育熱과 教育水準으로, 良質의 勞動力을 배출하고 있다. 基本學制는 6, 3, 3, 4制로서 義務教育期間은 6年間인데 中學校 및 高等學敎의 進學率도 75年 現在 77.2%와 74.7%로서 상당히 높은 進學率을 보이고 있다.

나. 北韓

1976年 現在 北韓의 人口는 約1,600万名으로 推定되고 있는데 이중 經濟活動人口는 74年 現在 531万名으로 當時의 總人口 1,590万名의 33.4%로서 韓國보다 낮은 水準이다. 이것은 北韓의 人口增加率이 76年 現在 韓國보다 높은 2.6%로서 總人口中 14歲未滿 人口의 比率이 韓國보다 높을 뿐 아니라 14歲以上의 勞働可能人口중 많은 部分이 軍服務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진다. 그리하여 北韓은 勞動力不足事態의 解消를 위하여 勞動時間의 延長, 女性動員 및 人口增加獎勵策 등에 의한 勞動力增大에 힘쓰고 있는 實情이다.

教育制度에 있어서는 北韓은 形式的으로는 人民學校에서 高等學校까지 11年間の 義務教育을 實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韓國의 義務教育이 누구에게나 같은 教育의 機會를 無償으로 提供하는 것을 의미하는 反面 北韓에 있어서는 一般教育體系에만 국한되는 것이므로 一律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基本學制는 4, 3, 2, 2, 4制로서 技術學校(2)와 高等技術學校(2)가 包含되어 있는데 이렇게 技術教育을 一般教育體制에서 4年間 義務化한 것은 北韓의 教育目的이 技術勞動者의 養成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北韓에서는 住民의 思想體系를 中心으로 身分을 여러 類型으로 나누고 黨에의 忠誠心程度에 따라 教育의 機會를 달리하고 있어 大學教育은 工場大學을 除外하고는 黨이 規定하는 特殊身分에 해당하는 者만이 入學이 許容되고 있다.

2. 國土 및 自然資源

韓國의 國土面積은 98,477 km²로서 韓半島全體의 約45% 정도에 該當한다. 國土의 利用面에서는 平野地帶가 많고 氣候條件이 좋아서 農業生産과 交通運輸面에서 有利하다. 特히 韓國은 國土의 綜合開發에 따라 全天候農業施設의 構築과 高速道路網의 擴張으로 全國을 1日生活圈化 함으로써 國土를 効率的으로 利用하고 있다.

그러나 自然資源面에서는 北韓이 훨씬 有利한 立場인데 主要한 鉍物의 埋藏量을 南北韓別로 区分하여 보면 別表와 같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은 석회석과 아연을 除外하고는 모든 鉍物에서 主要鉍物 埋藏量의 南北韓比較

(單位：千噸)

区 分	南 韓		北 韓		計	
	埋藏量	比率	埋藏量	比率	埋藏量	比率
鐵 鉍	121,368	8.5	1,300,000	91.5	1,421,368	100.0
重 石	12,749	40.0	19,123	60.0	31,872	-
닉 矽	64	20.0	256	80.0	320	-
金	1,180	33.5	2,340	66.5	3,520	-
銅	11,243	40.0	16,870	60.0	28,113	-
亜 鉛	8,202	50.6	8,000	49.4	16,202	-
마그네사이트	-	-	6,500,000	100.0	6,500,000	-
石 灰 石	4,199,300	79.6	1,068,100	20.4	5,277,400	-
無 煙 炭	1,450,449	11.0	11,741,000	89.0	13,191,449	-
有 煙 炭	5,000	2.0	245,000	98.0	250,000	-

資料：国土統一院

北韓보다 적은 埋藏量을 保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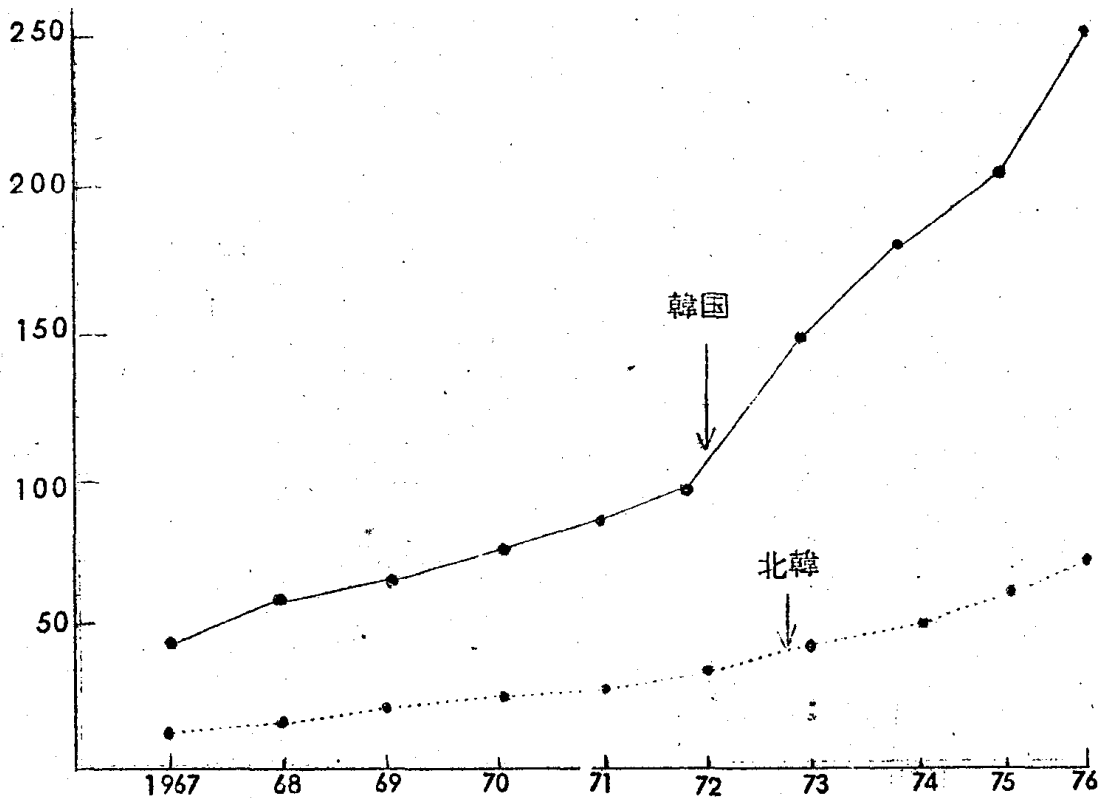
한편 林産資源에서도 韓國의 林野 656 万町步에 비해 北韓은 956 万町步에 달하고 있으며 水資源도 北韓이 훨씬 豊富한 實情이므로 自然資源은 北韓에 상당히 偏在되어 있다. 이러한 自然資源의 北韓偏在은 北韓의 重工業發展의 与件形成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韓國은 總耕地面積이 234.7 万町步로서 北韓의 205.4 万町步보다 많으며 自然條件도 北韓보다는 有利하므로 이의 活用に 注力하고 있다.

第 5 章 主要部門別 經濟現況比較

1. 總量規模

1976年 現在 韓國의 國民總生産은 251億 \$이며 1人當 GNP는 700 \$ (77年 860 \$) 水準에 이르고 있음에 比하여 北韓은 GNP가 58億 \$, 1人當 GNP는 363 \$ 水準에 그쳐 GNP는

南北韓 GNP 趨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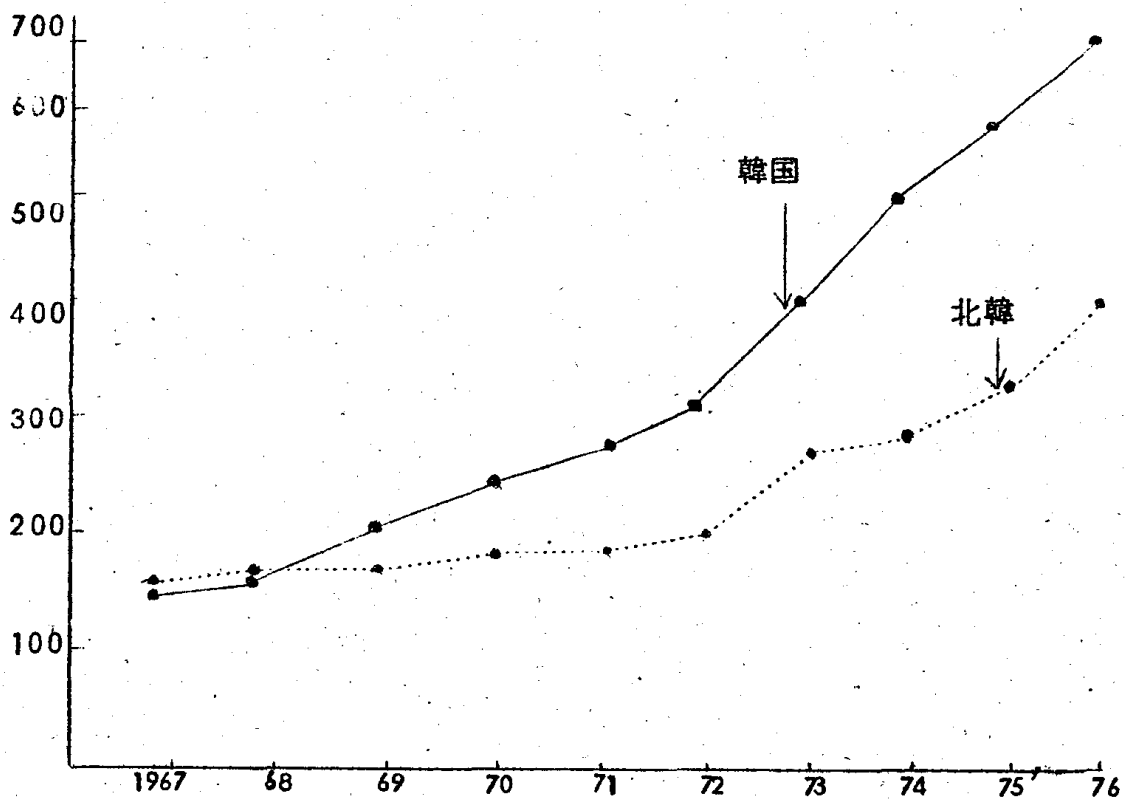


韓國	42.4	50.5	64.0	75.6	87.5	98.2	123.7	171.6	187.6	250.9
北韓	21.1	25.7	27.2	31.9	34.6	37.5	44.5	48.2	53.8	58.1
韓國/北韓	2.0	2.0	2.4	2.4	2.5	2.6	2.8	3.6	3.5	4.3

韓國의 23.1% 1人當 GNP는 52%에 不過하다.

한편 國民總生産에 대한 軍事費負擔率을 보면, 1976年 現在 韓國이 5.3%, 北韓은 14.9%로서 比率面에서 韓國의 약 3倍에 達하고 있다. 1976年 現在 韓國의 投資率이 25%인데 比해 北韓은 35~40%나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成長率에 있어 韓國의 15.5%보다 훨씬 낮은 5% 水準에 그쳤던 것은 勿論 經濟體制

南北韓 1人當 GNP 趨移



韓國	143	138	208	242	275	304	361	481	532	700
北韓	162	194	200	228	241	255	295	313	342	363

상의 非効率性和 非生産性에도 原因이 있겠지만 過多한 國防費의 支出에도 一部 基因하는 것이다.

歲出予算規模는 76年 韓國이 44.4 億\$, 北韓이 52.8 億\$로서 GNP 對 歲出予算規模의 比重은 韓國이 17.7%, 北韓이 91.0%로서 北韓이 金額 및 比重에 있어 훨씬 많은데 이는 北韓의 財政이 GNP에서 지극히 소극적으로 認定되는 個人消費를 제외한 全經濟活動을 망라하게 되기 때문이다.

2. 農業部門

가. 個人經營 및 集團經營

農業經營에 있어서 韓國은 個人經營을 根幹으로 하고 農協 등을 통한 協業化體制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北韓은 協同農場을 主軸으로 하는 社會主義的 集團農業經營體制를 取하고 있다. 즉 北韓은 1946年 土地改革의 實施로 耕作者인 農民에게 土地를 無償으로 分配하였는데 1954년부터 集團農場化를 強化함으로써 1976年 現在 協同農場은 全耕地面積의 約 90%, 總農業生産額의 約 85%를 生産해내는 絶對的인 位置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 耕地面積과 氣象條件

1976年 現在 韓國의 耕地面積은 2,241천 ha로서 耕地率은 24.1%이며 北韓은 2,071천 ha로써 16.6%에 不過하여 耕地面積 및 耕地率에 있어 北韓은 韓國보다 훨씬 低位에 있다. 한편 田畝의 比率은 韓國의 경우 田아 978千 ha로 畝이 優勢

하나 北韓은 田이 1,374千ha로서 66.4%, 畚은 697千ha로서 33.6%에 不過하여 田面積이 훨씬 넓은데 이는 北韓의 自然條件에 基因하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은 水稻作中心의 農業을 營為하게 되었고 北韓은 田作爲主의 營農을 하고 있다. 한편 農業과 밀접한 關係가 있는 氣象條件을 比較해 볼 때 年平均氣溫에서는 韓國이 대개 13 ~ 10℃ 정도인데 비해 北韓은 中部近接地域은 10℃ 内外, 北部地方은 2 ~ 8℃ 内外로 되어 극히 낮은 便이다. 年平均 降雨量도 南韓이 1,300mm 水準으로 北韓이 매우 不利하다.

다. 農業人口 및 1戶當耕地面積

1976年 現在 南.北韓의 農業人口는 全人口의 各各 35.8% 및 42.4%인 1,279萬名 및 671萬名으로 推算되고 있다.

1人當耕地面積은 韓國이 0.94ha인데 비해 北韓은 1.6ha 높은 편인데 이는 農家戶數에서 北韓이 韓國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이다.

한편 韓國은 工業化의 進展으로 農業人口의 比重이 1965年에 비해 1976年에는 19.2%「포인트」가 減少한 反面 北韓은 이와 反對로 1970年을 高비로 하여 以後 每年 0.3 ~ 0.5%「포인트」씩 增加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라. 營農現代化

北韓은 1960年初부터 農業機械化에 着手하였으므로 農業機構化에 있어 韓國을 앞서고 있다. 北韓은 集團農場에다 田作爲主이며 더욱기 勞働力 不足으로 重裝備機械化를 實施하였으나 韓國은 零細性을 띤 個人經營方式이며 制約을 받기 때문이다. 韓國은 1974年부

터 本格的으로 耕耘機가 普及되기 시작했으며 1976年 現在 韓國은 트랙터 564 台, 耕耘機 128 千台를 保有하고 있는데 比하여 北韓은 트랙터를 7~8 萬台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稼動率은 50% 未滿으로 매우 低調한 편이다.

化學肥料에 있어서 韓國은 1967年 以後 輸入依存型에서 國產自給 代替型으로 轉換되었으며 1976年부터는 生産剩餘狀態에 있는 實情이다. 現在 韓國의 施肥量은 成分含量으로 ha當 390 Kg에 이르고 있으나 北韓은 아직도 ha當 200 Kg에 그치고 있다.

育種理論과 育種技術에 있어서 韓國의 水準은 世界的인 것으로 認定받고 있으며 이밖에 營農技術도 커다란 進展을 보고 있다. 벼에서의 多收穫品種育成을 通한 綠色革命으로 10 ha當 水稻生産量은 密陽23號의 경우 470 Kg에 이르고 있어 食糧自給에 있어 크게 寄與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도 育種理論에 있어 定說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營農技術도 韓國水準에 未達하여 10 ha當 收穫量이 360 Kg 水準에 머물고 있다.

마. 穀物生産量

韓國의 食糧生産實績은 肥料 및 農藥의 多量投入으로 因한 土地生産性的의 向上과 함께 계속 增加趨勢를 보여주고 있는데 ; 1976年의 米穀生産量은 521 萬톤이며 薯類를 包含한 總穀物生産量은 821 萬톤에 이르고 있다. 다만 生産의 增加에도 不拘하고 消費의 增加로 그만큼 輸入依存이 커지고 있어 全體糧穀의 自給率은 76% 水準을 維持하였다.

南北韓 穀物 生産量

(單位：千噸)

	韓 國			北 韓		
	穀 物	薯 類	合 計	穀 物	薯 類	合 計
1972	6534	674	7208	2947	1250	4197
1973	6550	612	3161	3094	1250	4344
1974	6761	543	7304	3248	1250	4498
1975	7399	740	8139	3410	1250	4660
1976	7535	671	8206	3293	1250	4543

資 料

韓國：農水産部 · 北韓：国土統一院

한편 北韓의 경우 堆定된 總穀物生産량을 보면 1976年 454萬 톤으로 韓國의 55.3% 水準에 그치고 있다.

3. 鉍工業部門

地下資源과 動力資源 및 工業生産基盤의 北韓偏在로 立地的 條件에서는 北韓이 월등히 有利한 鉍工業部門도 韓國의 3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인 遂行으로 日政時代부터의 北韓優位部門에서 점차 韓國優位部門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가. 에너지 産業

北韓은 豊富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石炭中心의 에너지 消費를 하고 있는 反面 韓國은 石油등 多様な 에너지 消費를 追求하고 있다.

76年 現在 南北韓 石炭生産実績을 보면 韓國이 1,642萬屯으로 北韓이 約 2倍以上 더 많은 生産量을 確保하고 있다.

精油産業部門은 韓國이 훨씬 優位를 占하고 있는 部門으로 韓國은 1964年에 蔚山精油工場을 稼動시킨 以後 계속적인 精油能力의 擴大로 76年末 現在 原油處理能力은 1,832萬屯規模로 北韓의 100屯規模에 比해 約 18倍에 該當하는 実績을 보이고 있다. 이는 韓國이 主油縱炭的 에너지政策을 強行하면서 이 部門에 일적 投資하기 시작하였으나 北韓은 1973년에야 開發에 착수하였기 때문이다.

電力工業은 南韓地域에 比해 北韓地域이 水資源과 發電施設 등 비교적 優越한 條件下에서 開發이 始作되었으나 韓國은 1962年 1次電源開發 5個年計劃의 着手과 함께 持續적인 電力生産施設의 擴張으로 1976年末 現在 發電施設은 韓國이 481萬KW, 北韓이 454萬KW이며 發電量에 있어서도 韓國이 231萬KWH, 北韓은 213萬KWH로 韓國이 앞지르고 있다. 한편 發電動力에서는 韓國이 철저한 火力爲主의 施設인 反面 北韓은 水力中心의 施設을 갖추고 있다.

나. 金屬工業

이 部門 역시 北韓은 資源 및 工業立地條件의 優位로 1960年代까지 北韓이 優位를 지켰던 部門이나 1970年代에 들어와 韓國의 浦項綜合製鐵工場의 第2高爐의 가동을 제기로 한 製鋼能力의 擴大로 鋼鐵, 鋼材部門에서 生産能力 및 技術에서 韓國이 압도하기 始作하고 있다. 즉 1976年末 現在 鋼鐵의 경우 韓國이 345萬屯, 北韓은 343萬屯, 그리고 鋼材의 경우 韓國이 527萬屯, 北韓이 188萬屯으로 韓國이 優位를 占하고 있고 銑鐵은 韓國 252萬屯, 北韓 311萬屯으로 北韓이 앞서고 있다. 北韓은 鐵鉍石의 多量生産과 特殊鋼의 長期操作經驗으로 相當水準의 技術을 蓄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韓國은 浦項工業製鐵의 계속 擴張과 第2綜合製鐵工場의 建設을 計劃하고 있어 이 部門에서의 生産能力을 大幅 擴大하게 된 것이다.

다. 化學工業

이 部門 역시 当初에는 北韓이 優位에 있었으나 現在에는 韓國이 앞서고 있다.

1976年末現在 化學肥料生産量은 韓國 284萬屯, 北韓 275萬屯이며 成分含量에 있어서는 韓國 143萬屯, 北韓이 64萬屯으로 成分含量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이는 韓國의 肥料生産이 尿素肥料를 중심으로 하는 最新施設인데 比하여 北韓은 成分含量이 낮은 硫安과 같은 肥料를 中心으로 生産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農藥, 主要合成樹脂 및 化學纖維등에 있어서도 韓國은 絶對

的인 優位를 占하고 있다.

라. 機械 造船工業

北韓은 軍需産業中心의 重工業優先政策에 따라 機械工業分野에 가장 重點을 두고 早期開發에 힘쓴 反面 韓國은 70年代에 들어와 本格的인 育成을 實施하였는데 他部門의 均衡的 成長基盤위에서 漸期的인 發展을 계속하고 있다.

種別로는 韓國이 自動車, 造船등 輸送用機械部門에서 絶對적인 優位를 가지고 있으며 北韓은 各種 工作機械 및 動力機械部門에서 현저히 앞서고 있다.

그러나 電子工業部門에서는 韓國이 高單位 集積回路 (LSI-IC) 方式인데 比하여 北韓은 아직도 真空管式段階에 머무르고있어 이 部門에서 特히 뒤떨어지고 있는 實情이다.

마. 建材 및 輕工業

이 部門은 韓國과 北韓의 經濟開發政策의 焦點을 가장 잘 反映해 주고 있는데 즉 韓國은 國民生活向上과 중요한 消費生活의 保障을 위하여 國內外市場需要를 토대로 消費財工業을 먼저 開發하고 다음에 生産財生産體制로 轉換하였는데 比해 北韓은 이와 反對로 消費를 抑制하고 國民福祉를 度外視한채 軍需産業爲主의 重工業을 먼저 開發하였으므로 輕工業部門에서의 韓國의 優位는 特히 두드러진다.

韓國은 이제 鉄物, 시멘트, 板유리, 建材類 및 電子製品등의 生産에 있어 世界的인 水準에 도달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를 利用

하여 年内輸出額이 100 億弗을 超過하는 輸出國으로 登場하였다. 또한 所得水準의 向上과 더불어 高度의 品質과 多樣化된 高級耐久財의 消費激增에 발맞추어 광범위한 生産體制를 갖추고 있어 国内基本需要마저 充足치 못하고 있는 北韓과는 극히 对照的이다.

4. 社会間接資本

韓國은 第一次 5 個年經濟開發計劃期間中 總固定投資의 32.5%, 第2次計劃期間中에는 41.5%을 社会間接資本部門에 投資하였으며 GNP의 約10%内外를 投資하고 있는데, 62~77年間 GNP成長率이 年平均 9.8%인데 反해 社会間接資本成長率은 16.3%에 이르고 있어 GNP成長率을 크게 上廻하고 있다. 北韓에 있어서는 이

社会間接資本의 投資 (1970年)

区 分	韓 国	北 韓
總投資率	28%	30%
社会間接資本投資 / 總投資	37.5%	27.7%
社会間接資本投資 / GNP	10.5%	8.3%

資 科 : 国土總一院

部門投資의 높은 資本係數 때문에 1次的 生産投資優先計劃에 依해 尙시 等閑視되고 있다. 1970年 北韓의 社会間接資本投資는 總投

資의 27.7%로서 當時 韓國의 投資 37.5%에 뒤지고 있으며 GNP에 대해서는 8.3%로서 韓國의 10.5%보다 2.2%가 낮은 水準이다.

가. 電力部門

電力施設은 韓國이 水資源등 自然資源이나 發電量에서 絶對적으로 劣位에 있었으나 工業化에서의 電力에 대한 重要性을 認識, 集中的인 投資를 通하여 1976年 發電施設容量은 481萬 KW에 이르게 되어 北韓의 454萬 KW를 능가하게 되었다.

發電源別 構成比率을 보면 76年現在 韓國의 경우 火力 85.2%, 水力 14.8%로서 火力의 比重이 圧倒的이고 北韓은 계속 水力為主였으나 渴水期와 冬期の 電力供給차질을 克服하기 위하여 76년에는 火力對 水力의 比率을 50:50으로 調整할것을 計劃하여 왔다.

韓國의 火力發展이 主로 石油에 依存하고 있고 北韓은 自給石炭으로 充當하고 있어 韓國은 石油에 너지 價格 및 供給變動이 곧 電力生産費用에 影響을 주고 있으나 産業生産增加에 따른 供給能力의 伸縮性은 技術과 資本能力이 높은 韓國이 優勢하다. 特히 韓國은 77년에 이미 古里原子力發電所가 稼動되어 原子力發電段階에까지 이르고 있다.

나. 輸送部門

韓國의 鐵道施設은 1976年 鐵道總延長距離가 5,653Km이며 이중 電鐵은 424Km이다. 車輛裝備에 있어서는 디젤機關車 386

를 포함한 機關車 526 台, 客車 1,806 台, 貨車 16,055 台를 保有하고 있으며 輸送実績은 76 年 旅客 247 百萬名, 貨物 44 百萬噸에 達하고 있다. 北韓의 鐵道는 6.25 動亂中 거의 파괴되었으나 休戰後 3 個年計劃과 5 個年計劃을 통하여 거의 복구되었다. 北韓은 立地條件이 東西間 海岸連結運送이 困難하므로 東西間 鐵道에 依한 輸送은 絶對적인 重要性을 가진다.

北韓은 1976 年 現在 鐵道總延長距離가 4,292Km이며 電鉄은 전체의 24.2%인 1,223Km로 韓國보다 電鉄의 比重이 매우 크다.

道路에 있어서는 韓國은 1976 年 現在 總延長길이 44,905Km이며 이中 高速道路의 길이 全體의 2.5%인 1,142Km이다. 한편 舖裝率은 全體 道路延長의 23.8%이며 國土 1Km²당 道路保有率은 450m로서 아직 높은 水準은 아니나 高速道路의 整備로 全國을 1 日生活圈化하고 있다. 反面 北韓은 道路에 依한 輸送은 鐵道와 海運運輸의 補助手段으로 利用되고있어 總延長길이는 19,875Km에 不 過해 1976 年에는 國土 1Km²당 道路保有率은 170 m 정도로 推算되고 있다.

海運에 있어서는 韓國은 經濟發展이 擴大됨에 따라 그 比重도 날로 增加하여 1976 年 現在 港灣施設은 荷役能力 5,600 萬噸, 船舶 生産能力 239 萬G/T에 이르고 있다. 이에 比하여 北韓은 東西海岸의 連結不能등 制約要因으로 하여 荷役能力은 1976 年 3,100 萬噸에 不 過한 것으로 推算되고 있으며 船舶生産도 主로 海外導入에 依存하고 있어 그 能力은 韓國에 比하여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로 보여진다.

航空貨物 및 旅客의 輸送需要가 增加함에 따라 國內외의 航空路線이 擴大되고 裝備面에서도 큰 發展을 가져와 1976年 國內路線數 10, 1日 運航回數는 26 2/7에 이르고 있으며 海外航空路線도 크게 增加, 旅客輸送에 있어 62年의 374名에서 76년에는 2,064千名으로 55倍의 成長을 하였으며 貨物輸送에 있어서도 62年 34屯에서 76年 113千屯으로 37倍나 增加하였다.

한편 北韓은 1954年 國內航路가 開設되었으나 1960年 費用多額을 過하는 名目으로 廢止되었다가 70년에 復活되었으나 黨의 高位幹部만이 利用하는 정도이고 軍의 直接統制下에 있어 貨物 또는 旅客運送에 아무런 役割도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對外路線으로는 平壤-모스크바, 平壤-北京間의 定期航路 및 主로 東歐와 連結되어 있는 몇개 程度만이 있을 뿐이다.

다. 通 信

韓國의 通信施設은 電信을 中心으로 크게 發展되어 1976年 現在 市内電話 普及率은 100人當 3.4台, 自動化率은 81.6%에 이르고 있으며 大都市間 長距離電話가 23個都市間 自動化되었으며 市内電話를 위하여 「마이크로 웨이브」 銅軸케이블回線을 擴大하였다. 한편 國際電話에서는 第2 衛星函位地球局이 77年 完成되어 韓美, 韓日間에 半自動化는 勿論 非適性共産國과의 通信網이 擴大되어 對 外交流 및 經濟進出의 領域을 擴大하였다. 反面 北韓의 通信施設은

郵便이 증가 되고 있으며 1人當 郵便函數는 1970年에 19通에 이르고 있다. 電信 電話部門은 아직도 南韓에 비해 크게 落後된 狀態에 있으며 그나마 施設도 大部分 公用이며 個人用은 一部 特權層에 限하여 專用되고 있다.

5. 國際收支 및 貿易規模

韓國은 開發初期에 있어 資本 및 資源不足國의 立場에서 對外開放型 經濟成長政策을 채택함으로써 海外資本 및 資源을 導入하는 한편 強力한 輸出「드라이브」政策으로 外向性成長을 追求하였다. 그러나 北韓은 共產國中에서도 가장 閉鎖的인 社會로서 孤立的인 封鎖經濟體制를 유지하여 왔는데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이른바 「아우타르키」(Autarky)의 根本的 限界性 認識과 60年代의 7個年計劃의 失敗에 자극받아 6個年計劃을 수행함에 있어서 對外經濟協力の 擴大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體制自體가 가지는 欠陷으로 因한 輸出競爭力의 低位로 外債償還不履行을 招來함으로써 困境에 빠져 있는 實情이다.

韓國의 輸出總額은 經濟開發이 시작되기 이전인 1960년까지만 해도 33百萬\$에 不過했으나 1977년에는 100億\$을 초과 期間中 303倍의 놀라운 伸張勢를 보였다. 反面 北韓의 輸出은 1960年 154百萬\$로서 當時 韓國의 輸出額보다 4.7倍에 이르고 있었으나 1976年の 輸出高는 6.6億\$에 不過하여 같은해의 韓國의 77億\$의 11.7分の 1에 不過하게 되어 좋은 對照를 보이고 있다.

한편 輸入規模에 있어서도 1976年 韓國은 88億\$이었던데 反
해 北韓은 8.3億\$로서 커다란 隔差를 보이고 있다.

貿易依存度에 있어서도 韓國은 北韓을 크게 上廻하고 있다.

1961년에는 韓國이 14.8%로서 北韓의 19.2%보다 낮았으나
1976년에는 韓國은 65.7%를 기록하고 있으나 北韓은 25.7%
에 不過하다. 이와같은 貿易依存度の 격차는 韓國이 對外指向的
經濟成長을 하였음에 比하여 北韓은 對內指向的 經濟成長을 追求
하였음을 그대로 反映한다.

輸出商品의 構造에 있어서 韓國은 製造的製品이 約 90%이며
原料 및 1次產品은 10% 水準인데 比해 北韓은 製造的製品이
35%水準이며 輸入商品의 構造에 있어서는 韓國은 原
料 및 燃料 60%, 資本財 30%, 消費財 10%水準임에 比해 北韓
은 工產品의 輸入이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어 韓國은 製品輸出,
原資材 輸入型임에 比해 北韓은 原資材 輸出, 工產品輸入型으로
南北韓의 技術水準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韓國은 그간의 高度 經濟成長을 뒷받침할 原資材 및 資本
財의 導入으로 慢性的인 貿易赤字現象을 나타냈으나 輸出商品構造
의 多樣化 및 高度化 長期間에 걸친 輸出伸張率의 輸入伸張率上
廻로 1977년에는 經常收支 黒字를 示顯하는 등 이의 解消가 確
實하게 予想되고 있으며 外換保有高의 急增으로 惡性外債의 償還
과 選別的인 外資導入등 國內外換事情이 크게 好轉되고 있는 形
便이다. 한편 北韓은 70年代부터 自由圈에 對한 經濟協力과 貿

易擴大를 試圖하고 있으나 1次產品爲主의 輸出構造에 따른 輸出潛
在力의 不足과 76年 4月末 現在 都合 2,144百萬「달러」에 達하
는 外債의 償還不能으로 因한 對外信用의 추락으로 北韓의 貿易展望
및 外換事情은 어두운 實情이다.

貿易規模의 比較 < 76年 >

단위 : 百萬 \$

	韓 國			北 韓		
	輸 出 (X)	輸 入 (M)	貿易收支 (X-M)	輸 出 (X)	輸 入 (M)	貿易收支 (X-M)
70	882	1,804	-992	301	328	-27
71	1,132	2,178	-1,046	302	564	-254
72	1,676	2,250	-575	399	640	-241
73	3,271	3,387	-567	498	843	-345
74	4,515	6,452	-1,937	677	1,303	-626
75	5,003	6,674	-1,671	814	1,093	-279
76	7,815	8,405	-590	658	829	-171

第 6 章 南比韓 濟經成長의 評價

韓國은 1962年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實施한 以後 높은 經濟成長率을 示顯,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의 經濟成長의 成功的인 模型을 提示하게 되었는데 그간의 成長結果는 다음과 같이 評價되고 있다.

첫째 輸入代替産業의 育成 및 광범위한 社會間接資本의 開發 등으로 基礎産業의 基盤을 充實하였다. 이러한 基盤을 바탕으로 2次産業의 持續的인 成長과 重化學工業建設을 促進함으로써 産業構造는 현저히 改善되었으며 節期的인 輸出增大가 可能하게 되었다.

둘째 外向的經濟成長의 追求로 資本 및 資源의 貧困을 克服하였으며 國際經濟의 흐름에 積極的이며 彈力的으로 對處, 經濟成長을 追求함으로써 73年의 Oil - Shock 危機를 無難히 넘길 수 있는 體質을 갖추게 되었다. 韓國經濟는 世界의 有數한 國際經濟機構들로부터 信賴을 받기에 이르렀다.

셋째 自立經濟의 基盤을 構築하였다. 開發初期의 財政 및 投資財源面에서의 外國依存에서 벗어나 財政은 100%의 自立度를 이룩하였고, 投資財源에서도 外資導入의 選別을 期하고 있다. 나아가서 增加된 外換保有高를 바탕으로 海外直接投資 등 受援國의 位置에서 援助國의 位置로 轉換해 가고 있다. 1977년에는 解放以後 처음으로 經常収支의 黑字를 示顯하였다.

이와같이 韓國經濟는 民間企業의 創意와 政府의 保護的 經濟主導

로 輸出을 先導로 한 外向的成長을 追求 1977 年에는 輸出이 100 億\$을 超過하고 1人當 國民所得도 1,000 億\$을 바라보게 되는 大型 經制體制를 이룩하였다.

한편 北韓은 開發初期부터 自然資源의 우세 및 日帝時 遺産工場施設을 바탕으로 軍需産業爲主의 重工業優先政策을 추구하였으나 철저한 封鎖經濟體制의 脆弱點計劃經濟體制가 가지는 低生産性등으로 인한 工場施設의 落後, 技術革新에서의 蹉跌 및 開發財源의 不足등으로 屢번히 計劃達成에 失敗하게 되었다. 또한 重工業育成만을 強行함으로써 金屬, 機械 및 一部 軍需工業面에서의 發達과 輕工業, 輸送, 電力部門에서의 隘路 등 産業의 不均衡配治는 深化되었다.

以上과 같은 南北韓經濟成長의 「Pattern」 및 成果의 차이로 하여 南北韓經濟도 서로 다른 構造的 長短點을 갖게 되었다. 韓國은 彈力的積極的인 開放經濟 수행으로 GNP 및 1人當 GNP에서 北韓을 훨씬 능가, 國民生活은 현저히 向上되었으며 國際經濟協力基金을 確立하였으나 貿易의 높은 海外依存度, 原資材의 輸入依存深化 등으로 外部經濟의 影響에 敏感하게 된 點, 만성적인 「인플레이」의 持續等의 弱點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 北韓은 「아우타르키」的인 經濟政策과 重工業優先政策을 實施함으로써 낮은 海外依存度와 制限된 自給經濟의 形成 및 金屬 機械 部門에서의 發達을 期하였으나 輕工業不振으로 인한 消費生活의 貧困, 社會間接資本의 脆弱, 國際經濟協力の 不振等의 結果를 招來하였다.

第7章. 南北韓 經濟成長의 展望

韓國과 北韓 體制의 展望을 하기에 앞서 1945年 이래 兩 體制의 經濟的 成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945年 當時 國內資源中 錫광석의 90% 이상, 무연탄의 87% 이상, 유연탄의 98%, 전력 생산의 92%가 北韓에 偏在했음에도 불구하고 76年末 実績으로 석탄생산실적은 韓國이 1,640 만톤으로 北韓의 3,250 만톤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精油工業은 1,820 만톤으로 北韓의 18배, 發電施設은 481 만 KW로 北韓보다 17 만 KW나 앞서고 있으며, 특히 輕工業分野에 있어서는 화학섬유 및 합성수지에 있어 韓國은 北韓의 3배, 시멘트생산은 韓國은 1,278 만톤으로 北韓의 625 만톤의 배, 板유리는 韓國의 195 만평 방센티에 비해 北韓은 50 만평 방센티에 불과하며, T.V. 受像機와 냉장고에 있어 韓國은 輸出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北韓은 輸入 段階에 불과하다.

이러한 結果는 韓國이 生産의 初期條件이 不利했음에도 불구하고 60年代의 開發政策에 의한 社會間接資本의 擴充과 工業의 輸入代替, 70年代의 重化學工業化로 資源配分の 效率을 極大化한 반면 北韓의 경우 閉鎖的이고 硬直的인 經濟體制가 갖는 非效率性이 낳은 결과라 하겠으며 體制의 變化가 단기간에 어렵다는 점에서 長期的으로도 成長의 沮害要因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또한 北韓

은 특히 自給自足的인 經濟로서 循環體制를 추구해 왔으며 韓國은 높은 貿易依存度에 따른 對外的인 條件變化가 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1973年의 「오일·쇼크」로 인한 世界的인 不況을 겪으면서도 北韓과의 GNP規模는 훨씬 그 격차를 크게 할 만큼, 韓國 經濟가 갖는 높은 強力性を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이 앞으로 長期展望에 있어서는 중요한 變數로 作用할 것으로 보인다.

南, 北韓 GNP 成長 推移 比較

年 度	GNP (億 \$)		倍 數(A/B)
	韓 國(A)	北 韓(B)	
70	75.6	31.9	2.37
71	87.5	34.6	2.53
72	98.2	37.5	2.62
73	123.9	44.5	2.78
74	166.8	50.63	3.29
75	187.6	56.56	3.31
76	250.9	61.65	4.07

이와같이 體制가 갖는 根本的 要因외에도 앞으로도 계속 兩體制의 經濟成長에 作用할 것으로 보이는 要因들은 첫째로, 經濟의 持

統的인 成長은 技術革新과 規模의 適正化, 經營效率의 提高를 前提條件으로 하나 開發途上國에 있어 이러한 要素들은 先進經濟圈과의 經濟交流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나 北韓은 最近 약 25億\$에 달하는 對外 債務辯濟不能에 따른 對外 信用廢의 추락 등으로 더욱 經濟의 開放化가 어려울 것이며, 經濟의 開放化는 政治的 衝激을 수반하는 것인바 더욱 그 進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北韓의 政治的 基本路線이 변화하지 않는 한 GNP의 23.0%(1977年)를 차지하고 있는 軍事費의 負擔이 계속 앞으로도 資源配分을 歪曲되게 할 것이다.

셋째로, 北韓의 工業은 重化學工業의 育成에 注力해 왔으나 점차 消費財部門의 增大하는 慾求를 억제하는데 限界를 맞게 될 것인바 이 部門의 生産擴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重化學工業에의 持統的인 投資擴大에 制約을 가져올 것이며 資源配分의 破行的인 構造로 더욱 經濟運用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世界銀行의 報告書에 따르면 요는 2000年의 南北韓 總人口는 8千萬名으로 예상되며 韓國은 5300만, 北韓은 2,600만 명으로 總人口의 偏差는 더욱 深化되어 그 만큼 經濟總量의 偏差를 深化할 것으로 보인다.

經濟計劃面에서 볼때 韓國의 4次計劃의 基本目標는 社會開發의 促進과 技術革新에 의한 能率의 向上을 主要목표로 하고 있는 데 반해 北韓의 2次7個年 經濟計劃은 (1978~84年) 産業

의 現代化 科學化를 重要 目標로 들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1977
年은 輸送部門, 電力部門에 주력함으로써 經濟成長이 基本的인 隘路에 봉
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에 비추어 볼때 韓國의 60年代 開
發目標와 類似함을 볼 수 있다.

한편 韓國經濟는 1977年으로 世界輸出의 17位, 總量에 있어
1%에 이르는 등으로 최소한 80年代 中半까지는 OECD에 加入
이 예상되는 바 앞으로 이에 대비한 物價의 安定 金利의 下向 및
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等 開發途上國에서 先進圈으로 突入하는 어
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나 과거 韓國經濟가 보여준 經濟條件
變化에 대한 伸縮性은 앞으로 충분한 強力性을 가지고 目標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南·北韓의 長期展望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은 產
業의 高度化에 이룰수록 體制가 갖는 效率性과 技術의 吸收 및
開發, 所要資源의 원활한 調達에 있는 것인 바, 이러한 要素를 감
안할 때 앞서의 GNP 推移가 보여준바와 같이 점차 그 隔差를
크게 할 것이며 이에 따라 南北韓의 經濟交流의 可能性은 점차
增大할 것으로 보인다.

第 2 編 統合時의 經濟發展 促進要因과
摩擦要因

崔 九 寬

- (略歷)
- 1957. 2. 서울大学校 商科大学 卒
 - 1957. 4. 韓国商業銀行 入行
 - 1970. 11. 韓国商業銀行 企劃調査部
調査役
 - 1976. 4. ~ 現在. 韓国商業銀行 企劃調査部
次長

MEMORANDUM

TO : SAC, [illegible]

FROM : [illegible]

SUBJECT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要 約 >

1. 序 論

(1) 韓半島의 分斷은 韓國民族의 經濟發展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특히 鉍業資源과 鉍工業構造의 偏在로 인하여 經濟自立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었다.

그러나 韓國은 鉍工業의 北韓에의 偏在와 資源不足에도 불구하고 1962年부터 基幹産業, 輸出産業, 重化學工業등 段階的인 工業化를 추진하여 現段階에서도 北韓을 능가하는 工業生産國으로 飛躍하였다.

이것은 開放體制下에서 國際競爭力을 增進시켜 輸出을 擴大하고 資源을 海外에 依存하는 적절한 開發戰略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만일 南北韓이 統一된다면 韓國的인 開發方式은 北韓의 鉄鉍石을 비롯하여 石炭資源등의 開發과 利用으로 資源의 海外依存을 어느 정도 輕減시키고 工業化를 더욱 促進할 수 있을 것이다.

(3) 또한 財源面에서도 1976年 現在 北韓은 GNP의 27.2%의 막중한 軍事費와 約50萬名의 軍人力을 保有하고 있으며 韓國도 GNP의 5.3%의 軍事費와 約6萬名의 軍人力을 保有하고 있는데 統一이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財源 및 人力의 經濟的活用이 可能해질 것이므로 經濟成長의 促進要因이 될 수 있다.

(4) 그러나 韓半島가 分斷된지 이미 한 世代가 경과되었고, 그 동안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面에서 異質化 되어왔기 때문에 統一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異質性이 상당한 摩擦要因이 될

것이다.

2. 促進要因

(5) 南北韓의 地域이 單一化됨에 따라 內陸 및 海岸地域의 모든 면에서 有利한 工業立地를 선정할 수 있으며 重化學工業과 輕工業과 農業部門의 産業間均衡과 聯關效果를 높여서 全産業의 發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6) 資源의 海外依存 또는 原料輸出이 다소라도 減少되고 輸出産業과 內需産業을 다같이 發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韓國에 의한 統一, 즉 A案의 경우에 주로 해당되며 北韓의 統一, 즉 B案의 경우에는 여전히 封鎖體制를 扞할 것이므로 兩者의 차이가 클 것이다.

(7) A案의 경우에는 自然資源의 利用과 人力資源의 增大로 國際競爭力을 더욱 높여서 輸出增大와 産業發展을 促進시킬 것이나, B案에 있어서는 開放體制의 限界性이 있어 지금까지 韓國이 工業化를 추진해온 輸出産業은 오히려 위축될 것이므로 經濟發展에 制限이 있을 것이다.

(8) 農業內部에 있어서도 A案의 경우에는 北韓地域의 畝에 대한 土地生産性을 增大시켜 米穀의 增産이 이룩될 것이다. 北韓은 農業生産基盤이 韓國보다 弱하지는 않으나 品種改良과 營農方式等 質的인 要因의 制限으로 町步當生産量이 韓國의 68.7%에 불과하다.

한편 北韓의 田面積이 韓國보다 넓은데 이는 대부분 옥수수生産에 利用되고 있다. 北韓에서는 옥수수가 食糧이지만 韓國에서는 輸入옥수수를 飼料에 使用하고 있으므로 統一되면 A案의 경우 飼料供給의 增大가 可能하여 畜産이 장려될 것이며 이밖에도 特用作物의 栽培가 擴大될 것이다.

그러나 B案의 경우에는 基本的으로 全食糧을 自給하려 할 것이므로 畜産이나 特用作物등의 生産보다 穀物生産에만 利用될 것이다.

(9) 南北韓의 統一은 地域의 擴大로 輸送部門이 크게 增大될 것이다. A案의 경우에는 특히 北韓地域에 高速道路를 닦아 韓半島 全域의 1日生活圏을 形成할 것이며 通信施設도 크게 普及될 것이다.

그러나 B案에서는 旅行의 制限등으로 旅客輸送이 적기 때문에 高速道路보다 鐵道の 利用率이 높을 것이며 通信部門도 公用以外에는 開發하지 않으므로 크게 위축될 것이다.

3. 摩擦要因

(10) 南北韓은 1世代 以上을 分團된채 서로 對話와 交流가 없는 完璧한 斷絶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統一後 相當한 摩擦要因이 形成될 것이다.

東西獨은 分斷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形態로든지 서로 去來를 해왔다. 그들은 理念과 體制가 다른 두개의 獨逸을 容認하면

서 한편 民族的으로는 同一하다는 意識構造에 變化가 없다.

그러나 南北韓의 경우 그와 같은 現實受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히 北韓이 추구하는 赤化統一의 慾望에 의하여 對話와 交流가 거부되고 그로인해 民族的 同質性마저도 異質化되어 왔다.

(11) 北韓은 武力으로 政權을 掌握한다는 毛沢東式의 革命戰爭觀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南北韓을 平和共存이 아닌 敵對關係에서의 힘의 均衡에 依存시켜 왔다.

특히 文化面에 있어서도 北韓에서는 漢字使用의 完全廢止로 인하여 생기는 言語上的 不便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한글용 單語를 造出하여 대체함으로써 韓國에서는 거의 理解할 수 없는 새로운 用語를 使用하고 있다. 이는 統一後에도 상당한 混同과 摩擦要因이 될 것이다.

(12) 韓國에 있어서는 經濟發展에 있어서 政策樹立者는 勿論이나, 自由企業의 原則에 의하여 企業家와 經營者의 役割이 重要하였으나 北韓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企業運營方式은 배제되고 오직 集團主義에 의하여 中央計劃當局의 命令에 依存되고 있다. 이와 같은 經濟運用方式의 차이는 統一後에 상당한 摩擦要因이 될 것이다.

(13) 특히 開放體制下에서 國際競爭과 善意의 國際協力을 통하여 開發을 이끌어온 韓國의 立場과 獨裁政治를 유지시키기 위해 革命과 鬪爭을 조장하고 對外的으로도 相異한 體制에 대해 敵對感情을 高潮시켜온 北韓과의 차이점은 統一後의 對外戰略에 있어서도 당분간은 混亂을 이르게 할 것이다.

끝.

第 1 章 序 論

2次大戰後, 韓半島의 分斷은 韓國民族의 經濟發展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었다. 資源의 偏在와 産業構造의 歪曲 등으로 經濟自立을 阻害하였기 때문이다.

<表 1>은 分斷以前의 韓半島의 經濟構造를 나타낸 것이다. 1940年의 南北韓의 産業構造를 보면 工業部門에 있어서 肥料를 중심으로 한 化學工業은 北韓이 82.1%, 南韓이 17.9%이었고, 金屬工

<表 1> 分斷前의 鉍工業 生産構成

(單位 : %)

	工 業 (1940 年)		鉍 業 (1936 年)		
	南 韓	北 韓	南 韓	北 韓	
化 學	17.9	82.1	砂 金	29.3	70.7
金 屬	9.9	90.1	金銀鉍	27.3	72.7
電 力	8.0	92.0	鐵 鉍	0.1	99.9
窯 業	20.3	79.7	銑 鐵	0.0	100.0
紡 織	84.9	15.1	텅스텐	21.5	78.5
木 材	65.3	34.7	黑 鉛	29.0	71.0
食料品	65.1	34.9	有煉炭	0.5	99.5
印 刷	89.1	10.9	無煉炭	2.3	97.7

業은 北韓이 90.1%, 南韓은 9.9%이었으며 電力은 北韓이 92.0%,

南韓이 8.0%이었고 窯業은北韓 79.7%,南韓이 20.3%로써北韓이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輕工業部門에 있어서는 紡織工業의 경우 南韓이 84.9%,北韓이 15.1%,木材는 南韓이 65.3%,北韓이 34.9%,印刷業은 南韓이 89.1%,北韓이 10.9%로 南韓이 우세하였다.

한편 鉍産物의 生産量에 있어서 砂金은北韓이 70.7%,南韓이 29.3%,金銀鉍은北韓이 72.7%,南韓이 27.3%,鉄鉍은北韓이 99.9%,南韓이 0.1%,銑鉄은北韓이 100%,텅스텐은北韓이 78.5%,南韓이 21.5%,黒鉛은北韓이 71.0%,南韓이 29.0% 有煉炭은北韓이 99.5% 南韓이 0.5%,無煉炭은北韓이 97.7% 南韓이 2.3%로써 圧倒적으로北韓에 偏在되었었다.

이와 같은 分断以前の 鉍工業構造는 分断이 韓民族의 經濟發展에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가를 알 수 있으며, 특히 鉍業資源 및 重工業施設이北韓에 偏在되었으므로 이를 喪失한 南韓의 經濟力은 얼마나 위축되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南韓, 즉 韓國側은 위와 같은 工業構造의 脆弱性에도 불구하고 1962年부터 추진된 經濟開發 計劃의 成果로, 內需基幹産業, 輸出産業, 重化學工業등 段階的인 工業化를 추진하여 現단계에서도北韓을 능가하는 工業生産國으로 飛躍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工業化에의 成功은 開放經濟體制下에서 國際競爭力을 增進시키고 資源을 海外에 依存해온 적절한 開發戰略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만일 南北韓이 統一된다면 鉄鉍石을 비롯하여

石炭資源등이 豊富한 北韓地域의 資源開發과 利用이 可能하며 資源의 海外依存을 輕減시킴으로써 그만큼 工業化에 有利해질 것은 分明하다. 지금까지 南北韓의 地下資源分布를 推計한 것을 보면 <表 2>와 같다.

<表 2> 南北韓의 主要鉍物增減表

(單位：千噸)

	南 韓	北 韓	合 計
鐵 鉍	121,368 8.5	1,300,000 91.5	1,421,368 100.0
金	1,180 33.5	2,340 66.5	3,520 100.0
銅	11,243 40.0	16,870 60.0	28,113 100.0
銻 鉛	8,202 50.6	8,000 49.4	16,202 100.0
錳 錳	64 20.0	256 80.0	320 100.0
重 石	12,749 40.0	19,123 60.0	31,872 100.0
마그네사이트	0 0.0	6,500,000 100.0	6,500,000 100.0
石 炭 石	4,199,300 79.6	1,068,000 20.4	5,277,400 100.0
無 煉 炭	1,450,449 11.0	11,741,000 87.0	13,191,449 100.0
有 煉 炭	5,000 2.0	245,000 98.0	250,000 100.0

한편 무엇보다도 国土面積이 南韓은 98,477.48 km²이고 北韓은 122,370.38 km²로써 南北韓을 合하면 220,847.86 km²가 되어 거의 2배가 되며 農耕地는 南韓이 2,334千町步 北韓이 2,054千 町步로 南北韓을 合하면 4,401千町步로 역시 2배가 된다. 한편

畚面積은 南韓이 1,204 千町步로 65.5 %이고 北韓은 633 千町步로 34.5 %인 반면 田面積은 南韓이 1,143 千町步로 44.6 %이고 北韓 1,421 千町步로 55.4 %이어서 南韓의 米穀生産基盤이 큰 반면에 北韓은 田作物의 生産基盤이 다소 크다. 林野는 南韓이 656 萬町步로 40.7 %, 北韓은 956 萬町步로 59.3 %를 차지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地下資源은 北韓이 많은 반면에 農業資源은 南韓이 많으므로 南北韓이 統一되면 資源面에서 量的인 增加는 勿論이며 서로 補完的인 關係에서 經濟發展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76年 現在 南北韓의 人口는 南韓이 3,586 萬명이고 北韓이 1,625 萬명으로 이를 合하면 5,211 萬명이며 그만큼 人的資源이 豊富해진다. 人口는 한편으로 消費單位이기 때문에 經濟的 負擔要因이 되지만 한편으로 勞動力人口가 가장 중요한 生産要素이기 때문에 經濟成長의 潛在力이 되는 것이다. 現在 北韓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軍事動員의 負擔이 커서 勞動力 不足에 직면하고 있으며 南韓에 있어서는 持續的인 高度成長의 結果 점차 人力難에 부닥치고 있어 理由야 어떻든 南北韓이 다같이 人力不足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南北統一은 이와 같은 人力不足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특히 雙方의 軍事動員人力의 相當部門을 生産人力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그만큼 經濟成長에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財源面에 있어서도 1976年 現在 北韓은 GNP의 27.23 %나 되는 막중한 軍事費負擔을 甘受하고 있으며 南韓도 5.3 %의

軍事費를 負擔하고 있다. 이는 南北統一이 이루어지면 크게 輕減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財源을 投資率과 比較하면 北韓의 경우 總投資率이 37.5%인데 軍事費가 27.23%이므로 72.6%나 되며 南韓의 경우 投資率이 25%인데 軍事費가 5%이므로 21.2%를 차지한다. 만일 이 軍事費가 投資財源으로 動員되면 그만큼 投資率을 높여서 成長에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같은 여러 要因은 뒤에 다시 統合적으로 考察하고 各産業部門에 연결지어 具體적으로 다시 分析하겠다.

어쨌든 以上과 같이 自然資源과 人的資源 그리고 投資財源등의 모든 面에서 南北統一은 經濟發展의 促進要因이 될 것이며, 한편 國內市場이 擴大될 것이므로 需要의 側面에서도 發展指向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韓半島가 分斷된지 이미 한 世代가 경과되는 동안 政治, 經濟體制에서의 異質性이 굳어졌고 社會, 文化面에서도 異質化되어 왔기 때문에 統一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러한 異質性이 상당한 摩擦要因이 될 것으로 보인다. 韓半島가 地理적으로 分斷되었고 또한 政治的 支配가 分割이 되었더라도 그동안에 社會 文化的 接觸과 經濟的交流가 正常的인 國際交流의 정도로라도 이루어졌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異質性이 形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不幸히도 南北韓은 相異한 政治經濟體制下에서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고 國際的交流에 準하는 接觸의 기회도 없이 完璧한 斷絶이 이루어졌던 것은 커다란 悲劇이라 할 것이다.

大韓民國은 民族의 異質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相互 非政治的인 分野에 있어서의 對話와 交流를 주장하여 왔으나 北韓側에 의하여 다시 對話가 斷絶된 채 民族文化의 接觸을 저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斷絶과 南北韓이 一時에 統一될 수 있는 奇蹟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現狀態에서 兩體制中 어느 한 體制로 統一이 이루어졌다고 假定했을 때의 經濟發展을 比較하려 하므로, 그와 같은 假定下에서 經濟發展을 沮害하는 摩擦要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주로 北韓社會의 오늘날까지의 閉鎖적이고 政治優位の 支配體制의 特性이 南北韓의 統合時에 招來할 摩擦要因의 대부분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우선 北韓社會의 政治文化의 特徵을 考察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共產圈에 있어서도 政治가 모든 社會文化體系를 支配하는 점을 共通的이라 하겠으나 특히 北韓共產集團은 分斷된 民族에 있어서의 特徵과 韓半島의 赤化野慾을 위하여 民族性조차도 政治思想에 예속시키는 金日成唯一體制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다시 말하면 北韓社會는 韓國과 共通的인 民族의 特性을 말살시키고 韓國과 異質化시키기 위하여 모든 社會文化를 政治支配에 예속시켜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庶民生活의 모든 側面이 個人이나 民族的 自我를 기초로 하는 社會發展을 제거하고 오직 黨과 首領에 盲從시키는 政治的 實存만이 存在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社會發展의 힘도 黨과 首領을 중심으로 하는 政治思想에서 추구하

고 있으며 이것은 政治的인 힘 (political force) 만이 庶民들의 生活에서 實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北韓의 政治的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政治의 概念과는 다르다는 점을 또한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政治의 概念은 北韓政治學의 分野에서 정의된 바, 어떠한 「政治文化」를 갖느냐에 대해 알몬드 (G.A.Almond) 와 벌바 (S.Verba) 의 다음과 같은 說明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社會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바의 政治體制」^{註1)} 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예를 들어 韓國的 民主主義는 韓國사람들이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政治體制이다.

그렇다면 北韓的 共產主義는 北韓사람들이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바의 政治體制인가? 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北韓의 政治概念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北韓의 정치사전^{註2)}에 의하면 政治는 「일정한 階級이 社會에 대한 階級的 支配와 그를 實現하기 위한 鬭爭과 活動」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北韓住民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黨이 정의한 政治的 事業을 위하여 鬭爭하고 活動해야 하는 일밖에는 없다. 그들에게는 인식과 느낌과 생각, 즉 어떠한 政治體制에 대한 선택과 參與는 不可能하다. 이는 그들의 정치사전이 더욱 자세히 說明해주고 있다. 즉 政治事業이란 「모든 黨員과 群衆에게 黨政策과 제기된 革命課業의 政治的 目的과 의의, 그 수행방도를 알려주어 그들의 政治的 각성과 革命的 열의

를 높혀 그들을 革命과 建設에 組織動員하는 事業」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길게 說明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南北韓이 統合되면 위와 같은 北韓의 政治理念 또는 政治事業의 도구가 되어있는 北韓住民들이 A案의 경우 어떻게 正常的인 市民的 個人과 民族的 社會人으로서의 인식과, 느낌과,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이 摩擦要因이며 B案의 경우 인식과, 느낌과 생각을 갖는 南韓의 住民들을 어떻게 政治理念과 政治事業의 道具로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章을 달리하여 다시 檢討하겠다.

第 2 章 發展促進要因

1. 地理的 統合과 資源擴大

가. 鉉工業發展의 促進要因

오늘날 經濟開發은 그 目標과 方法이 어떠한 것이든 工業化過程을 통하여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否認할 수 없다. 지금까지 南北韓에 있어서도 비록 體制는 다르고 立地條件이 相異하지만 다같이 工業化過程을 外面하고 開發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韓國은 60年代以後 對內外的으로 어려운 여건을 克服하면서 基幹産業, 輸出産業, 重化學工業을 段階적으로 育成하면서 工業化를 추진하였다. 北韓에 있어서도 重工業에 중점을 둔 工業化政策을 추진한 結果, 輕工業과 農業部門의 不振등 産業間의 不均衡을 초래하였으나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 工業化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勿論 南北韓의 鉉工業開發方法에 있어서도 韓國은 企業人의 創意와 意慾을 尊重하고 先進國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여 널리 商品과 人力을 海外에 進出하는 開放體制下에서 成長하여 왔고, 北韓은 極도의 閉鎖體制下에서 中央集權的 自力更生原則에 立脚한 開發을 추구하였으므로 그 開發方法이 다르기는 하나 어쨌든 工業化를 추구하고 있는 점은 같다.

이와 같은 工業化의 戰略的 差異가 根本적으로 그 成果를 크게 左右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또 다른 論文에서 주로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어쨌든 工業化에 있어서의 立地條件은 다음 세가지로 区分할 수 있다. 첫째는 氣候, 地形, 地質等 自然的 條件과 둘째는 勞動力, 資本蓄積, 運輸通信等 社会間接資本, 金融市場等 經濟的 條件과 셋째는 国土計劃, 社会文化的 要因等 社会的 條件等을 들 수 있다.

南北韓이 統合될 경우 이 세가지 要因이 크게 變化할 것이다.

내적으로 첫째와 둘째는 工業化에 대한 促進要因으로 셋째의 要因은 그동안의 南北韓의 異質性으로 인한 摩擦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이 節에서는 우선 첫째의 要因을 分析하겠다.

특히 앞의 序論에서도 잠시 言及한 바와 같이 南北韓의 경우 近代化의 初期에 있어서 日本帝國主義의 大陸前進基地로서 鉍工業을 開發한 結果도 있지만 <表1>과 같이 解放前에 있어서의 鉍工業의 構造는 南北韓이 커다란 隔差를 이룩케 하였다. 이와 같은 異質的 立地條件下에서 南北韓은 分斷되었으므로, 南과 北은 各各 經濟的 脆弱點을 相互補完하지 못한채 獨立的인 經濟開發을 追求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南北韓이 統合된다면 自然的 立地條件이 크게 改善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充分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資源不足한 韓國의 工業立地는 原料의 對外依存과 海外輸出指向的이기 때문에 蔚山, 昌原, 要川等 臨海工業團地와 內需産業의 경우에도 國內資源依存이 적기 때문에 消費地指向的이어서 內陸工業團地는 都市를 중심으로 形成되었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自力更生의 原

則에 의해 開放體制를 극도로 制限하였으며 地下資源이 比較的 豊富하기 때문에 原料供給地를 背景으로 하였고 특히 軍需産業爲主의 工業配置計劃이 經濟性보다 軍事戰略上의 必要에 依存되었기 때문에 上間地域에 重工業을 配置하였고 南海岸이 없는 地形條件 때문에 東西經濟圈을 形成하였고, 交通上의 隘路 등에 기인되어 小規模의 輕工業은 地域的 資源調達の 原則에 立脚하여 地方分散化하였기 때문에 大規模의 利益을 享受할 수 없게 되었다.

어쨌든 韓國의 경우 地下資源의 不足으로 原料의 對外依存이 不得已한 것이나 이는 原料의 國內生産이 可能한 北韓에 비해 部分的으로나마 不利益한 要因이라 할 수 있고, 北韓의 경우 東西經濟圈으로 나뉘어진 軍需産業主의 重工業施設은 産業間의 不均衡과 非經濟的 立地選擇으로 經濟의 效率的發展을 沮害하였고, 根本적으로 輕工業發展이 不振한데다가 地域的自給自足原則에 따른 地方分散化로 大規模의 企業發展이 不可能하여 規模의 利益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非效率性은 南北韓의 統合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南北韓의 地域이 單一化됨에 따라 陸海의 兩面에서 우수한 工業立地를 選定할 수 있으며 重化學工業과 輕工業과 農業등의 産業間均衡과 聯關效果를 높여서 全産業의 發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資源의 海外依存이 다소라도 減少되고 國內市場이 擴大됨으로써 輸出産業과 內需産業이 均衡적으로 發展될 수 있으므로 相

互補完的으로 全産業의 發展을 促求할 것이다.

세째로 韓國에 의한 統一, 즉 A案의 경우 自然資源의 擴大와 人力資源의 增大로 國際競爭力을 더욱 強化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輸出增大와 産業發展을 크게 促進시킬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 의한, 즉 B案의 경우에는 開放體制에 있어서 限界性이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韓國의 工業化를 促進해온 輸出産業이 크게 萎縮될 것이며 南北韓의 資源을 統合하더라도 國際적으로는 相對적으로 資源不足國家에 속하기 때문에 自給自足の 原理에 의한 經濟發展은 커다란 制限을 받게 될 것이다.

네째로 北韓地域에 偏在된 鉍産資源은 北韓單獨으로는 工業部內에 있어서의 産業間의 不均衡과 對外指向性의 制限으로 그 開發이 크게 促進되지 못하였으나 南北韓이 統一되면 특히 A案에 있어서 보다 強力한 需要의 增大에 자극받아 한층 더 活潑히 開發될 것이다. 예를 들면 鐵鋼産業은 國內외의 鐵鋼製品의 需要에 자극받아 크게 擴大될 것이며 이에 따른 鐵鉍石需要의 膨脹으로 鐵鉍資源의 開發이 한층 더 促進될 것이다.

나. 農林水産業

韓國은 앞의 序論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北韓에 비하여 豊富한 農業資源을 保有하고 있다. 우선 總耕地面積이 韓國은 2,374千町步로서 北韓의 2,054千町步에 비하여 14.3%가 더 많으며 특히 畝面積은 韓國이 1,204千町步로써 北韓의 633町步

의 1.9 배나 되어 우리나라의 主穀인 米穀生産量은 1976年 現在 韓國이 5,215千噸으로 北韓의 1,884千噸의 2.8 배나 된다.

그동안 韓國의 農業은 60年代初에는 工業化政策에 따라 다소 浸滯되는 것 같았으나 1968년부터의 高米價政策과 農業所得增進事業으로 農家所得을 增大시켰고 70年代에는 새마을運動이 始作되면서 農林改良事業이 進行된 結果 農民所得이 都市 勤勞者所得을 앞지르게 되었다. 더욱이 全般的인 經濟成長에 따라 農業人口의 減少, 農業勞動力의 不足과 機械化, 所得向上에 따른 營農의 多角化 등이 農業構造를 급속히 變化시키고 있다. 北韓에 있어서의 農業生産은 農業集團化 과정을 거쳐서 現在에는 協同農場을 주축으로 하는 農業經營體制로 運營되고 있다. 協同農場은 全耕地面積의 88%를 占하고 있으며 農業生産額의 80%가 여기에서 生産된다.

協同農場의 作業體系는 管理委員會 밑에 作業班이 있고 그 밑에 分組와 作業員이 있다. 1956년부터 생긴 分組都給制는 不振한 生産実績을 만회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一種의 勞動搾取的인 請負制度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勞動力強化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北韓의 米穀生産量은 1976年 現在 633千町步의 畝에서 1,884千噸을 生産하였으며 이는 韓國의 경우 1,204千町步의 畝에서 5,215千噸을 生産하여 1町步당 4,331kg을 生産한 것에 비하면 68.7%에 불과하여 土地生産性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따라서 만일 南北韓이 統合되면 A案의 경우 北韓의 畝에 대한

町歩当生産量を 向上시켜 米穀生産을 현저하게 増大시킬 것으로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土地不足한 우리는 現在이던 統一以後이던 土地生産性的의 向上에 注力해야 할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 土地生産性은 1962 年에 비해 1970 年까지 土地生産性이 2.6 倍나 増加되었고 70 年代에는 다시 1975 年까지의 5 年동안에 3.8 倍의 높은 向上을 實現시켰으며 勞働生産性도 1962 ~ 70 年에 4.0 倍, 1970 ~ 75 年에 4.4 倍나 크게 向上시켰다. 그리하여 1962 ~ 75 年の 全期間에는 土地生産性은 9.8 倍, 勞働生産性은 17.5 倍나 向上시켰다.

이와 같은 韓國式營農方式이 北韓의 協同農場을 위주로 한 勞働強要를 위한 分組都給制보다 월등히 効率的이므로 南北韓統一後에는 A 案과 B 案의 커다란 生産性隔差가 계속 存在할 것 같다.

특히 北韓에는 田面積이 많은데 이의 상당수를 옥수수를 재배하여 全穀物生産량의 47.3 %나 차지하고 있어 穀物중 가장 生産量이 많고 主穀이 되고 있으나 南北韓이 統一되면 A 案의 경우에는 田面積은 주로 經濟性이 높은 特用作物과 經濟作物등 多角的으로 利用되고 옥수수를 飼料로 하는 畜産業도 크게 増加될 수 있다.

北韓은 現在 옥수수가 主穀이 되고 있으나 南韓에서는 옥수수는 穀物の 0.7 %밖에 生産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飼料用 옥수수를 海外輸出에 依存하고 있다.

林業資源의 基盤인 林野面積은 北韓이 956 萬町歩로써 韓國의 656 萬町歩보다 45.7 %가 더 많다. 北韓의 林野面積의 比率은 北韓全地域의 77.5 %로써 韓國의 66.5 %보다 높다. 그러나 北

韓에 있어서는 64년에 林業總局을 各道에 新設하여 造林과 木材 生産에 注力하였으나 67年을 고비로 해서 造林面積은 每年 減少 되어 왔고 특히 71年以後에는 더욱 減少率이 커진 것 같다.

韓國은 70年代에 들어와서 治山綠化 10 個年計劃을 樹立하여 造林事業을 추진한 결과 당초 計劃이 117%를 達成하였으며 특히 經濟樹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民間의 自力造林이 增加하여 그 比率이 全体造林의 36.8%에 이를만큼 成果가 커지고 있다.

南北韓이 統一되면 林産資源을 보다 効果있게 開發하고 林産物生産 및 輸出을 加一層 增大시킬 수 있을 것이다.

水産業은 南北韓이 統一되면 다른 부문보다도 상대적으로 그 發展이 더 促進될 것이다.

現在에도 韓國의 水産業은 그동안 급격히 成長하여 世界的으로 上位圈에 浮上하였다. 특히 韓國은 우수한 勞動力과 水産物輸出의 높은 稼動率등에 기인되어 遠洋漁業이 크게 伸張됨으로써 1974年에는 生産量이 世界 第8位, 輸出은 第5位를 記錄하였으며 最近 各國의 200海里宣布에 기인되어 많은 制動이 걸려졌으나 國際漁業協力의 擴大등으로 꾸준히 遠洋漁業을 開拓해 나갈 것이다.

南北韓이 統一되면 특히 近海漁業에 많은 發展이 기대될 것이다.

다. 社会間接資本

北韓에서는 모든 生産手段, 즉 모든 企業이 社会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社会間接資本이라는 用語를 따로 使用하지 않는다. 그러나 電力, 輸送등과 같이 그 投資效果가 1個의 生産單位에 국한되지 않고 全体의 国民經濟에 影響을 주는 것은 間接資本이므로 直接投資와 区分하여야 할 것이다.

허쉬만 (A.O.Hirschman)은 社会間接資本을 直接生産活動 (Direct productive activities)과 区分하였다. 註 3) 社会間接資本은 1個의 生産企業에 投資되는 直接投資와 달리 모든 生産活動에 共通으로 수요되는 間接資本인 것이다. 만일 社会間接資本이 없으면 生産工場은 直接投資의 일부로 이를 承擔해야 하며 이는 막대한 生産費의 負擔을 초래케 할 것이다. 예컨대 電力이 없으면 自家發展을 하거나 道路가 없으면 私設道路를 補充해야 하는데 이는 엄청난 生産費의 負擔이 될 것이다.

北韓經濟에 있어서 모든 企業이 國家所有라고 해도 역시 間接生産手段과 直接生産手段은 区分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는 항상 直接投資를 生産的投資로써 우대하였기 때문에 社会間接資本의 投資는 同한히 해왔다. 社会主義社会에서는 社会間接資本의 投資가 막대한 費用이 投入되는데 비해 直接的生産만큼의 社会的效用을 낼 수 없다고 해서 종종 問題삼고 있으며 註 4), 北韓의 경우도 例外가 아니었다.

1970年의 北韓에 있어서의 社会間接資本의 投資는 7.5億달러로 韓國의 73.5億달러에 비하여 10.2%밖에 안되며, 總投資에 대한 相對的比率은 韓國이 37.5%에 비하여 北韓은 27.7%로써 훨씬

低率이며 GNP에 대한 投資比率도 韓國의 10.5%에 비해 北韓은 8.3%로써 2.2%포인트가 적다.

資本主義經濟에서는 産業發展을 위하여 企業의 外部經濟(external economy)를 直接投資보다 先行하여 直接費用을 節減시켜 投資環境을 조성하는 것이 開發計劃에서 重要な 비중을 차지한다. 韓國도 1962年 第1次 5個年計劃에 着手하였을 때부터 社会間接資本의 形成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로써 工業化와 成長与件을 造成하였던 것이다.

1976年 現在 南北韓의 社会間接資本을 比較하면 發電施設은 韓國의 481萬kw에 비해 北韓은 454萬kw로 큰 차이가 없으나 앞으로 韓國은 原子力 發展을 비롯하여 電源開發이 크게 增大될 것이나 北韓은 에너지源이 多樣하지 못하여 크게 制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鐵道延長은 75年 現在 韓國이 5,664kw이고 北韓은 4,554kw이어서 韓國에 비하면 80%정도의 水準이다. 北韓은 輸送의 대부분이 鐵道에 依存하고 있으나 鐵道延長이 韓國보다 적다.

특히 75年 現在 韓國은 1,142kw의 高速道路가 開設되었으나 北韓은 不過 100kw의 高速化道路가 있을 뿐이다. 港灣의 後能力은 76年 現在 韓國이 5,600萬噸인데 北韓은 2千萬噸에 불과하며 특히 通信部門은 현저한 차이가 發生한다.

南北韓이 統一되면 韓半島의 地理的与件과 地形등에 의해 鐵道道路, 海運등이 모두 크게 增大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韓國이 統一할 경우 年産地域에 高速道路를 開設하며 韓半島 全域이 一

日生活圈이 되게 하고 開放體制下에서 늘어나는 輸出物量에 따라 北韓地域의 港灣施設을 大幅 補充할 것이며 通信施設도 크게 補充될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 의한 統一이라는 假定에서는 封鎖體制下에서 輸送施設에의 投資는 直接投資에 비해 우선하지 못할 것이며 특히 通信施設은 社會主義體制가 갖는 統制體制로 인해 그 發展이 크게 제약될 것이다.

2. 對立의 止揚과 經濟投資

가. 投資財源의 增加

南北韓은 分斷狀態에서 막대한 軍事費를 負擔하고 있다. 北韓에 있어서는 分斷以來 지금까지 赤化統一의 野慾을 버리지 않고 經濟建設에 앞서 軍事力 強化에 總力을 기울여왔으며 韓國에 있어서는 北僞의 戰爭挑發을 未然에 防止하고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하여 國家安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에 있어서의 國家安保는 戰鬥力을 위주로 하는 直接的인 軍費力強化보다도 經濟力을 包含한 國家의 總力量을 增大시키는 데에 包括的인 努力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經濟發展을 犧牲시키면서 軍事力爲主의 投資를 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經濟建設 그 자체에 있어서도 軍需産業을 위주로 하여왔고 直接的인 軍事費支出比率도 韓國보다 월등히 높다. 1976年 現在 南北韓의 軍事力은 다음과

같다. 註 5) 조사전문가의 論評에 의하면 北僞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重武裝된 國家"라고 評價된다. 註 6) 고 하였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으나, 그중에 하나는 GNP에 대한 軍事力의 比重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뜻도 包含시킬 수 있을 것이다.

<表 3 > 韓國과 北韓의 軍事力

- 1976年 -

	韓 国	北 韓
總 計 (A)	595,000	495,000
陸 軍	520,000	430,000
空 軍	30,000	45,000
海 軍	25,000	20,000
海兵隊	20,000	
人 口 (B)	34,610,000	16,280,000
A / B (%)	1.7	3.0
航空機	304	600
艦 隊	16	26

한편 北韓의 1976年の 軍事費支出總額은 3,981 百萬北韓 원으로 弗貨로 換算하면 1,314 百萬弗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GNP에 대한 比率이 27.2%에 해당된다. 이는 같은 해의 固定換算率 24.5%보다도 높은 比率이다.

韓國의 國防費는 1976年 現在 GNP 250.9 億弗의 5.3%에

해당하는 15.1億弗의 軍事費를 負擔하고 있으며 같은 해의 換算率 25%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의 比率이다.

南北韓의 軍事費를 合하면 26.4億弗이 되며 이는 南北韓의 GNP 312.6億弗에 비하면 8.4%의 比率이다. 만일 統一後에는 南北韓의 對立이 止揚되므로 對外慘勢에 따른 防衛力을 유지하기 위하여 軍事費를 負擔하면 되므로 이보다는 低率이 될 것이다. 現在 公式的으로 集計할 수는 없으나 日本의 軍事費負擔은 GNP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만일 統一後에 軍事費負擔率을 GNP의 3% 정도로 減縮할 수 있다면 적어도 5%以上の 財源을 投資財源으로 活用할 수 있을 것이다.

1976年 現在 韓國의 投資額은 25%이므로 62.7億弗로 換算할 수 있으며 北韓의 投資額은 11.8億달러로 推算되므로 南北韓의 總投資率은 23.8%가 되는데 만일 軍事費節減分 5%가 投資된다면 28.8%로 增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韓國의 限界資本係數가 2.6이고 北韓은 2.9에 이르고 있으나 韓國의 投資 및 GNP比率이 더욱 크므로 이를 加重平均하여 2.7 정도로 본다면 5%의 投資增加分은 1.9%포인트만큼 成長을 增加시킬 수 있을 것이다.

現在 우리는 分断狀態下에서도 南北韓의 無制限軍備競争이 止揚될 수 있는 方案들이 여러 次元에서 계속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崔昌潤氏의 論文에 의하면 1970年代 後期와 80年代 初期의 期間에 南北韓軍事費는 勿論 關聯強大國들에 의해 激減한

對策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韓半島에서의 軍備競争은 東아시아의 緊張을 고조시키고 戰爭의 危險을 增加시키는 가장 심각한 要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軍備競争을 繼續하는 어느 한쪽이 지나친 負擔으로 經濟破綻에 직면하거나 資源의 고갈로 이 이상 더 自國의 軍備를 강화할 能力이 없는 極限點에 도달하면 차라리 相對方을 先制공격하려는 충동이 일어날 可能性이 있다. 北韓의 경우 그동안의 過중한 軍備強化로 그들의 經濟가 크게 困難을 겪고 있으며 막대한 外貨에 대한 償還能力이 없어 시달리고 있는데 반하여 韓國과의 經濟成長의 隔差로 인한 초조와 不安은 위와 같은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韓國에 있어서도 北韓과의 無制限軍備競争은 우리의 當面問題인 經濟建設과 國力의 總和에 있어 어느 一部門의 犧牲으로 能力의 分散이 이루어질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韓國에 있어서도 現實적으로 軍備強化가 주는 經濟的 負擔을 전혀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統一을 假定했을 때 南北韓의 軍備競争의 止揚으로 인한 經濟成長에의 寄与度는 사실상 앞에서 제시한 軍備 予算 등의 數字例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며 이점은 統一後의 經濟的 般与件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 産業의 再編成과 人力活用

北韓은 軍需産業 爲主의 産業編成을 일찍부터 實施하였으므로

로 한마디로 말해서 北韓經濟는 軍需産業經濟라고 말할 수 있다.

1966年10月 金日成은 勞動黨代表者會議에서의 演說가운데 現代戰의 成敗는 戰爭遂行에 必要한 人的, 物的 資源의 長期保障与否에서 決定된다고 말함으로써 全體의 經濟體制를 戰時體制에 準하는 軍需産業體制로 運營하고 있다.

北韓은 이미 1960年代의 7個年計劃에 있어서도 軍需産業에 99億원 一般分野에는 88億원을 投資함으로써 軍需産業에 나머지 全産業보다 더 큰 金額을 投入하였다. 이와 같은 軍需産業偏重의 投資는 一般産業의 發展을 犧牲시키고 産業間의 發展의 不均衡을 초래함으로써 成長力에 限界性을 나타내게 한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는 그동안 美國의 軍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1970年代에 와서는 無償軍援이 격감되고 그대신 68년부터 始作된 有償軍援이 增加되고 있으나 1976年 現在 國內調達에 비하여 無償軍援은 0.14%, 有償軍援은 8.06%에 불과하여 앞으로의 軍事費는 韓國이 거의 自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軍事費의 自担과 더불어 軍需産業에의 投資도 增加되지 않을 수 없으며 韓國의 防衛産業은 4次5個年計劃의 중점부門인 重化學工業의 育성과 더불어 계속 發展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南北韓의 統一이 이루어지면 北韓은 말할 것 없으며, 韓國에 있어서도 産業構造를 再編成하여 經濟成長을 增進시키는데

<表 4> 韓國의 國防費構成

(單位：百萬弗)

	國內調達 (A)	無償援助 (B)	有償援助 (C)	$\frac{B}{A}$	$\frac{C}{A}$
51 ~ 60 平均	NA	125.1	—	NA	
61 ~ 70 平均	181.1	297.3	0.4	164.2	0.2
71 ~ 75 平均	898.6	234.7	64.2	26.1	7.1
1976 年	1,510.0	62.6	126.0	4.2	8.3
1977 年	1,890.0	2.6	152.4	0.14	8.06

資料： U.S.Overseas Loans and Grants: Special Report

Prepared for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Cited from Emile Benoit, Foreign Military Sales and

Military Assistance Facts, 1975 및 U.S.Overseas

Loans and Grants and Assistance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July.1, 1945 ~ Sept.30, 1977.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統一後에는 南北韓의 軍人力을 經濟活動에 投入함으로써 成長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976年 現在 韓國의 軍人力은 395천명인데 이는 經濟人口의 5.1%이며 北韓은 495천명으로 9.3%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北韓은 4大軍事路線의 첫째 項目인 全人民의 武裝化의 原則에 따라 勞動赤衛隊, 붉은 青年近衛隊, 人民警備隊, 民間反航空機構와 學生軍事訓練등을 實施하고 있으며 韓國은 予備軍과 民防衛機構등의 組織이 있다. 이들은 直接 또는 間接으로 軍事訓練에 動員되고 있는데 統一後에는 그러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第3章 統一後의 摩擦要因

1. 摩擦要因의 根源

앞에서도 잠시 지적하였거니와 南北韓은 分離後 이미 한 世代가 지났다. 같은 政治·經濟體制下에서의 단순한 領土의 分斷 이라면 南北韓은 같은 民族이기 때문에 異質的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南北韓은 相異한 政治經濟體制에 의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으며 그동안 1世代以上을 거의 完璧하게 分斷된 채 서로 對話와 交流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異質性이 형성 되었다.

같은 分斷國이지만 東西獨은 分斷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形式으로든지 서로 去來를 해왔다. 그들은 理念과 體制가 다른 두 獨逸이지만 한 民族이라는 의식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는 東獨에 있는 몇몇의 共產極列分子를 제외하고는 다른 多數의 東獨人들 에게도 例外가 아니다.

독일민족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30년 이상 分斷되어온 것이 時間的으로는 오랜 歲月임을 잘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 現在의 國際 政治狀況에서는 그것이 어쩔수 없는 것이요 결코 오랜 歲月도 아 남을 잘 인식하고 있다. 요컨대 그들은 民族的意識을 보존한채 分斷된 現實을 인내하면서 두개의 獨逸國家를 현실적으로 受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경우도 全體國家 全體民族의 의식이

旧世代보다 新世代에는 弱化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7)

그러나 西獨의 国民들은 젊은 世代이건 旧世代이건 아데나워가 표방했던 「平和와 自由속에서의 統一」(Wiedervereinigung in Frieden und Freiheit)의 의식이 깊숙히 담겨져 있으며, 이는 두 개의 國家와 하나의 民族을 並存시켜나가는 現實的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南北韓에 있어서는 그와같은 現實受容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는 北韓에 의한 對話와 交流의 拒否와 赤化野慾에 기인되고 있다. 그들은 北韓地域에 우리의 歷史上 경험하지 못한 外來文化的特性을 갖는 共產主義理念과 計劃經濟體制를 도입하고 이를 南韓에 대해서도 적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對話와 交流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의 民族과 두개의 國家라는 分斷國의 어쩔 수 없는 現實을 受容하려 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社會에는 生産手段과 土地의 私的所有를 否認하고 모든 個人의 生活도 黨과 首領의 命令에 의해 희생되는 社會交化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 이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社會文化的特色으로서 脚色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地域에 있어서는 한 民族의 傳統文化를 순수하게 保全하지 않고 共產主義의 理念에 의해 彩色된 異質的인 文化體系가 形成되고 그 밑에서 成長한 젊은 世代는 韓國社會가 갖는 民族文化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北韓은 本質的으로 民族의 傳統性보다도 共產主義이데오로기를 중
요시하며, 따라서 韓國에 대해 平和的인 對話와 文流를 기본적
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들은 한民族과 두개의 國家의 實存을 인
식하려들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발
견할 수 있다.

첫째는 武力으로 政權을 掌取한다는 毛沢東式의 革命戰爭觀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南北韓의 平和共存이 아닌 敵對關係에서의 共
存밖에 기대할 수 없다.

오늘날의 休戰은 항구적인 平和定着이 아닌 一時的인 戰爭의 休
息에 불과하며 이는 오직 힘의 均衡에 의해서 存在하고 있을 뿐
이다. 따라서 힘의 均衡이 깨어지면 언제든지 北韓은 全面戰爭을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北韓社會는 우리 民族의 傳統文化로 부터 離脱하여 異質
化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만일 統一이 된다해도 당분간은 마
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아야 하겠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의 文化的인 異質性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어
린 아이들은 일찍부터 政治理念과 접촉해야 한다. 幼兒期의 子女
養育은 주로 託兒所나 幼稚園등 전문적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
으므로 幼兒期의 子女들은 이때부터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家庭과
우리 民族의 傳統的인 忠孝의 思想등을 떠나서 共產主義理念과 北

韓의 黨과 首領에 대한 唯一思想에 지배되고 있다. 그들은 家庭 또는 家族主義는 儒教的傳統의 殘滓로 보아 이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였다. 물론 그들도 統治手段의 하나로 孝를 강조하고 그때문에 金日成을 어버이로 표현하여 孝의 對象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은 孝를 우리 民族의 美風良俗이라고 규정하여 한편으로 儒敎思想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孝를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나 결국 父母와 子息의 關係로 만일 父母가 黨이나 首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反社會的인 人物로 낙인이 찍히면 子息들은 共開席上에서 父母를 여지없이 비판하고 공격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共產主義의 이데오로기에 의하여 異質化된 北韓의 新世代는 統一後에 있어서 그들의 歪曲된 理念을 바로잡기까지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2. 自由化에의 摩擦

北韓社會는 지금까지 閉鎖的으로 異質性을 강요해왔기 때문에 自由主義에 의한 統一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에 適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하였던 것은 단순하고 機械的이며 動物的인 것이었으나 自由主義社會가 요구하는 多樣性과 人間性과 創意性을 갖추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것은 지금까지 南派된 間諜들의 경우 그들이 韓國社會의 發展相

을 눈으로 보고, 그동안 그들이 듣고 배운것이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게 눈앞에 實現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轉向이 어려운 것을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現狀은 間諜들에게 人質과 같이 北韓에 남겨 둔 家族 등의 心理的負擔이 큰 이유가 되기도 하며 本質的으로는 韓國의 自由主義社會에 同調할 潛在力을 갖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北韓住民이 自由化의 경우 적극적인 의미의 要인은 아니더라도 統制와 抑壓된 社會로 부터 創意와 競爭의 社會로 전환될 때의 適應力이 不足하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要인이 될 것이다.

그들, 특히 新世代의 北韓共產主義에서 자라난 階層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교육받아 왔으며 경험한 北韓的인 統制的集團 以外에는 알지 못하며 따라서 自由主義에 대한 否定的反應과 특히 競爭原理에의 適應이 不足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北韓에서 出生한 新世代는 幼兒期때부터 集團主義의 교육을 받아왔다. 出生한 初期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託兒所와 幼稚園에서 보냈으며 이들이 배우고 경험한 것은 集團主義思想이며 金日成의 唯一思想인 것이다.

集團主義教育은 全體를 위한 個人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조한다. 黨과 社會를 위하여 個人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여야 하며, 集團的인 勞動은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鬪爭」으로써 중요한 比重

을 차지한다. 이들이 한국적인 利益原理에 바탕을 둔 企業活動과 競争原理에 바탕을 둔 個個人的 創意的活動에 접하게 될 때, 처음에는 당황해서 拒否反應을 일으키고, 얼마뒤에는 그들의 適應力 부족에 기인한 劣等意識이 個人主義에 대한 拒否反應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같은 1차 또는 2차의 拒否的 要因에 불구하고 그들이 만일 個人的 自由와 全體를 調和시킨 自由主義體制를 경험하게 될때에 그들은 오히려 열광적으로 이를 환영하게 될 可能性이 있다. 참으로 人間다운 生活은 모든 個人的 全體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과 階級鬭爭에 있는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으로 설사 그들이 自由主義體制를 환영하고 韓國的인 競争原理의 社會文化를 肯定的으로 받아드리게 되더라도 마지막의 어려운 장벽이 남는다. 그것은 지금까지 北韓에서 보고 배운것은 韓國的인 社會에 비해 孤立的이었기 때문에 韓國 또는 國際社會에 적응 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들면 北韓社會에서의 教育制度는 역시 社會主義的인 人間의 形成을 목표로 하였고 이에 따라 어떤 個人이나 家庭의 요구에 의하여 高等教育의 機會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北韓의 新世代는 누구나 4년간의 初等教育과 5년간의 中等教育을 마치게 되나 그 이상의 高等教育은 個人的 요구나 家庭의 經濟的形便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中央政權의 계획에 맞추어 선발받은 者에게만 주어진다. 따라서 高等教育 및 그 이상의 專門教育은 國家

가 決定한다.

오늘날 北韓의 技能工, 技術者, 科學者들은 社會主義建設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中央政府가 一方的으로 배치하며, 個人的 意思 또는 人權은 무시되고 全體의 한 부분으로서의 役割만이 강조된다.

그들에게는 高等教育의 機會를 自意로 決定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職業의 選擇도 個人이나 父母 또는 家族도 이에 干與할 수 없으며 오직 國家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言語教育의 문제점이다. 北韓에서는 漢字의 使用이 완전히 금지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가지의 言語上의 不便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에 漢字使用時에 있었던 單語들을 韓字用語로서의 새로운 單語로 대체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單語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統一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이와같은 言語의 差異에서 오는 混亂이 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의 科學技術은 어떤 方法으로 교육이 되었던 統一後에는 우리와 같이 利用할 수 있으나 그들에게는 企業經營 및 經濟學에 있어서 우리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經濟發展에 活用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經濟成長에 적지 않은 阻礙요인이 될 것이다.

3. 共産化에의 摩擽

우리는 그와같은 假定을 할 수도 없겠으나 만에 하나라도 北韓이 韓半島를 統一하였다고 할 때에는 共産化에 대한 摩擽要因은 너무나 클 것이며 이는 經濟社會의 발전에 적지않은 支障을 초래케 할 것이다.

大韓民國의 國民들은 全世界에서 가장 강력하게 反共思想으로 武裝되어 있으며 더우기 韓國民은 北韓人口보다 1976 년현재 22배나 되는 많은 人口를 北韓社會와 同化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韓國은 經濟面에 있어서도 1960년대부터의 高度成長으로 1人當 GNP가 1천달러에 이르고 있을뿐 아니라 北韓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韓國國民들은 앞으로 1990년대에 1人當 GNP가 7천달러 이상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같이 經濟成長에 成功하고 장래에의 희망이 어느 나라보다 큰 韓國國民에게는 共産化에의 저항이 가장 클 수 밖에 없다. 로스토우(W. W. Rostow)가 지적하였듯이 오늘날 資本主義化에 成功한 先進工業國에게는 共産化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共産主義는 資本主義化에 실패한 後進國에게 감염되기 쉬운 過渡期的疾病(a disease of transition)에 속하는 것이다. 世界의 歷史的經驗에 있어서도 러시아 革命이나 中共, 北韓, 東歐圈등의 모든 共産圈이 資本主義를 거쳐서 共産化되지 않고 資本主義를 경험하지 못하고 共産化된 것이다. 越南의 경우에도 그들이 資本主義를 성공시키지 못했고 民主的力暈

이 없었기 때문에 共産化를 당한 것이다.

韓國國民들은 그동안 15년 동안에 年10%의 高度成長을 實現시켰고 輸出은 10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으며 開放體制下에서 經濟成長을 成功시켰다. 이러한 韓國國民들이 集團主義적이고 閉鎖적인 共産社會에서의 轉換을 受容할 暇가 없다. 그러므로 共産化의 假定은 韓國國民에게는 容納될 수 없는 假定이며, 그 主要인인은 이 이상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해방 당시의 南北韓이 分斷될 때만 해도 北韓社會에 일부 地主階級은 있었으나 오늘날 工業化된 韓國社會에서 볼 수 있는 企業家, 經營者 등이 없었다. 韓國經濟의 高度成長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이들 企業家, 經營者와 政策樹立者들의 모든 階層은 해방 당시의 地主階層과 비교할 수 없다. 당시에 도 北韓社會의 共産化를 受容할 수 없어서 대부분의 地主階層과 上位層의 人士들이 韓國으로 越南하였는데, 하물며 오늘날 高度化된 産業社會에서 主導的役割을 해 온 모든 사람들에게 集團主義와 共産主義를 이식시키는 것은 도저히 不可能하다.

韓國國民들의 思想的側面에 있어서는 이들 이외에도 農民이나 勤勞者등, 이른바 共産主義者들이 革命의 主人公으로 생각하는 階層에 있어서도 共産主義를 혐오하고 있으며 集團主義와 計劃統制보다는 創意와 自意에 의한 努力을 바라고 있다. 70년대 이후 農村과 工場勤勞者들을 支配하고 있는 새마을精神은 그 根本이

自主, 自立, 協同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自主精神과 自立精神과 協同精神은 全體를 위해 個人을 희생시키고 全體라는 명목으로 모든 國民을 支配하는 中央集權體制에 적용될 수 없는 集團이다, 그러므로 韓國의 모든 國民은 共產化에 適應할 수 있는 集團은 없다고 보겠다.

韓國國民의 精神的側面에서 도저히 共產主義와 융합될 수 없는 또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共產主義와 唯物主義思想이다. 韓國社會는 信仰의 自由가 완전히 보장되어있고 基督教, 天道教, 仏教, 儒教 등의 여러 宗教가 자유롭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活動하고 있다. 이들 宗教集團은 共產主義의 唯物主義와 융합될 수 없는 가장 強力한 集團이다.

日本帝國主義에 抗拒했던 3·1運動도 基督教과 天道教들이 주동이 되었다. 이는 民族意識의 마찰에도 기인되나 또하나看過될 수 없는 것은 唯一神 宗教인 基督教徒들에게 1個 日本國民의 民族精神에 입각한 迷信的 宗教인 神社參拜를 강요하였기 때문에 생긴 信仰上의 마찰이 큰 요인이 되었던 점이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마찰요인은 共產化의 경우 共產主義의 支配者들이 韓國社會를 지도해온 모든 政治的 指導級 人士와 企業人, 經營者등과, 나아가서는 韓國社會에서 成長한 모든 創意的이고 力量 있는 韓國國民을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들 수있다. 共產社會에서는 일반적으로 政治指導體制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그들의 權力關係에서

序列이 정해지고 한 指導者가 權力을 장악할 때까지 權力鬭爭이 계속된다. 이와같은 權力鬭爭에 의한 序列 (ranking order) 이 결정되는 共產主義社會에서의 統一은 韓國社會에서 成長한 모든 人士들을 容認할 수 없을 것이며, 과거에 北韓社會에서도 金日成은 그의 唯一體制를 確立하기 위하여 피의 숙청을 거듭해왔던 사실에 비추어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北韓이 韓半島를 支配하게 되면 여러차례에 걸친 숙청과 그로 인한 수많은 희생과 혼란이 따를 것이다.

더우기 全體主義의 獨裁政權은 항상 個人을 獨裁的으로 支配하며 個人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 鬭爭目標을 설정해야 하며 끝없는 敵對感情을 조성해야 한다. 分斷時에는 韓國을 敵對視하였듯이 統一後에는 隣接國家 또는 資本主義의 主導國家를 敵對視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美帝國主義」 또는 「日本軍國主義」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를 統一後의 새로운 鬭爭目標로 삼게 되며 그것은 住民들에게 全體主義에의 희생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와같은 全體主義의 維持를 위한 敵對意識은 統一後의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孤立化와 内部的인 葛藤을 지속시키게 되며 經濟發展의 主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이 研究는 보다 長期的으로 繼續하면 좀더 有益한 資料로 發展되리라고 믿으나, 그동안 時日과 研究人員의 不足으로 充分히 滿足스러운 資料로 完成시키지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끝 .



第3編 統合時 經濟成長 豫測을 為한
理論 및 方法論의 檢討

朴 宇 熙

- (略歷)
1958. 서울대학교 商科大學 卒
- 1967~1972. 서울대학교 商科大學 貿易學科
助教授 兼 學科長
1968. 英國 만체스타 大學校 大學院 修了
(經濟學碩士)
- 1969~1974. 英國 위릭大學校, 서울대학교
大學院 修了(經濟學 博士)
- 1972~1975. 서울대학교 商科大學 副教授
1975. 英國 옥스포드 大學校 臨時 副教授
- 1976~1977. 서울대학교 社會科學大學
貿易學科 副教授 兼 學科長
- 1978~現在. 서울대학교 教授

1. 凡在本校工作的教师，均须遵守本规定。

2. 教师应按时上下班，不得无故迟到早退。

3. 教师应认真备课，提高教学质量。

4. 教师应关心学生，严格要求，循循善诱。

5. 教师应遵守职业道德，为人师表。

6. 教师应积极参加教研活动，不断提高业务水平。

〈 要 約 〉

南北韓이 統一되면 經濟的으로 어떻게 變貌할지는 누구도 正確히 予測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予測作業에는 많은 假定과 單純化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統一方法과 統一過程上의 諸問題點, 異質体制의 統合에 따르는 여러 摩擦現象과 非經濟的 要因을 모두 捨像하여야 할 것이다. 周辺條件은 모두 不變이거나 線形으로 變化할 것이고 오직 經濟的 主要變數만 調整된다는 單純化 假定이 앞서야 할 것이다.

南北韓의 經濟統合은 經濟統合理論에 있어 가장 極端的인 形態의 經濟統合과 關聯되고 있다. 經濟統合의 形態에는 自由貿易地域, 關稅同盟, 共同市場과 經濟統合등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마지막의 經濟統合에서도 政治, 社會, 文化의 統合을 包含하는 전반적인 統一體形成을 의미하므로 가장 정도 높은 形態의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經濟統合理論의 歷史를 보면, 로마帝國에서 英, 仏植民地를 거쳐 現在의 EEC에 이르기까지 論議가 많이 되어왔고 지금도 發展되고 있는 學問分野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形態의 相異, 時代의 差異에도 불구하고 經濟統合理論의 核心은 모두 비슷하며 단지 그대 그때의 經濟的 條件과 特性에 따라 論議의 重點만 달리 取扱되어 왔을 뿐이었다.

本稿에서는 가장 極端的인 經濟統合을 想定하고 이와 關聯된 諸

理論을 整理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南北韓이 經濟적으로 統合되는 경우, 이를 理論적으로 分析, 予測하기 위하여, 편의상 다음과 같이 分類하여 論議를 전개하였다.

(1) 靜態的 側面

(가) 商品移動으로 인한 生産效果

(나) 商品移動으로 인한 消費, 厚生效果

(다) 生産要素의 移動으로 인한 效果

(2) 動態的 側面

(가) 市場規模와 經濟成長

(나) 規模經濟의 效果

(다) 外部經濟의 效果

(라) 其他 動態的 效果

統合의 靜態的 效果에서는 먼저 貿易創出과 貿易逆流效果에 言及하였으며, 특히 經濟統合이 生産效率에 미치는 可能的 影響들을 決定짓는 各經濟의 補完性和 競争性, 生産費의 差異, 關稅同盟의 크기, 近接性和 輸送費 등을 주로 論하였다.

生産要素移動 效果는 우리 論議에 重要하므로 詳述하였으며 Cobb-Douglas 函數를 使用하여 分析하는 方法을 제시하였다. 勞動移動의 效果에도 言及하였다.

經濟統合의 경우는 靜態的인 效果보다 動態的 效果가 더욱 重要하므로 이상의 論議보다 이의 分析方法에 더 많은 量을 할애하였다.

특히 市場規模와 經濟成長間의 相關關係는 많은 學者가 研究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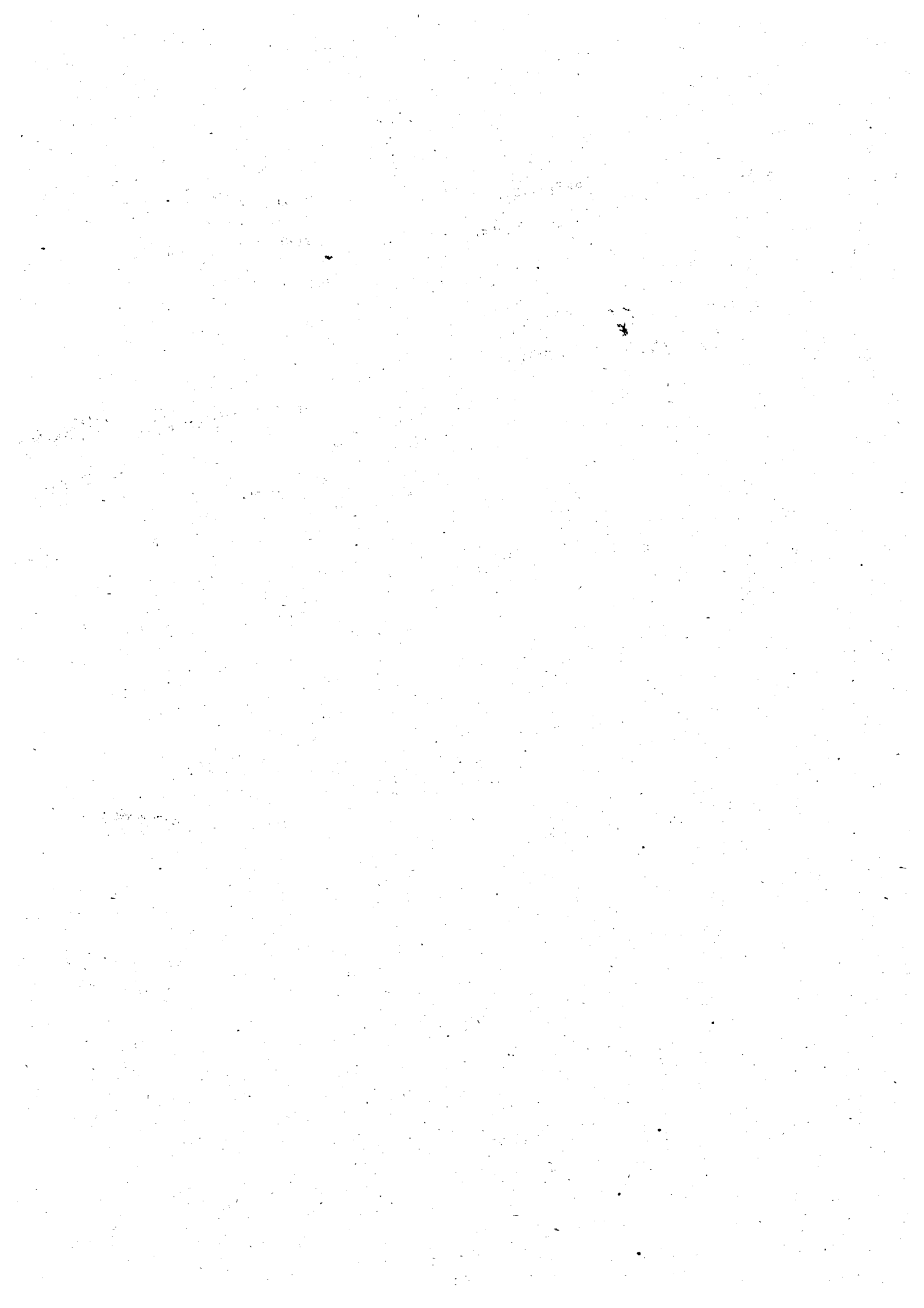
거듭한 분야이지만 아직 理論다운 理論이 定立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南北韓의 經濟統合이 實現되는 경우를 가상하여 여러 側面에서 과거의 研究結果를 들고 또 分析方法을 제시하였다.

規模의 經濟, 外部經濟의 効果도 南北韓의 經濟統合時 發生할 重要 效果의 하나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상 理論과 分析方法을 檢討結果, 그 重要性에도 불구하고 資料와 情報의 制約때문에 正確한 統計數値를 當장 얻기 어려우므로 追後 좀 더 長期間에 걸친 研究에 적용키로 하고, 本稿에서는 單純巨視的 接近方法을 使用키로 하였다. 現經濟計劃에 맞추어 予測하는 경우 經濟計劃作成에 使用한 經濟모델에 供給과 需要 양면에 걸쳐 南北韓의 데이터들 投入, 計算하는 方法을 採하였다.

政府의 「長期經濟社会發展, 1977 ~ 91」과 이의 작성에 쓰여진 經濟모델과 時系列 統計値는 쉽게 入手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變數에 맞는 北韓데이터는 구하기 그리 쉽지 않았다. 끝으로 第4次5個年計劃과 이후 91년까지의 予測에 使用한 마크로 모델을 제시하였다.

끝 .



第1章 假 定

南北韓이 統一되면 經濟的으로 어떠한 影響이 미치게 될까. 統一은 우리의 念願이기 때문에 早晚間 成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統一된 뒤 經濟的으로 어떻게 變貌할지는 누구도 予測하기 그리 쉽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予測作業에는 많은 假定과 單純化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먼저 統一된다면 어떠한 方法으로 통일될 것인가의 統一方法과 統一過程上의 諸問題點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를 제외하지 않을 수 없고 단순히 現在의 諸般條件이 吸收統合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분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南北韓의 異質體制에 따르는 여러가지 現狀현상과 非經濟的 要因도 모두 捨像하고 國際情勢와 經濟動向도 일정한 方向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라는 假定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 만일 開放體制를 따르는 경우, 閉鎖經濟와는 달리 서울을 中心으로 中國大陸과 蘇聯을 貫通하는 經濟交流과 交通手段이 현실화 될 것이고 觀光등도 크게 확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우리의 現作業에서는 제외될 것이다. 이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假定이 필요할 것이나, 여기서는 한마디로, 開放體制를 지향하는 경우, 周邊條件은 모두 不變이거나 線形으로 變化할 것이고 오직 經濟的重要變數만 調整된다는 單純化 假定이 앞세워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予測의 方向으로는 韓國體制가 지켜질 때 統合後 經濟發展의 有,

不利點을 檢출해야 할 것이다. 반면 北韓體制일 때는 他共產圈(특히 朝鮮과 東歐)과 같이 어느 정도 開放體制로 전환하는 경우와 現閉鎖體制를 高수하는 경우를 구분, 이에 따른 統合後 經濟發展의 有不利點을 檢출하여야 할 것이다.

第 2 章 定義와 理論의 歷史

南北韓의 經濟統合이란 經濟統合理論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에 있어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경제통합과 관련되고 있다. 흔히 경제통합의 형태에는 自由貿易地域 (Free Trade Area), 關稅同盟 (Customs Union), 共同市場 (Common Market) 과 經濟統合 (Economic Integration)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우리의 論題는 마지막의 經濟統合에서도 政治, 社會, 文化의 統合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합을 이룸하는 것이므로 가장 程度 높은 형태의 것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經濟統合理論의 歷史를 보면 로마帝國에서 英, 佛植民地를 거쳐 현재의 歐州共同市場 (EEC) 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많이 되어 왔고 지금도 發展되고 있는 學問分野의 하나라 할 수 있다. Fritz Machlup 이 쓴 "A History of Thought on Economic Integration (1977, The Macmillan Press Ltd) 를 보면 經濟統合의 用語, 歷史, 定義에서 시작하여 思想과 關心分野, 古代에서 부터 最近까지의 主張과 贊反討論, 人物과 事件 특히 經濟理論家들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있고 이 책을 통해 우리의 경우를 類推,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第 3 章 理論과 分析方法的 內容

위의 네가지 形態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經濟統合理論은 모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단지 형태의 특성에 따라 논의의 중점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을 따름이다. 예를 들면 關稅同盟에서는 最適關稅가 크게 취급되나 經濟統합에서는 生産要素의 移動, 資本市場統合, 財政統合, 最適通貨地域論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一般的인 經濟統合의 思想史에서 순수경제분석에 限定하는 것은 너무나 制約的·假飾的일지 모르나 「經濟理論」의 테두리 안에서 經濟統合理論에서 提起되는 문제들을 分析하게 되면 勞動의 分業 및 比較生産費 理論으로부터 要素移動과 要素價格의 理論, 貿易擴大 및 貿易縮小의 國民所得 및 分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을 거쳐 關稅同盟 및 完全한 經濟統合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理論으로 展開된다.

本稿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經濟統合을 想定하고 이와 관련된 諸理論을 정리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南北韓이 經濟的으로 통합되는 경우, 이를 理論的으로 분석, 예측하자면 먼저 便宜上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1) 靜態的側面

- (가) 商品移動으로 인한 生産效果
- (나) 商品移動으로 인한 消費, 厚生效果
- (다) 生産要素移動으로 인한 效果

(2) 動態的側面

- (가) 市場規模와 經濟成長
- (나) 規模經濟의 效果
- (다) 外部經濟의 效果
- (라) 기타 動態的 效果

1. 統合의 靜態的 側面

南北韓經濟가 統合되면 먼저 商品의 移動이 擴大될 것이고 이에 따라 企業의 生産과 家計의 消費에 變化를 초래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 經濟成長과 연결되게 될 것이다. 技術變化와 規模經濟가 없다고 할 때 經濟統合으로 인한 資源配分の 效果는 먼저 商品의 生産이 高生産費의 国内生産者로부터 低生産費의 国内生産者로 移轉하는 肯定的效果와 그렇지 않은 否定的效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消費需要는 相對價格의 變化에 따라 여러가지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중 가장 많이 論議된 것으로서는 J. Viner 가 처음 얘기한 貿易創出과 貿易逆流(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效果를 들 수 있다. 貿易創出效果란 經濟統合으로 市場이 없어졌기 때문에 自由貿易으로 근접되면서 商品의 供給이 高生産費에서 低生産費의 生産者로 移轉되고 따라서 貿易의 量과 額이 증대되는 현상을 말하며, 貿易逆流效果란 반대로 비교적 低生産費에서 高生産費의 生産者로 商品供給源이 移轉되어

결과적으로 貿易의 量과 質이 減少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다. 經濟統合의 效果로 前者가 後者를 圧倒하면 肯定, 반대이면 否定的 效果를 과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Viner, Meade 등의 學者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假想的인 經濟統合의 生産效果에 대해서는 어떠한 先驗的인 판단도 내릴 수 없다. 靜態的 分析에 있어서 경제통합이 生産效率에 미치는 가능한 영향들을 결정짓는에는 各經濟의 補完性和 競争性, 生産費의 差異, 關稅同盟의 크기, 近接性和 輸送費 등이 주된 결정요인이 된다.

다음은 補完性和 競争性(Complementarity and competitiveness)을 들 수 있다. 經濟가 統合될 때 既存의 各企業 및 生産單位가 서로 比較生産費(Comparative costs)가 다르던가, 生産品의 種類가 다를 때, 或은 서로 유사하거나 같을 때 어떤 效果가 발생될 것인가하는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J. Viner 와 J. Meade 등이 그 뜻을 달리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역시 상이하게 되고 있지만, 만일 經濟構造와 生産構造가 상호 補完的이라면 통합의 效果가 肯定的으로 나타나기 쉽다고 일응 생각할 수 있다.

詳述하면 近間的 논의에서 “競争的”, “補完的”이라는 용어는 比較生産費의 差異를 언급하며 生産費가 대부분의 商品에 대해 큰 격차를 보일 때 두 經濟는 補完的이라 한다. 위와같은 定義를 따를 때 補完性은 兩국이 統合 以前에 生産費 격차가 큰 商品을 生産하였다면 有利한 것이며 통합이 低費用 生産者를 除外시켰을 경우에는 不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은 比較生産費의

격차에 근거한 補完性和 競争性的의 定義는 生産物의 分布와 單位生産費에서의 차이를 區別하지 않는다는 不利點을 갖고 있다.

Viner 는 補完性和 競争성을 定義하는데 生産된 商品의 分布가 서로 類似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그는 競争性이란 " 關稅同盟이 形成되기 前에 關稅保護를 받았던 高生産費 産業의 生産物들이 構成國間에 함께 분포하는 것 " 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競争性은 生産된 商品의 分布가 심하게 중복되어 있는 상태를, 補完性은 그 반대의 상태를 가리킨다. 競争的 經濟들의 統合에 있어 統合 전에도 생산되었던 商品의 生産費에 實質的인 差異가 있다면 生産效率은 상당히 向上할 것이다. 따라서 資源의 再分配가 활발히 일어날 것이며 貿易利益도 增大될 것이다.

결국 Viner 는 競争性이 關稅同盟 形成 以前에 참가국들이 같은 종류의 商品을 생산했음을 의미하고 補完性이 生産된 商品의 分布가 상당한 差異를 나타낼 때 競争的 經濟들의 통합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세밀한 企業別, 生産單位 分析이 요망되고 있다.

정태적 의미에서 經濟統合의 規模가 크려면 어떻게 될까.

Viner 와 Meade 의 생각으로는 다른 사정이 일정한 한, 經濟的 地域이 커지면 커질수록 勞動의 內部分業의 可能領域이 넓어지고 資源配分이 效率化된다고 믿고 있다. J. Tinbergen 역시 數式 모델을 사용하여 國家의 크기가 커지면 그럴수록 總生産이 증대된

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그러나 Duncan 이나 Röpke 는 國家의 규모가 작을 때는 國際貿易에 참여하는 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 반하여 國家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면 閉鎖經濟로 환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逆效果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Hawtry 는 더욱 悲觀的인 見解를 피력하고 있다. 市場의 規模라해도 여러가지로 달리 정의되고 있는바, 人口와 GNP 가 주로 그 指標로 사용되고 있긴하나 交通費, 趣向의 相異 등으로 調整되기로 하고 있다. 隣接性, 類似性과 交通費 등은 經濟統合時 고려되어야 할 變數로 간주되고 있고 統合前의 關稅 및 NTB 의 정도도 生産效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고 있다. 첨언하면 GNP 가 일정할 때 輸送費가 크고, 國民의 趣向이 多樣할수록 有效한 市場의 크기는 더욱 작아진다. 그러나 社會的 位置에 따라 消費性向이 다르다는 事例로 해서 經濟統合의 生産效果가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統合됨에 따라 같은 消費性向을 가진 社會階層의 폭이 넓어지는 "水平的 變化"가 발생할 것이며 市場情報의 擴散 및 外國商品에 대한 호기심은 다같이 肯定的인 方向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消費效果는 어떤가. 生産效果는 生産能率이 변함에 따른 同種商品의 供給代替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消費效果는 商品交換의 能率이 변함에 따라 異種 消費商品間의 代替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消費效果는 결국 統合國家의 貿易去來量, 經濟的 補完性과 貿易障壁의 크기에 따라 肯定的일 수도 있고 否定的일

수도 있다. 여기서 生産效果나 消費效果에 적용된 論理는 동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商品에 대한 增大된 消費가 外國供給者보다 國內供給者를 희생시키고, 貿易이 創出된 商品에 대한 生産費 差異가 貿易이 逆流된 商品의 生産費 差異보다 크다면 生産效果는 有利해질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消費效果는 消費者가 外國商品보다 國內商品을 代身하여 參加國의 商品으로 代替할 때 肯定的이게 된다. 여기에 交易條件(Terms-of-trade) 효과와 行政的 經濟性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 모든 것이 國民厚生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經濟統合과 經濟成長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間接的인 效果는 이만 논의키로 한다.

다음 靜態的 側面에서의 生産要素移轉은 우리의 論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의 分析이 꼭 중요하다 할 수 있다. 經濟理論으로 보아 商品去來만으로는 生産要素價格의 均等化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能率的인 資源配分의 條件인 生産要素의 限界生産에 均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生産要素의 移動이 꼭 필요하게 된다. 效率性에 대한 生産要素移動의 效果는 다음과 같이 例示될 수 있다. A國과 B國에서의 生産條件이 다같이 Cobb-Douglas 函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卽,

$$O = b L^k C^{1-k}$$

여기서 O = 生産 (生産物의 構成은 고려하지 않음)

L = 勞動 (兩國 공히 同質的이라고 가정함)

C = 資本 (" ")

$$k = 1 - k = 0.5$$

만일 A국이 資本 400, 勞動 200 單位를 가지고 있고, B국은 각각 200 과 400 單位를 가졌다고 가정할 때 兩國의 生産은 다 같이 141 單位가 될 것이고, A국의 限界勞動生産性은 0.352, B국은 0.176 이 될 것이다. 이때 A, B 兩國의 限界資本生産性은 각각 0.176 과 0.352 가 될 것이다. 生産要素의 限界收益은 要素賦存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짐이 당연하다. 이때 資本과 勞動이 經濟統合으로 自由롭게 이동될 수 있게 되면 限界 要素收益은 0.25 에서 均等하게 되고, 兩國의 共同生産은 282에서 300으로 增大될 것이고 따라서 生産要素가 이동되므로써 相對的 欠乏을 감소시켜 결국 能率을 向上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要素移動은 貿易의 代替役割도 한다. 결과적으로 要素賦存의 相對的 相異性を 減少시키고 自然資源과 交通施設, 市場牽引의 相對的 重要性을 提高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정이 동일한 한, 비록 兩國間의 貿易量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新商品등이 要素被移轉國에서 生産될때는 무역량이 오히려 增大되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完全情報, 凝集力이 작동할 때는 또 달리 분석해야 할 것이다.

勞動力の 移動은 移動의 直接費用과 間接費用의 합이 誘引力보다 더 클때 야기되나 完全合理性이 欠如되거나 社會, 文化등의 異質性이 크면 클수록 制限되게 되며 資本移動이나 企業經營力の 移動도 여러가지 要因으로 인해 제한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社會的

硬直性, 文化樣態, 危險, 經營教育의 欠如 등은 企業能力的 移動을 左右하는 重要요인으로 등장될 것이다.

2. 統合의 動態的 側面

경제성장에 대한 高潮되는 관심은 여러가지 成長模型을 연구해 냈는 바 이들의 대부분은 Harrod 와 Domar 의 업적에서 유래된다 할 수 있다. Harrod-Domar 類의 成長모형에서 생산의 증대는 주로 資本蓄積率에 의존하는 반면 技術向上의 역할은 거의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다. 경험적 연구에 의할 때 技術變化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적어도 美國과 같은 국가에서 資本增大는 오직 所得增大의 一部分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로 해서 資本形成이 生産性的 成長과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技術向上에 필요한 研究費用을 충당하기 위하여 投資가 필요할 뿐더러, 資本形成의 정도는 새로운 生産方法的 적용을 制約하는 要因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資本形成 그 자체로서는 生産性 向上의 미소한 결정요소에 불과하나 새로운 技術을 개발 응용하는데 制約要因으로 作用하게 되는 것이다.

技術變化란 무엇인가? Solow 와 Massel 에 의하면 技術變化란 生産函數의 上向移動이며, 이는 同一한 投入量에 대한 더 많은 產出量이라 바꾸어 말할 수 있다. 動態的 效率性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㉓ 大規模經濟, ㉔ 自生的인 技術變化로 分類할 수 있

다. 大規模經濟란 市場規模의 擴大에서 결과하는 投入係數의 감소를 의미하며, 規模經濟 또는 外部經濟의 형태를 취하거나 深化된 競爭, 減少된 不確實性 그리고 投資資金의 再配分과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大規模經濟는 市場擴大를 초래하는 技術向上을 포함한다. 즉 自生的 技術變化에 대한 誘發的 技術變化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같은 大規模經濟와 自生的 技術變化의 区分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바이지만 상당히 不完全한 것이다. 一例로 장래에 予想되는 수요증대의 기대가 大規模生産을 고무했던 포드自動車공장에서 一貫生産方式의 導入은 分類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요컨대 市場規模의 擴大는 技術向上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事例에서 보면 自生的 技術變化는 生産費를 절감함으로써 市場을 확대시킨다.

위와같은 制約에도 불구하고 市場과 成長에 초점을 둔 上記 区分은 經濟統合을 논의하는데 있어 극히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다.

經濟統合은 전국 國民經濟市場의 융합이라 간주할 수 있으며 統合의 動態的 側面은 成長에 대한 市場擴大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知悉될 수 있다.

가. 市場規模와 經濟成長

Adam Smith 는 「國富論」에서 勞動의 生産力을 가장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勞動 分業의 效果이며 勞動의 分業은 市場의 크기에 의해 制約되고, 따라서 市場規模의 擴大는 生産性向上에 기여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A. Marshall의 著述에서도 市場規模와 經濟成長의 相關關係에 대한 認知를 엿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生産量의 增大는 内部 및 外部經濟를 발생시키며 經濟全体에 대한 收益增加를 結果한다. 그러나 Marshall이나 그 추종자들은 收益增加와 競争的 長期均衡의 兩立性을 증명하는데 노력하였지 收益增加와 成長의 相關關係를 무시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Allyn Young만이 “收益增加와 經濟成長”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유일한 例外였다. 市場規模를 生産量으로 定義하면서 A. Young은 勞動分業이 市場規模에 의해 制限된다는 A. Smith의 見解를 발전시켜 “一國의 經濟的 賦存狀態가 주어졌을 때 産業의 有効性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要素는 市場의 크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成長過程에서의 諸産業의 相關關係, 市場의 擴大에 부수되는 專門化의 結果로 새로운 産業의 出現, 大規模市場에서의 單純化와 標準化의 重要性 그리고 市場規模의 擴大가 技術變化에 주는 영향 등을 分析하였다. A. Young의 공헌에 가인한 先導的 役割도 近來에 와서 低開發經濟의 문제가 經濟學者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持續되었다. P. Rosenstein-Rodan은 市場規模와 經濟成長의 關係에 대한 관심을 復活시켰으며, R. Nurkse, T. Scitovsky, W.A. Lewis 등이 이에 공헌하였다.

市場規模와 經濟成長에 관한 논의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概念的인 문제로서 一人當所得에 대해 별도의 고려를 해야 한다. 우리의 論議에서 市場規模는 收益增加가 實現되는 商品의 生産에서 의

미를 가지며 그와같은 生産物에 대한 消費는 一人当所得이 上昇함에 따라 增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GNP가 일정할 때 一人当所得이 높으면 높을수록 收益增加가 實現되는 部門의 生産物에 대한 市場의 有効한 規模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제 우리의 假說은 自然資源과 資本이 주어졌을 때 더 높은 수준의 生産性은 더 넓은 市場에서 達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生産性 水準이 市場規模에 의존한다면 統合을 통한 市場의 擴大는 生産性成長에 기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經濟統合은 參加國經濟의 動態的 效率性的 向上을 초래한다. 이 假說을 檢証함에 있어 同一한 賦存資源과 資本을 가진 國家間的 生産性 比較가 요구되나, 실제로 국가간 부존資源의 양이 相異하므로 勞動生産性보다 單位生産費가 적절한 變數이다.

生産性에 미치는 統合의 영향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美國의 大規模市場에 기인한 여러가지 利點이 統合된 유럽의 Framework에서도 포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 美國에서의 높은 生産性 水準은 大規模市場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가. ㉡ 유럽이나 南美諸國이 美國에서와 같은 大規模市場의 利點을 포착하는데 당면한 難點은 무엇인가.

L. Rostas는 英國과 美國의 産業에서의 生産性 水準에 관한 세밀한 분석의 결과, 1935 ~ 39年間 31個 製造業에서 美國의 勞動者 1人当 生産物이 英國의 2.2 배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차이의 原因을 분석해보았으나 확정적인 結論을 얻지 못했다.

다. 또한 Rostas 는 市場規模와 生産性 關係에 의한 假說을 사용한 결과 市場規模와 生産性的 相關關係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게 되었다. 왜냐하면 美國은 市場이 相對적으로 큰 産業에서 相對적인 優位를 누렸기 때문이다. 근래의 OEEC 研究 結果에 의하면 勞動生産性的 差異는 單位生産費 差異와 매우 類似하다. 따라서 市場規模와 生産性的 肯定的 相互關係는 市場規模와 實質生産費 사이에도 비슷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美國과 캐나다 經濟에 관한 比較研究에서도 市場規模 假說을 지지하는 증거가 여러군데서 발견된다.

市場規模의 假說을 비판하는 어떤 學者들은 事實的 根拠로서 美國은 이미 1870 년에 英國에 대해 生産性 優位를 견지하였지만 그 당시 美國의 市場은 英國市場 보다 작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의 타당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美國은 1850 년에 이미 몇가지 生産分野에서 大規模生産方式을 사용했으며 그로 인해 그 분야에서 더 높은 生産性を 결과했다. 大量生産은 生産物에 대한 大規模市場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換言하면 美國은 더 큰 規模의 市場이 獲得可能했던 産業에서 이미 生産性 優位를 가졌다. 이 結論은 獨逸의 한 研究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데 이에 의하면 1870 년경 美國製造業의 平均生産性は 英國의 그것 보다 크지 않았을지도 모르나, 大規模市場을 가진 産業에서 美國의 優位가 비교적 작은 市場을 가진 産業에서의 不利로 인해 상쇄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市場規模假說에 반대하여 가끔 거론되

는 주장으로 市場規模와 生産性(또는 實質費用) 사이의 因果關係의 方向이 不確定的이라는 주장을 들 수 있다. 우리는 市場規模와 生産性的 關係가 一方的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生産性的 增大는 國民所得을 上昇시키고 生産費절감을 통한 特定生産物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市場을 增大시킬 것이다. 반면 現代的 技術의 導入도 역시 市場規模에 의해 制約되며, 雙方的 關係의 존재가 市場規模假說의 重要性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變數는 相互強化하기 때문이다.

個別的 産業을 두고 볼때 產出高의 增加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生産性 向上에 기여하는 반면 自生的 技術向上은 그 産業의 生産品에 대한 市場을 擴大시키며, 두 變數의 相互作用은 상대방의 効果を 增大시키고 產出高 및 生産性的 利得增大에 기여한다. 國民經濟의 수준에서도 역시 市場規模의 擴大는 生産性を 증대시킨다. 生産性的 向上을 다시 所得上昇의 効果を 통해 市場을 擴大시킨다. 所得과 生産性的 相互依存性이 그 어느 것의 効果を 강화하고 生産性を 上昇시키는 제 3의 要因들에 의해 지렛대 役割을 할 때 우리는 乘數의 關係를 발견하게 된다.

市場의 擴大가 製造業에서 生産性水準을 上昇시킨다는 주장을 立証하는 다른 방법은 1人當所得과 生産性的 相互關係로 부터 추상하는 것이다. 一定한 1人當 所得水準에 대해서 人口는 市場크기의 指標로 간주될 수 있으며, 增加된 人口는 製造業의 多樣한 分野에서 最終需要에 대한 直接的 効果와 中間財에 대한 間接的 需

要를 통하여 大規模經濟의 利用을 가능케 한다.

市場規模는 生産性 水準을 결정짓는 하나의 重要한 變數이다.

물론 社會學·心理學的 要因들이 國民經濟의 大小를 막론하고 生産性 增大에 기여함은 부인할 수 없지만, ceteris paribus 假定下에 더 넓은 市場은 더 높은·수준의 生産性的 達成을 가능케 한다. 經濟統合의 경우에 있어서 國民經濟 市場의 結合은 參加國의 成長展望을 改善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된다.

(나) 規模의 經濟

Marshall의 靜態的 意味의 内部經濟는 勤勞者의 專門化, 機械의 응용, 보다 經濟的인 材料의 使用에 기인한다. Schumpeter는 靜態的 概念을 반대하면서 生産費節減은 革新的 活動의 所産이며, 이를 生産要素의 새로운 結合의 適用, 바꾸어 말하면 새로운 生産函數의 조립이라고 정의하였다. 規模經濟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종류로 区分 論議될 수 있다. ㉠ 工場에 内在하는 經濟, ㉡ 企業에 内在하며 工場에 外在하는 經濟가 그것이며 前者의 主要한 形態들은 다음과 같다.

(가) 컨테이너, 파이프라인, 콤프레서 등과 같은 장비에 대해 費用은 表面積의 函數인 반면 用積은 부피에 比例한다. 일반적으로 부피의 增加率은 表面積의 그것보다 높다.

(나) 大量去來의 경우 費用增加率은 量의 增加率보다 작다. (大規模 船積)

(다) 大量備蓄의 原則은 生産量의 增大에 따른 備用節減을 가리킨다.

(라) 分割할 수 없는 종류의 장비를 最適使用하기 위해서 大規模生産이 필요하다.

(마) 生産量이 增大하면 디자인, 生産計劃, 研究, 情報의 수집과 전달 등과 같은 不比例的 活動에서 經濟가 가능하다.

(바) 大規模生産은 專門化된 장비, 高度의 資本集約度, 一貫生産을 요구하는 進歩된 技術方式의 적용을 보장한다.

(사) 大規模生産은 勞動者의 專門化를 가능케 하며 企業이 最高 經營陣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

現在의 論議에서 “構造的 經濟”(structural economics)(가, 라, 마, 바, 사)가 강조된다. 왜냐하면 市場規模가 상당히 증대하는 經濟統合의 경우에서 이들은 증대한 結果를 갖기 때문이다.

規模經濟와 統合에 대한 先驗的인 解答은 不可能하다. 우리는 經濟統合이 内部經濟의 利用을 유도할 수 있다는 假說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接近方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증거는 유럽 經濟統合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統合유럽에서 規模經濟의 可能性을 부인하는 논의는 통상 다음 두가지 命題중 하나에 의존한다. ㉑ 工場의 크기는 美國에서나 相對적으로 작은 國家(영국, 캐나다)에서나 거의 同一하다. ㉒ 統計的 推定에 의하면 工場規模와 生産性 사이에는 어떠한 關係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實證的 考察의 結果에 의하면 통합은

유럽共同市場에서 數個의 産業에서 規模經濟의 利用을 가능케 할 것이다. 潛在的 利益은 中小國家(벨기에, 룩셈부르크, 화란, 이태리)나 몇개의 프랑스 및 독일 産業에서 낮은 정도의 規模經濟가 도래할 것이다. 유럽經濟統合은 또한 生産品의 多樣性을 감소시킴으로써 生産性 增大에 기여할 것이다. 가끔, 標準化는 異質的인 유럽市場에서 達成될 수 없다는 假說이 제시되곤 했다. 그러나 무역장벽의 제거는 參加國들의 동일한 社會階層의 消費에 있어 標準化의 諸可能性을 제시하며 社會構造의 變化와 所得增大은 이 경향을 보장할 것이고, 勞働者階層의 增大된 購買力은 耐久消費財의 大量消費를 도래케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消費習性的 차이가 中間財의 標準化를 저해하지는 않는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와 관련하여 종종 提示되어온 假說은, 經濟統合이 南美諸國으로 하여금 중대한 規模經濟를 獲得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立證하기 위한 노력은 全無한 상태이다. 南美市場의 特性和 유럽共同市場의 特성을 비교해 볼때 다음과 같은 一般的인 結論을 얻을 수 있다. 즉 ㉠ 工業製品에 대한 市場規模의 차이는 심각하다. ㉡ 일반적인 觀察의 結果 工場은 유럽에 비해 小規模이다. ㉢ 製品差別化의 가능성이 크며 기호의 同一性 정도는 높으나 工業生産物의 多樣性(消費財의 경우)은 制限되어 있다.

國民經濟市場의 범위, 工場의 平均的 規模, 標準化의 可能性에 대한 관찰의 結果 規模經濟의 利用展望은 유럽에서 보다 南美統合計

劃에서 훨씬 더 밝은 반면 중요한 한가지 制約은 輸送費이다. 예를 들면 철강, 시멘트 등에서 "距離" 요소는 有效한 市場規模를 制限한다. 우리는 規模經濟와 輸送費 間的 "相殺" (trade-off) 를 언급할 수 있으며 어떤 分野의 製造業에서는 거리요인이 南美에서 規模經濟의 可能한 利用을 制限할 것임이 분명하다.

(대) 外部經濟

A. Marshall 의 外部經濟와 經濟成長에 관한 귀중한 통찰은 後의 연구에 先驅的 역할을 했다. Marshall 의 外部經濟는 「벌-과수원-꿀」 타입의 牧歌的인 것이 아니라 經濟發展과 밀접한 關係를 갖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外部經濟는 一般的인 工業發展, 産業의 相關된 部門들의 成長, 産業環境의 一般的인 進歩, 一般的인 市場規模의 增大에 의존한다. 구체적으로, 外部經濟는 專門化된 技能 및 機械, 地方化된 産業, 大規模 生産 등의 多樣한 經濟와 모든 종류의 通信, 去來知識, 熟練勞動力 등의 增大된 便宜를 포함한다.

Marshall 이후 外部經濟의 개념에 대해 많은 論議가 있었고, 지금의 考察에서 우리는 外部經濟는 社会的 및 私的 生産物 사이의 分枝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社会的 및 私的 生産物은 장래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利益의 現在價值라고 해석된다. 이와같은 外部經濟의 定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

(가) 靜態的 外部經濟

生産者間的 相互作用, 資源의 共同부율의 使用, "환경" 창조에 관한 Meade의 개념 등이 이 범주에 속하나 교과서에서 자주 인용되는 예에 불과하며 실제로 중요성은 없다.

(나) 市場機構의 바깥에서 작용하는 動態的 外部經濟

이는 技術 및 組織에 관한 知識과 經營者層 및 熟練勞動力을 포함한다. 이 분야에서 企業의 非市場的 交流는 現存하는 技術知識의 配分 및 使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技術은 새로운 技術을 파생하여 지속적인 進歩를 이룩한다. 바꾸어 표현하면 技術과 技能은 사용함으로써 발전한다.

(다) 市場을 통해 작용하는 動態的 外部經濟

私的利潤性과 社會的利潤性間的 分枝를 초래하는 産業間 市場相互作用을 포함하는 金錢的 經濟를 말한다. 금전적 외부경제는 동태적 조건하에서 經濟成長에 영향을 줌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金錢的 外部經濟는 直接的인 市場相互作用의 형태를 취하거나 所得變化를 통해 작용한다. 우리는 市場에서 産業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所得變化를 통한 相互作用을 논의할 것이다.

市場에서 産業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A産業이 팽창이 Output-using Industry B와 Input-producing Industry C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된다. A産業의 팽창은 그 생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나 技術革新에 의해 유도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産業의 생

産品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Input 를 생산하는 C 산업의 製品에 대한 수요를 상승시키며, A 산업에서의 技術革新은 B 산업에서 Input 로 사용되는 製品의 價格을 下落시킬 것이다. 동시에 그 技術革新이 output-increasing 및 input-using 이면 C 製品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a) 内部經濟가 없고 要素供給이 非彈力的이며 固定된 量의 純投資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A 산업에서 技術革新이 발생하면 A 및 B 산업 製品의 價格은 하락할 것이며 C 산업의 產出高는 물론 A, B 산업의 생산도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要素供給이 非彈力的이므로 餘他製品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國民生産에 대한 技術革新의 實質效果는 처음의 生産水準에서 A 산업에서 절약되었던 Input 로 생산되는 output 와 동일할 것이다. 거기에 投資資金의 配分에 미치는 영향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完全予測의 假定下에서 모든 산업에서의 投資決定은 장래의 수요와 相對價格에 대한 정확한 予想에서 유도될 것이며, 私的利潤性和 社會的 生産性은 一致할 것이다. 完全予測의 假定을 排除하면 投資決定은 現在價格에 의존할 것이며 후자는 장래의 희소성을 不完全하게 반영할 것이다. A 산업의 膨창에 대한 情報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수준이하로 B, C 산업에 投資될 것이며, 구매자 및 공급자 산업에 相應하는 발전이 없이는 A 산업에 대한 投資도 바람직한 수준 이하일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에서 有用한, 주어진 投資

資金으로부터 다른 분야에 바람직하다고 고려되는 이상으로 쓰여질 것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A 산업에서 投資의 私的利潤性이 그 社会的 生産性을 過少評價한다는 것이다.

(b) 内部經濟가 없으나 어떤 生産要素의 供給이 彈力的일 때 彈力的인 勞動供給이 非自發的 失業이며 彈力的 資本供給이, 最少率의 소득이 없을 경우 非生産的 目的에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할 때, B·C 산업의 팽창은 그 경제의 實質收入을 반영한다. 바꾸어 말하면 공급자 및 구매자 산업이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資源을 이용할 수 있다면, 技術革新은 (i) A 산업에서 投入節約 効果와 (ii) 相互依存的인 산업에서의 팽창효과를 통하여 국민생산을 상승시킨다. 이제 A 산업에서 投資의 私的利潤性은 그 社会的 生産性을 과소평가할 뿐더러, 정부는 相關된 産業에서 바람직한 팽창을 보장하기 위해 A 산업에 不利한 투자를 하여야 할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c) 企業이나 産業의 内部經濟가 존재하고 요소공급은 彈力的 또는 非彈力的이라고 가정할 경우

中間財를 생산하는 산업에서 성공적인 技術革新은 공급자 및 구매자가 자신의 生産方式을 再考하여 아직까지 응용되지 못했던 進歩된 기술을 고용하겠금 유도할 것이다. 技術進歩는 확대된 영향을 가진다. 왜냐하면 한 산업에서 증대한 生産性은 더 싼 input 의 형태로 자신에게 되돌아 오기 때문이다. 이 모든 反作用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技術向上에 공헌하는 反應機構의 일

부가 된다. 주어진 팽창의 단계에서 彈力的인 要素供給이 요소가격의 상승을 제약한다면 더 큰 利益이 발생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에서 관심의 초점은 産業들의 相互依存性이다. 모든 산업은 外部經濟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다. 그러므로 外部經濟의 개념은 경제적 자극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한 산업에서의 팽창의 効果 및 相互效果 (inter effects) 를 포함하여야 한다. Rosenstein-Rodan 의 표현을 빌리면 "補完性은 모든 産業을 어느 정도까지 基本的이게 한다." 그러나 그는 資源에 대한 수요에서 産業들은 서로 競爭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산업의 競爭的 相互關係를 무시하고 補完的關係를 강조함으로써 Rosenstein-Rodan 과 Nurkse 는 所得變化를 통하여 작용하는 外部經濟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와같은 착상으로, 일정한 소비재 생산에서 효율적인 대규모 공장의 설치는 實質所得을 상승시킴으로써 다른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유발한다. 그러나 저개발 국가에서 大規模技術의 도입은 限定된 市場規模로 인해 制約받는다. 그들에 의할때 소득중대가 수개의 산업에서 효율적 규모의 공장이 동시에 설치된 결과로 달성된다면 規模經濟는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는 다시 Marcus Flemming 에 의해 비판되었는데, 그의 견해는 "要素供給이 고정적인 한, 대규모 생산단위의 도입은 새로운 설비의 도입으로 인하여 고용된 자원의 순감소를 가능케 할 만큼 산업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經濟가 아니라 非經濟를 발

생케 할 것이다.

Flemming의 논의는 결국 수개의 분야에서 平行的인 進歩가 조 작될 경우 外部非經濟의 가능성을 지적한다. 所得變化를 통한 유 익한 효과의 발생은 자원공급이 彈力的이거나 内部 또는 外部經濟 가 국민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재에 대한 수요증가가 어떤 산업에서 효율적인 大規模生産方式의 도입을 가능케 할 경우에 일어날 것이 다. 換言하면 산업의 直接的 市場相互作用 외에도 한 산업에서의 技術革新은 수반되는 소득증가로 인해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 대한 산업에서 大規模技術의 사용을 허용하는 한, 附加的인 수익을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Rosenstein-Rodan과 Nurkse의 論題는 限定된 市場의 산업팽창에 주는 制約的인 효과의 강조로 해서 주목받을만 하다.

이제 市場規模와 外部經濟에 대한 論議를 발전시켜 보자. 聯関 効果에 관한 Schumpeter, F. Perroux, A. Hirschman 등의 說明은 中心産業(Key industry)이 聯関産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 하는 것을 크게 강조할 뿐, 中心産業이 팽창하는데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상술하지 않았다. 이 조건들에 대해 經濟史家들은 供給側面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需要側面에 대한 고찰은 근래에 와서야 시작되었다. 공업팽창을 위한 市場은 1人當所得과 人口의 增加나, 새로운 욕구, 軍事的 需要, 지속적인 變形 目的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 등의 결과나 또는 輸出의 諸可能性의 형태로 有用하게 된다.

輸出可能性은 英國에서는 물론 大陸諸國의 工業發展에 있어 가장 중요했다. 이와같이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思考는 G. Ohlin 에 의해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成長過程의 이해를 향한 첫걸음은 산업의 供給能力의 성장에 대해 집중되었던 만큼의 관심을 한 산업의 市場成長에 기울이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 경제의 工業化 期間中 輸出은 중요한 市場이었다. 반면 오늘날 저개발국가에 대해서 공업팽창을 수출가능성에 기초하는 데에는 심각한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다. 동시에 국내시장은 충분한 판로를 제공치 못한다.

一 例로 Puerto Rico 와 칠레를 들 수 있는데, 前者는 後者에 비해 自然的인 利點이 적으나 美國市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 미국시장의 有用性과 安定性은 Puerto Rico 로 하여금 生産性 優位를 가진 산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반면 칠레의 경우 관세 및 기타 인공적 무역장벽은 輸出指向的 産業發展의 가능성을 制限하였으며 공업팽창은 국내시장의 소규모로 인해 더욱 제한되었다.

생산과 소비에 있어 산업의 相互依存關係에 기인하는 潛在的 外部經濟는 연관된 모든 산업들의 同時的인 팽창을 옹호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개발국가에 있어 다양한 制約條件들은 여러 산업들의 平行적 발전을 저해한다. 모든 분야의 同時的인 進歩는 國民經濟市場의 규모에 의해서는 물론 유용한 生産要素의 양과 새로운 투자의 가능한 규모에 의해 제한된다. 이러한 제약들이 주어

것을 때 最適規模의 生産單位들은 가끔 不利하게 되고 따라서 잠재적인 規模經濟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供給制約은 可用한 資源이 한정된 産業을 발전시키는데 사용된다면, 規模經濟의 利用을 가능케 할 것이다. 集中된 成長은 또한 技術進歩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빠른 속도의 팽창은 새로운 技術方式의 도입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命題는 產出高의 증가율과 生産性 成長의 相關關係를 뒷바침하는 증거에서 뒷받침된다. 그러나 집중된 成長은 수요측면에서 중요한 장애에 봉착한다. 국내수요는 편중된 生産패턴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므로 수요 및 공급구조 간에 괴리가 생기게 된다. 이 괴리를 제거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貿易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여건에서 새로운 生産부문의 輸出擴大는 무역장벽과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러 난점에 봉착하게 된다. 더구나 새로 발전한 産業은 관련된 産業의 발전으로부터 결과되는 外部經濟를 누리지 못하므로 生産費 利益도 획득치 못할 여지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 産業의 比較優位는 産業간 相互關係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정된 産業에 발전을 집중시킨 국가들은 最適規模 이하의 공장을 건설하든가 수요에 앞서 건설하든가 하는 불행한 選擇에 직면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가 특히 알젠티,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몇몇 南美諸國에서 일어났다.

지금까지 제시된 논의들은 저개발국가가 均衡 및 不均衡成長論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이 장애물들의 많

은 부분은 經濟統合을 통해 市場이 擴大된다면 제거될 수 있다. 통합의 경우, 相互關連된 産業들의 同時的 發展에 기인하는 外部經濟는 享有될 수 있으며 집중된 성장의 잇점들도 또한 이용될 수 있다. 生産과 消費에서 産業의 相互依存性을 통한 外部經濟의 수확가능성은 經濟統合을 옹호하는 강력한 논증이 될 것이다. 그러나 統合이 모든 경제적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 유익한 효과는 社会的·心理的·政治的 장애물이 극복되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다.

經濟統合을 옹호하는 外部經濟 논의는 저개발국가에서 특별한 힘을 가진다. 그렇다고 그것이 先進工業經濟에서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Kuznets 는 모든 小國家들이 限定된 國內市場, 해외무역의 불확실성 그리고 分化된 工業構造의 결여로 해서 不利益에 직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합은 産業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外部經濟를 발생케 할 것이며 市場規模의 증대는 공급자 및 구매자 産業에서 進歩된 기술의 도입을 가능케 하는 成長點(growing points)을 창조케 할 것이다. 이는 한 産業에서의 技術革新이 수직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産業들에게 기술변화를 전달함으로써 外部經濟를 발생시킬 때 연쇄반응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最終財貨를 생산하는 産業에서의 팽창도 先行하는 製造業에 동일한 효과를 가질 것이다. 특정한 産業에서의 생산성의 성장이 증가하는 所得의 需要增大效果를 통해 다른 부문에서 大規模生産方式의 적용을 허락함에 따라 더 많은 利益이 획득될 것이다.

第 4 章 單純巨視的 接近

위와 같은 經濟統合理論은 모두 우리 研究에 必要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러한 理論的 및 方法論的 立場에서 분석하고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상황에선, 또 자료수집상의 어려움때문에 이상의 방법을 모든 동원할 수는 없고, 經濟發展趨勢에 의하거나 總資源予算案과 經濟計劃에 맞추어 예측하는 單純한 마크로의 接近을 시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北韓의 경우는 統計處理에 의한 趨勢에 따라 予測하거나 北韓의 國民所得計定 作成方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現經濟計劃에 맞추어 予測하는 경우는 經濟計劃作成에 사용한 經濟 모델에 供給과 需要 양면에 걸쳐 南北韓의 데이터를 投入하여 다시 計算하면 될 것이다.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91」과 이의 작성에 쓰여진 經濟 모델은 쉽게 入手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變數에 맞는 北韓 데이터를 구하기는 역시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제 4 차 5 年 계획과 이후 91 年까지의 예측에 사용된 마크로 모델은 다음과 같다.

政策 Simulation 을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巨視模型은 11 개의 生産部門을 갖는다. 즉 2 개의 一次生産部門, 3 개의 製造業, 그리고 6 개의 社會間接 및 用役 生産部門(表 I 참조)이 그것이다. 이 模型에서 成長戰略에 따라 GNP 成長目標도 選擇될 수 있다.

一次産業 및 輸出을 위한 製造業 部門을 제외한 個別部門의 成長은 選擇된 GNP 成長에 따라 測定된다. 關係된 彈力性들은 과거 추세 및 價值判斷에 근거하여 決定되었다. 輸出을 위한 製造業 生産은 residual 로 취급되며 그중에서도 商品輸出은 彈力性 概念에 근거하여 算定된다.

韓國의 輸出成長은 3가지 主要要因들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즉 海外需要, 實質有效換率(real effective exchange rate) 그리고 殘餘(residual)이다. Residual은 마켓팅, 經營 그리고 有效交換率로 數量化할 수 있다. 기타 政府 輸出增進策들을 포함한다.

貯蓄은 두 部分, 國民 및 海外貯蓄으로 区分된다. 國民貯蓄은 限界貯蓄性問을 근거로 算定된다. 總消費는 GNP에서 國民貯蓄을 뺀 것이다. 私的消費는 두 部分, 食糧 및 非食糧으로 区分된다. 食糧 및 非食糧 消費는 GNP變動에 대한 限界係數를 근거로 算定된다.

그다음 政府消費는 residual로 취급된다. 11개 生産部門의 受容力所要는 關係있는 資本-產出比와 部門別 附加價值로 부터 算定된다. 海外貯蓄所要는 I-S gap에 의해 決定된다. I-S gap의 크기는 중요한 成長 制約要因이다.

商品輸入은 5가지 그룹으로 区分된다. (1) 資本財, (2) 國內使用을 위한 中間財, (3) 輸出使用을 위한 中間財, (4) 石油, 그리고 (5) 食糧, 資本財輸入은 總固定投資의 固定比率로 算定되며 國內

및 輸出을 위한 中間財 輸入은 各各 해당되는 製造業 產出高의 固定比率로서 算定된다. 石油輸入은 彈力性 概念에 근거한다. 食糧과 用役의 輸入은 外生變數로 취급된다.

雇傭은 8 가지 部門으로 区分된다. 各 部門의 雇傭은 그 附加 價值에 관한 彈力性을 근거로 算定된다. 勞動生産性은 彈力性 概念에 默示的 고려가 된것으로 간주된다.

<表 I> 巨視模型의 分類

1. VD (農·林·水産業)
2. VMI (鎂業)
3. VMHL (勞動集約的 重工業)
 - VMHLX (" " , 輸出使用)
 - VMHLD (" " , 國內使用)
4. VMHK (資本集約的 重工業)
 - VMHKX (" " , 輸出使用)
 - VMHKD (" " , 國內使用)
5. VML (輕工業)
 - VMLX (" , 輸出使用)
 - VMLD (" , 國內使用)
6. VTR (輸送)
7. VEL (電氣)
8. VC (建設)

- 9. VPD (行政)
- 10. VDW (住宅)
- 11. VOS (기타 用役)

<表2> 巨視模型

供給: $VS = VR + VMI + VM + VO + VS$

$$\bar{V}P$$

$$\bar{V}MI$$

$$VM = VMX + VMD$$

$$\dot{V}MX = \alpha_1 \dot{R}XC$$

$$\dot{V}MD = \alpha_2 \dot{V}$$

$$\dot{R}XC = \alpha_3 + \alpha_4 \dot{V}F + \alpha_5 \dot{E}RSP, \text{ 여기서 } \alpha_4 = 2.4, \alpha_5 = 1.0$$

$$VM = VMHL + VMHK + VML$$

$$VMHL = VMHLX + VMHLD$$

$$VMHK = VMHKX + VMHKD$$

$$VML = VMLX + VMLD$$

$$VMX = VMHLX + VMHKX + VMLX$$

$$\dot{V}MHLX = \alpha_6 \dot{V}MX$$

$$\dot{V}MHKX = \alpha_7 \dot{V}MX$$

$$VMLX = VMX - (VMHLX + VMHKX)$$

$$VMD = VMHLD + VMHKD + VMLD$$

$$\dot{V}MHLD = \alpha_8 \dot{V}MD$$

$$\dot{V}M\dot{H}K\dot{D} = \alpha_9 \dot{V}M\dot{D}$$

$$V\dot{M}\dot{L}\dot{D} = V\dot{M}\dot{D} - (V\dot{M}\dot{H}\dot{L}\dot{D} + V\dot{M}\dot{H}\dot{K}\dot{D})$$

$$V\dot{O} = V\dot{T}\dot{R} + V\dot{E}\dot{L} + V\dot{C}$$

$$\dot{V}\dot{T}\dot{R} = \alpha_{10} \dot{V}$$

$$\dot{V}\dot{E}\dot{L} = \alpha_{11} \dot{V}$$

$$\dot{V}\dot{C} = \alpha_{12} \dot{V}$$

$$V\dot{S} = V\dot{D}\dot{W} + V\dot{P}\dot{D} + V\dot{O}\dot{S}$$

$$\dot{V}\dot{D}\dot{W} = \alpha_{13} \dot{V}$$

$$\dot{V}\dot{P}\dot{D} = \alpha_{14} \dot{V}$$

$$\dot{V}\dot{O}\dot{S} = \alpha_{15} \dot{V}$$

需要： $V\dot{D} = C + I + X - M$

$$C = C\dot{P} + C\dot{G}$$

$$C\dot{P} = C\dot{P}\dot{F} + C\dot{P}\dot{N}\dot{F}$$

$$\Delta C\dot{P}\dot{F} = \sigma_1 \Delta W$$

$$\Delta C\dot{P}\dot{N}\dot{F} = \sigma_2 \Delta W$$

$$W = \sum_{i=0}^{\infty} \delta_{t-i} (V - RTT)_{t-i}$$

$$\Delta RTT = \sigma_3 \Delta W\dot{V}\dot{N}\dot{A}$$

$$W\dot{V}\dot{N}\dot{A} = \sum_{i=0}^{\infty} \epsilon_{t-i} (V - V\dot{P})_{t-i}$$

$$C = V - S$$

$$\Delta S = \sigma_4 \Delta V$$

$$CG = C - CP$$

$$I = IF + II$$

$$II = \beta_1 V$$

$$IF = IP + IMI + IM + IO + IS$$

$$IP = \beta_2 \Delta VP$$

$$IMI = \beta_3 \Delta VMI$$

$$IM = IMHL + IMHK + IML$$

$$IMHL = \beta_4 \Delta VMHL$$

$$IMHK = \beta_5 \Delta VMHK$$

$$IML = \beta_6 \Delta VML$$

$$IO = ITR + IEL + IC$$

$$ITR = \beta_7 \Delta VTR$$

$$IEL = \beta_8 \Delta VEL$$

$$IC = \beta_9 \Delta VC$$

$$IS = IDW + IPD + IOS$$

$$IDW = \beta_{10} \Delta VDW$$

$$IPD = \beta_{11} \Delta VPD$$

$$IOS = \beta_{12} \Delta VOS$$

$$II = \beta_1 V$$

$$X = XC + XS$$

$$XS = \bar{X}S$$

$$XC = RXC \cdot PX$$

$$WX = (X/PX) \cdot ER$$

$$M = MC + MS$$

$$MS = \bar{M}S$$

$$MC = MK + MI + MX + MP + MG$$

$$\bar{M}G$$

$$MK = \gamma_1 (IE/ER) \cdot PM$$

$$MI = \gamma_2 DM \cdot PM$$

$$DM = (VM/\gamma_3)/ER - (\gamma_4 XC)/PX$$

$$MX = \gamma_5 (\gamma_4 XC)$$

$$\dot{M}P = \gamma_6 \dot{V}$$

$$WM = (M/PM) \cdot ER$$

$$ISG = I - S$$

$$MXG = M - X$$

雇傭： $EM = LP + LM + LO + LS$

$$\dot{L}P = \eta_1 \dot{V}P$$

$$LM = LMHL + LMHK + LML$$

$$\dot{L}MHL = \eta_2 \dot{V}MHL$$

$$\dot{L}MHK = \eta_3 \dot{V}MHK$$

$$\dot{L}ML = \eta_4 \dot{V}ML$$

$$LO = LTR + LEL + LC$$

$$\dot{L}TR = \eta_5 \dot{V}TR$$

$$\dot{L}EL = \eta_e \dot{V}EL$$

$$\dot{L}C = \eta_r \dot{V}C$$

$$\dot{L}S = \eta_s \dot{V}S$$

<表Ⅲ> 變數 目錄表

A. 變 數

- RXC : 實質商品 輸出高
- VF : 美國과 日本의 GNP (輸出高에 의한 加重值)
- ERSP : 實質有效換率 = $(ER + S) \times \frac{WPIF}{WPI}$
- VM : 製造業의 附加價值
- VS : 用役의 附加價值
- VO : 社會間接資本의 附加價值
- VMM : 鎂業과 製造業의 附加價值
- VP : 1次部門의 附加價值
- VDW : 住宅所有의 附加價值
- VPD : 行政 및 國防의 附加價值
- VOS : 기타用役의 附加價值 (VS - VPW + VPD)
- VTR : 輸送, 貯藏, 通信의 附加價值
- VEL : 電力, 水資源, 의료用役의 附加價值
- VC : 建設의 附加價值
- VMH : 重工業의 附加價值
- VML : 輕工業의 附加價值

VMX : 輸出製造業의 附加價值
VMD : 国内消費 製造業의 附加價值
VMHL : 勞動集約的 重工業의 附加價值
VMHK : 資本集約的 重工業의 附加價值
VMHLX : 資本集約的 輸出重工業의 附加價值
VMHLD : 勞動集約的 国内消費重工業의 附加價值
VMHKX : 資本集約的 輸出重工業의 附加價值
VMHKD : 資本集約的 国内消費重工業의 附加價值
VMLX : 輸出輕工業의 附加價值
VMLD : 国内消費輕工業의 附加價值
IP : 一次部門의 投資
IMH : 重工業의 投資
IMHL : 勞動集約的 重工業의 投資
IMHK : 資本集約的 重工業의 投資
IML : 輕工業의 投資
IO : 社会間接資本의 投資
IS : 用役의 投資
II : 株式의 增加
IDW : 住宅의 投資
IPD : 行政 및 國防의 投資
IOS : 기타用役의 投資
IC : 建設의 投資

- IEL : 電力의 投資
- ITR : 輸送의 投資
- IMM : 鉍業 및 製造業의 投資
- IF : 固定資本蓄積
- I : 總投資
- PX : 輸出品의 單位價值指標
- XS : 用役輸出
- WX : 원화표시의 實質輸出
- PM : 輸入品の 單位價值指標
- PMMK : 資本財輸入의 單位價值指標
- CPF : 食糧의 個人消費支出
- CPNF : 非食糧의 個人消費支出
- RTT : 實質稅 (TI + TD)
- WVNA : 非農業의 加重附加價值
 $(0.4(V - VP) + 0.6(V - VP) - 1)$
- CG : 一般政府消費支出
- CP : 個人消費支出
- C : 消費支出
- S : 國民貯蓄
- MK : 資本財 輸入
- MI : 國內 및 기타消費의 原料輸入
- MX : 輸出을 위한 原料輸入

- MC : 商品輸入
- MP : 石油輸入
- M : 總輸入
- WM : 원 화 표시의 實質輸入
- DM : 製造業의 国内産出高
- ER : 換 率
- SD : 国民所得計定の 統計的 不一致
- NS : 国民貯蓄
- ISG : 投資-貯蓄 GAP
- TAB : 貿易収支
- SRB : 貿易外収支
- GSB : 1975 年 不変価格의 財貨 및 用役収支 GAP
- GRB : 1975 年 不変価格의 国際収支 GAP

B. 政策變數

供 給

$\alpha_i = i$ 産業에서의 附加價值 弾力性

$$i = 1, 2, 6 \sim 15$$

$\alpha_3 =$ 輸出마케팅의 매개 변수 (parameter)

$\alpha_j =$ 實質財貨輸出方程式의 係數

$$j = 4, 5$$

投資需要

$\beta_k = k$ 部門의 資本係數

$$k = 2 \sim 12$$

β_1 = GNP 에 대한 在庫投資比率

消費需要

σ_1 = 食糧消費의 限界消費性向

σ_2 = 非食糧消費의 限界消費性向

σ_3 = 實質稅入에 관한 政府消費의 限界係數

σ_4 = 限界貯蓄性向

δt = 加重係數

εt = 加重係數

輸入需要

γ_1 = 總固定資本形成에 대한 資本財輸入의 比率

γ_2 = 總輸出高에 대한 製造業產出高의 比率

γ_3 = 製造業의 附加價值 比率

γ_4 = 國內製造業 產出高에 대한 中間財 投入高의 比率

γ_5 = 總製造業 輸出高에 대한 中間財 輸入比率

雇 傭

η_j = i 部門附加價值에 대한 i 部門의 雇傭彈力性

巨視計劃模型 (GSR)

<表I> GSR 의 方程式體系

(1) 生産群

$$X_i = V_i / V_i^{13} \quad \leftarrow \dot{V}_i = \bar{G}_i$$

$$\Delta X_m = \beta_m \sum^i I_m t^{-i/i} \text{COR}_m \leftarrow V_m = V_m^{*'} \cdot X_m$$

$$X_n = [I - A_n]^{-1} (X_n^1 + X_n^m + F_n) \rightarrow V_n = V_n^{*'} \cdot X_n$$

$$F_n = CP_n + CG_n + J_n + H_n + E_n - M_n$$

(2) 貯蓄 및 投資群

$$\Delta SH = \alpha H \Delta VD$$

$$\dot{S}B = \alpha B \dot{V}NAG$$

$$\dot{S}G = \alpha G \dot{V}Q$$

$$SF = \bar{S}F$$

$$SN = SH + SB + SG$$

$$I = SN + SF$$

$$VD = V - VG$$

$$VG = \alpha RV$$

$$VNAG = V - VAG$$

$$VAG = VGRA + VOA$$

$$I = ICOR_i X_i$$

$$I_n = ICOR_n \Delta X_n$$

$$I_m = I_{mC} + I_{mUC}$$

$$I_{mUC} = \lambda_m \cdot RI \quad RI = I - (\sum I_i + \sum I_{mC} + \sum I_n) - \sum^i H_i$$

$$IF = \sum I_i + \sum I_m + \sum I_n$$

$$H_i = \eta_i \Delta X_i$$

$$TI = IF + \sum^i H_i : J_j = [B_{ij}/ICOR_j] I_j$$

(3) 消費群

$$C = V - SN$$

$$CG = VG - \delta_j G$$

$$CP = C - CG$$

$$\dot{C}P_i = \epsilon_i \dot{C}P$$

$$CG_i = h_i CG$$

(4) 輸出 및 輸入群

$$\dot{E} = \alpha E + \alpha PPR + \alpha VVF \quad E_j = \delta_j E$$

$$MF_j = MF_j X_j$$

$$MI_j = AX_j + C_j + J_j + H_j + E_j - MF_j - X_j$$

Subscripts

l = 外生部門

m = 投資政策指向部門

n = 需要指向部門

變 數

V_i = i 部門의 附加價值

X_i = i 部門의 總產出高

E_i = i 部門의 輸出高

M_i = i 部門의 輸入高

CP_i = i 部門의 個人消費支出

CG_i = i 部門의 政府消費支出

TI = 總投資

- I_i = 固定資本蓄積
 $I_{m,c}$ = m 部門의 위탁된 投資
 $I_{m,uc}$ = m 部門의 " "
 J_i = i 部門의 固定資本蓄積
 H_i = i 部門의 在庫增加
 δH = 家計貯蓄
 δB = 企業貯蓄
 δG = 政府貯蓄
 δN = 國民貯蓄
 SF = 海外貯蓄
 MI_i = i 部門의 中間財輸入
 MF_i = i 部門의 最終需要를 위한 輸入
 VD = 可処分所得
 VG = 政府部門의 附加價值
 $VNAG$ = 非農業部門의 附加價值
 VAG = 農業部門의 附加價值
 VF = 海外 GNP
 PR = 相對價值

媒介變數

- G_i = i 部門의 附加價值成長率
 β_m = m 部門投資의 懷孕期間의 逆數
 B_{ij} = 資本係數

MC_{ij} = 競争輸入係數

MNC_{ij} = 非競争輸入係數

δ_i = i 部門의 輸出構成比

δ_i = 零賣支出係數

H_i = i 部門의 政府消費構成比

η_i = 在庫變動 및 附加價值變動間의 比

α_H = 家計部門의 MPS

α_B = 企業貯蓄의 彈力性

α_G = 政府貯蓄의 彈力性

α_{GV} = 收入에 대한 政府貯蓄의 彈力性

$ICOR_i$ = i 部門의 資本係數

α_M = 輸出마케팅에 대한 媒介變數

α_P = 相對價格에 대한 媒介變數

α_R = 海外 GNP 에 대한 媒介變數

λ_m = 部門別 投資配分에 관한 係數

V_j^{73} = 1973 년도 j 部門의 附加價值比率

$$: V_j = (1 - \sum_i A_{ij})$$

$$X_n^1 = \sum_i A_{ni} X_i$$

$$X_n^m = \sum_m A_{nm} X_m$$

第4編 統合假定 10年後의 經濟成長
및 部門別 發展展望

李 滿 基

- (略歷)
- 1957. 서울대학교 商科大学 卒
 - 1959. 高等考試 行政科 第二部 合格
 - 1960. 서울대학교 大学院(經濟學) 卒
 - 1957. 4 ~ 1960. 10. 韓國銀行 調查部
 - 1960. 10 ~ 1961. 4. 財務部 事務官
 - 1961. 4 ~ 1961. 9. 慶熙대학교 專任講士
 - 1961. 10 ~ 1962. 2. 經濟企劃院 企劃局 書記官
 - 1962. 2 ~ 1966. 11. 韓一銀行部長待遇 調查役
 - 1960. 4 ~ 1967. 3. 서울대학교 商科大学 講士
 - 1966. 5 ~ 1968. 8. 民主共和黨 政策研究室
專門委員
 - 1968. 12 ~ 1970. 3. 4 韓國投資公司 理事
 - 1970. 3. 5 ~ 1976. 5. 14 韓國投資公司 副社長
 - 1976. 5. 15 ~ 現在. 韓國金融研修院 副院長

中

... ..

... ..

... ..

... ..

... ..

... ..

... ..

... ..

< 要 約 >

(1) 이 論文은 資本主義體制를 통한 高度成長을 지속해온 韓國이 韓半島를 統一하는 경우와 社會主義體制를 통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취하고 있는 北韓이 韓半島를 支配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成長潛在力을 比較하는데 目的이 있다.

(2) 南北韓의 統一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政治, 經濟, 社會 및 文化面에서 異質적으로 成長해온 兩側의 統合에서 發生될 수 있는 摩擦이 相當하게 予見될 수 있으나 이는 일단 배제하였다.

그러나 南北韓의 統一이 이루어지면 國土의 統合으로 인한 自然資源과 地域的交流의 擴大, 南北韓人口의 統合으로 인한 生産的인 勞動力과 國內市場의 擴大, 對立의 止揚에서 派生되는 國防費 및 兵力의 상당부분의 經濟成長에의 利用 등에서 予想할 수 있는 成長潛在力의 增大를 감안하였다.

(3) 韓國이 北韓地域을 統合하는 경우를 A案이라고 할 때, 이는 지금까지 分斷된 狀態에서 韓國經濟를 開發했던 方式이 그대로 外延적으로 擴大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韓國은 開放經濟體制下에서 韓國의 人的資源과 成長潛在力을 最大限으로 發揮하여 高度成長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北韓地域을 韓國이 統合하는 경우, 鐵鉍石 등의 地下資源을 비롯하여 北韓의 人的資源을 活用하여 開放體制下에서의 國際競爭力을 더욱 增加시킬 수 있을 것이며 國內市場도 擴大될 것이므로 지금보다도 높은 經濟成長이 可能할 것이다.

이를 比較하기 위하여 韓國開發院에서 韓國의 長期經濟社會發展에서 長期予測의 方法으로 採択한 成長要因別 成長寄与率을 基準으로 하여 統一後의 成長要因別 成長寄与率을 조정하여 成長潛在力을 予測하였다.

그 結果 統一後 A案에 있어서의 GNP의 總量規模는 1986년에 1975年 不變價格으로는 1,461億달러, 經常價格으로는 2,502億달러로 予測되었다. 이는 本文의 <表 26>과 같다. 그리고 人口增加率은 지금까지의 南北韓의 人口增加率과 그 將來의 추세를 加重平均하여 調整한 계수에 의해 人口를 予測하였고 이에 따라 1人당 GNP를 予測하였는데 1986년에 1975年 不變價格으로는 2,349달러이고, 經常價格으로는 4,024달러이었다.

(4) 北韓이 韓半島를 統合하는 경우, 즉 B案에 대한 予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보는 사람들의 見解에 따라 異見의 余地가 있다.

우선 分斷時의 北韓의 成長潛在力에 대한 予測도 困難하며 지금까지의 資料에 의하면 中央情報부와 統一院, 그밖에 外國의 專門機關에서 推計된 것이 있으나 모두 成長率이 一定하지 못하다. 이는 北韓側에서 經濟成長에 관한 資料를 發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편적으로 推計된 것이고 또한 社會主義의 生産概念과 우리의 國民總生産의 概念의 差異點을 調整하는 데에서도 差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成長率推定은 統一時에 적용할만한 資料로써 利用

하기가 어렵다.北韓의 成長潛在力을 推計하기 위하여 勞動力人口 增加率과 勞働生産性成長率을 推定하는 方法도 利用하여 보았으나, 勞動力人口增加率は 利用可能한 資料로 판단되었으나 勞働生産性成長率의 利用可能性은 成長率推定과 같은 結果가 되었다. 왜냐하면 勞働生産性은 GNP를 勞動力人口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結局 勞働生産性の 利用可能性은 GNP의 利用可能性과 같기 때문이다.

(5)北韓側의 成長方式, 즉 社会主義經濟의 成長方式에 있어 成長要因別成長寄与率을 推定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KDI側의 見解는 否定的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韓國經濟社会展望에서 使用한 데니슨(Edward F. Denison)의 方式은 첫째 市場經濟를 前提로 하고 둘째 各要因別로 精밀한 資料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北韓의 경우, 市場經濟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資料가 貧困하므로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成長要因別 成長寄与率을 데니슨이 創案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생각하는 概念과 일치시켜야 하리라는 理由는 그의 方式을 그대로 적용시킬 때에만 한정시킬 수 있다.北韓社会는 그의 概念을 적용시킬 수 없으나 오히려 生産函数의 概念에 立脚한 生産要素의 增加率과 生産要素가 GNP에서 차지하는 加重値에 立脚한 成長寄与率을 적용시키는 것은 市場經濟가 없는北韓社会에 있어 더욱 的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北韓은 市場經濟가 없으므로 需要 또는 支出接近보다 供給 또는 要素接近이 理論上으로 타당하다.

다만 問題가 되는 것은 데니스方式은 要素價格에 의한 分配率, 즉 所得接近인데 이것은 北韓社會에 적용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所得分配率대신 生産要素의 生産性增加率을 일정한 論理的假定에 의하여 적용시켰다. 計量的接近을 주장하는 統計專門家는 이 방식에 반대할지 모르나 우리는 現在의 제한된 推定資料와 与件속에서 이 방식을 利用하는 것이 不可避하였으며, 그 意義를 결코 看過할 수 없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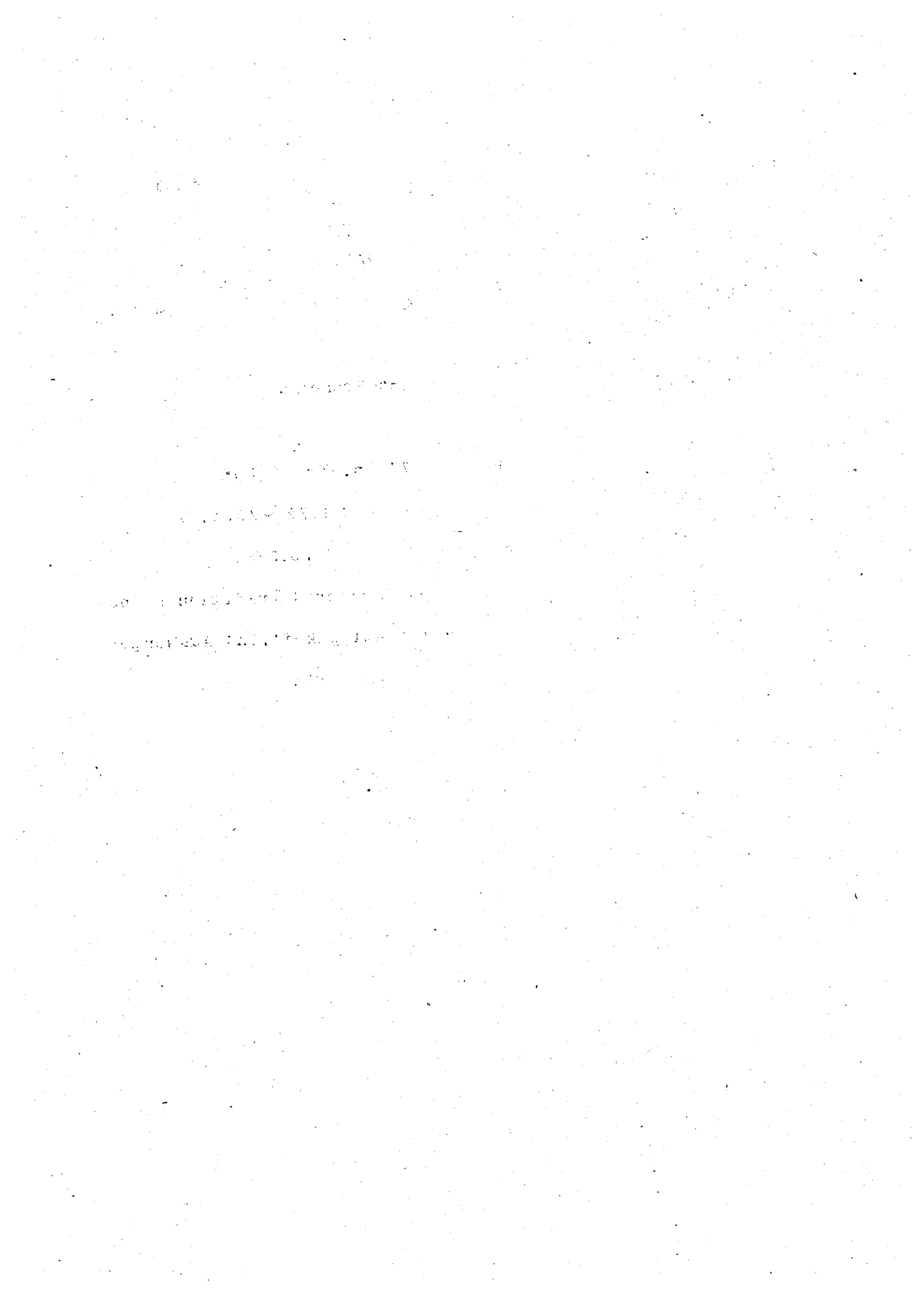
(6) 北韓側의 統一假定下의 成長要因別增加率은 統計資料의 뒷받침이 있으나 그 成長寄与率을 論理的으로 推定한 것이며, 그 結果는 <表26>와 같다. 그리하여 1986年의 GNP는 1975年 價格으로 1,058 億달러, 經常價格으로 1,648 億달러이며, 1人當GNP는 1975年 價格으로 1,634 달러, 經常價格으로 2,465 달러이다. 弗貨表示 GNP는 弗貨의 價值가 變動되기 때문에 不變價格과 經常價格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韓國의 경우와 같다.

北韓社會는 變動價格體制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經常價格과 不變價格을 区分할 수 없으나 現實에 있어서 價格이 絕對不變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는 여기에서 推計한 弗貨表示GNP의 推計와는 關係가 없다.

(7) 끝으로 鉍工業과 에너지 및 農業, 社會間接資本, 貿易等 主要部門別로 統一假定下의 成長予測을 시도했으나 主要變化要因의 提示 및 總量分析을 檢討하는 參考資料로 使用하였을 뿐이며 資料의 제약으로 모든 部門을 總網羅하지 못하였다.

- 註 -

- (1) 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a, *The Civil Culture*,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63, p. 13.
- (2)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3.
- (3) A. O.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1967, p. 83.
- (4) Burnham P. Beckwith, *Socialist Economy*, Stanford Univ. Press, 1948.
- (5) *Military Balance*, 1976 ~ 1977, pp. 57 ~ 59 :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 1972 ~ 73, p. 50.
- (6) 朴俊弘編著, 韓半島의 平和와 安保, 1978, p. 288.
- (7) Lutz Niethammer and Ulrich Borsdorf: *Traditionen und Perspektiven der Nationalstaatlichkeit*, In: *Aussenpolitische Perspektiven*, Bd. 2, S. 58 ~ 72.



第 1 章 成長의 与件

1. 序 論

南北韓의 統一을 假定하고 成長潛在力을 予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隘路가 많다. 특히 北韓測에 있어서는 GNP에 관한 資料가 1965年以前에 發表되었을 뿐이고 그 以後의 資料는 지금까지의 実績조차 不分明하며, 더우기 將來의 數量을 予測하기 위한 資料를 利用하기 곤란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 論文은 장차의 韓半島의 統一을 前提로한 理論的인 側面에서의 經濟展望을 考察할 따름이며 計量經濟學的인 予測은 技術적으로 不可能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를 배제하였음을 먼저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本研究의 範圍 또는 方法에 있어서는 南北韓의 모든 資料를 綜合한 數量的分析이 아니라 理論的인 側面에서 統一後의 經濟成長의 潛在力을 檢討하는데 그쳤고 利用可能한 主要한 資料들을 部門別로 檢討하여 參考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体制의 差異와 成長潛在力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体制의 差異를 比較하는 것은 여기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므로 概念的인 說明은 省略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韓半島의 特殊한 与件과 周邊情勢 그리고 韓國民族의 特殊

한 資質과 潛在의力量을 전체로 하였을 때에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의 差異를 比較하는 것은 意味가 있겠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國土와 自然資本이 不足하고 人口가 조밀하며 그러나 教育水準이 높고 潛在의力量이 큰 人的資源을 保有하고 있는 韓國民族에게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그 어느 體制가 더욱 큰 成長潛在力을 實現시킬 수 있는가를 比較檢討하는 것은 意味가 크다. 또한 이것이 本 研究의 基本目標임을 添言한다.

오늘날 資本主義와 社會主義가 完全히 極端的으로 適用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다시 말하면 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도 다소의 社會主義的 要素가 加味되어 이른바 混合經濟(mixed economy)의 形態를 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도 經濟行動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部分的으로 利益原理와 價格機構의 役割등을 도입하는 修正主義의 傾向으로 轉換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韓半島에서 지금까지 適用되고 있는 南北韓의 經濟體制를 評價한다면 南韓에 있어서는 民間企業이 經濟成長을 주도하는 自由資本主義이면서도 한편으로 公益性을 위한 政府의 役割과 公共企業의 비중도 상당히 커서 社會主義的要素가 加味된 混合經濟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北韓에 있어서는 蘇聯이나 東歐 심지어는 最近 急激히 變하고 있는 中共등에 비하여 가장 硬直的인 社會主義體制를 固守하고 있음이 特徵的이다.

따라서 南北韓의 統一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平和的인 方法으로 自由資本主義體制를 適用시키게 될 때에는 어차피 混合經濟의 要因

이 加味된 伸縮性 있는 体制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커다란 마찰과 問題가 없이 体制의 運用이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만에 하나라도 北韓方式의 統一이 달성된다면 가장 硬直的인 全体主義的 社会主義体制을 위하여 상당한 마찰과 犠牲이 따라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마찰 또는 犠牲的要素가 具體적으로 經濟成長을 얼마나 沮害할 것인가를 測定하기 곤란하므로 그와 같은 要素를 전혀 考慮하지 않고 현시점에서의 北韓共產主義가 아무 마찰이 없이 全國民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고 假定하더라도 全体主義的인 統制經濟가 갖는 成長潛在力에 커다란 限界性이 있음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첫째要因은 封鎖体制下의 成長의 限界性이다. 일반적으로 自由貿易主義와 保護貿易主義와의 論争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開放体制을 전제로 하고 完全한 自由競爭이나 일부 必要에 따라 産業保護 또는 國際收支의 改善을 위한 統制와 保護의 어느 것을 扞할 것인가를 論議하는 것임에 비하여 共產主義國家의 이른바 아우타르키 (Autarky) 体制는 根本적으로 貿易 그 자체를 배제한 自給自足經濟 다시 말하면 開放을 부인하는 封鎖体制라는 點에서 크게 다르다.

특히 韓半島와 같이 国土面積이 협소하고 自然資源이 부족한 國家에서는 開放体制의 必要性이 더욱 크다. 韓國은 1962年부터 76년까지 3次の 5個年計劃을 推進하였으며 앞으로도 81年, 86

年, 91 年에 이르기까지 4 次, 5 次, 6 次 등의 5 個年計劃이 繼續될 것이지만 이와 같은 經濟計劃의 推進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特徵은 開放經濟 (opened economy) 또는 對外指向的成長 (outward-looking growth) 을 취하였음이 가장 重要한 特徵이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이른바 自力更生의 原則이라하여 封鎖體制를 취한 결과 資源 및 資本財의 不足으로 60 年代의 7 個年計劃을 完成하는데 失敗하여 3 年이나 인장하였으며 70 年代에 6 個年計劃을 遂行하면서도 부득이 資本財輸入을 增大하기 위해 外資를 借入하였으나 輸出産業을 育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對外債務을 상환하지 못하여 國際的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은 勿論이며 그후에는 外債의 利用이 막혔기 때문에 資本財의 輸入이 점차 감소되어 計劃의 수행에 또 다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는 1961 年에는 輸出이 4 千萬달러에 불과했으나 77 年에는 1 百億달러로 16 年동안 무려 250 배의 輸出伸張을 記錄하였으며 90 年代에는 1 千億달러를 上廻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이와 같은 輸出伸張은 그만큼 外資獲得과 國民所得의 形成을 이룩함으로써 또한 그만큼의 必要한 資源과 資本財를 도입함으로써 經濟開發을 促進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76 年^{註 1)}의 貿易에 있어서 韓國은 90 %의 工産品을 製造輸出하여 工業用原料 57 %, 資本財 27 %, 食糧 및 直接消費財 13 %의 輸入商品構成을 보이고 있음으로써 輸出增加는 주로 工業用原料와 資本財輸入의 財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76년에 輸出이 불과 6億 6千萬달러이고 輸入은 8億 3千萬달러로서 1億 7千萬달러의 赤字를 나타내고 있는데 輸出商品의 65%가 原料 및 1次産業이며 이는 輸出産業이 育成되지 않았기 때문에 工產品의 輸出이 不可能한 까닭이다. 그리하여 76年度の 경우 韓國은 77億달러의 輸出과 88億달러의 輸入을 記錄하여 北韓보다 10배가 넘는 原資材輸入이 可能하였기 때문에 高度의 經濟成長을 可能케 한 것이다.

그러므로 南北韓의 統一이 이루어져서 그동안 限界性을 지니고 있던 北韓이 開放體制로 轉換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成長潛在力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韓國이 北韓과 같이 封鎖體制로 轉換된다면 成長潛在力은 크게 制限을 받게 될 것이다.

3. 資源과 成長要件

가. 人的資源

韓半島에 分布된 國土와 地下資源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지만 한편 韓民族은 우수한 資質을 갖는 人的資源으로써 높이 評價할 수 있고 이는 經濟開發에 重要한 要素가 된다.

1976年 現在 南韓人口는 3,584만명, 北韓人口는 1,625만명으로 南北韓을 합하면 5,209만명으로 比較的 적정한 單位며 앞으로 人口增加率은 韓國의 경우 1.6%로 81년에 38,807천명 86年

에 42,088 천명, 北韓의 경우 76~81년에는 2.4%로 81년에 18,192 천명, 82~86년에는 2.3%로 86년에 20,383 천명이며 統一後의 A案은 76년의 52,018 천명의 1.8%, B案은 1.9%를 적용시켰다. 1.9%는 76년의 南北韓人口의 加重平均增加率이 1.84%이므로 A案은 北韓地域人口의 家族計劃으로 이보다 감소되는 것으로 보았고 1.9%는 南韓地域의 家族計劃이 다소 鈍化될 것으로 보아

〈表 1〉 人口成長予測 (單位:千名)

	分 断 時			統 一 後	
	韓 国 1)	北 韓 2)	合 計	A 案 3)	B 案 4)
1976	35,860	16,158	52,018	52,018	52,018
1977	36,434	16,545	52,979	52,954	53,006
1978	37,017	16,943	53,960	53,908	54,013
1979	37,609	17,350	54,959	54,878	55,039
1980	38,211	17,766	55,977	55,866	56,085
1981	38,807	18,192	56,999	56,871	57,151
1982	39,428	18,611	58,039	57,895	58,237
1983	40,058	19,039	59,535	58,937	59,343
1984	40,700	19,477	60,177	59,998	60,471
1985	41,351	19,925	61,276	61,078	61,620
1986	42,088	20,383	62,471	62,177	62,791

註 1) 人口增加率 1.6% 2) 76~81: 2.4%, 82~86: 2.3%

3) 1.8% 4) 1.9%

1.9%로 보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人口推移가 韓半島에 있어 適當人口인가는 쉽게 結論지을 수 없으나 南北韓의 人口가 統合되면 한편으로 國內市場規模를 擴大시키며 한편으로 生産에 必要한 勞動力을 提供함으로써 經濟成長에의 기여도가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라이벤스 타인(H. Laibenstein)에 의하면 經対人口는 人口壓力의 要素가 되나 그것은 經濟規模에 反比例하는 것이므로^{註2)}, 人口壓力으로서의 經対人口보다도 成長에의 寄与率이 어떠한가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슐츠(H. Schultz)의 推計에 의하면 美國의 경우 1929~57年의 期間中 人的資源의 經濟成長에 대한 寄与率은 33%의 높은 比率이고 蘇聯도 1940~60년에 있어 25%로 推算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人的資源은 資本主義國家인 美國이나 社會主義國家인 蘇聯이나 다같이 큰 役割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韓國에 있어서 勞働人口 및 雇傭增加에 따른 就業人口增加率은 1966~76年의 期間中에 4.1%이고 이것이 成長率에 寄与한 것은 2.7%포인트인데 이는 GNP 成長率의 25.2%에 해당되며 韓國開發院(以下 KDI라 하겠음)의 推計에 의하면 77~91年의 展望에 있어서 就業人口增加率은 3%, 成長寄与率은 2.6%포인트이며 그의 GNP 成長率에 대한 比率은 25.7%일 것으로 보인다.

韓國이나 北韓은 다같이 自然資源이 부족하므로 經濟成長에 있어서의 人的資源의 役割은 重要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北韓의 경우 經濟活動人口의 增加率은 1961년부터 64년까지는 기록이 심

하여 적용시키기 어려우나 65年以後에는 毎年 3%를 記錄하고 있다. 이는 6個年計劃(71~77)에서 推定한 總人口增加率 2.4%보다 25%가 더 높으나 韓國의 경우 總人口增加率이 最近 1.6%인데 勞働人口增加率을 3%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 隔差는 적다.

<表 2>와 같이 北韓의 GNP를 經濟活動人口로 나눈 1人当勞
 <表 2> 北韓의 經濟成長에 대한 勞働人口의 寄与率

	GNP 1)	經濟活動人口 2)	經濟活動人口 1人当 GNP	同增加率
1967	4,996	4,578	1,091	7.49
1968	5,971	4,715	1,266	16.04
1969	6,289	4,856	1,295	2.29
1970	7,298	5,002	1,459	12.66
1971	7,340	5,162	1,422	- 2.54
1972	8,497	5,307	1,601	12.58
1973	9,577	5,466	1,752	9.43
1974	11,261	5,630	2,000	14.15
1975	12,782	5,799	2,204	10.2
1976	13,621	5,973	2,280	3.45
67~76 平均				8.58

註 1) 北韓의 GNP推計는 어려우나 予算對比 GNP推計資料임.

2) 中央情報部, 南北韓經濟力比較, 第5卷, p.112, 表13 73年

以後는 年增加率 3%適用.

動生産性의 年度別增加率을 算出하여 67~76年の 期間을 平均하면 8.58%이다. 이를 勞動人口增加率 3%와 合하면 우선 GNP成長率은 期間中 $8.58 + 3 = 11.58\%$ 로써 이중 3%포인트에 해당되는 經濟活動人口增加의 寄与度는 $3 \div 11.58 = 25.9\%$ 가 된다.

앞으로 南韓의 勞動人口增加率도 年3%로 推定하고 있으므로 統一後에는 全体的으로 年3%의 勞動人口增加率이 GNP成長에 얼마나 寄与할 것인가를 考慮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人的資源은 단순한 勞動人口를 意味하지 않으며 教育 및 訓練등을 통하여 이들을 開發하는 것과 크게 關聯된다. 하비슨(F. Harbison)에 의하면 人的資源은 우리 社會를 構成하는 모든 사람들의 知識, 技術 其他의 모든 能力을 통털어서 말하며, 이는 教育 및 職業訓練등을 통하여 開發되고 活用되는 것이다. 註3)

특히 그들은 75個國의 資料를 比較 研究한 結果 人力開發과 國民總生産(GNP)과의 相関關係는 0.888이나 되어 相関度가 매우 높다는 事實을 立証하였다. 그들은 ① 人口 1萬名當 教師數 ② 人口 1萬名當 技術者, 科學者數 ③ 人口 1萬名當 醫師, 齒科醫師數 ④ 5~14歲의 初等教育就學率 ⑤ 初等教育과 中等教育의 綜合就學率 ⑥ 15~19歲의 推定人口의 中等教育就學率과 就學期間에 의한 修正就學率 ⑦ 20~24歲의 人口의 高等教育就學率등에 의하

여 人力開發의 段階를 後開發國, 部分開發國, 中進國, 先進國의 4 個 그룹으로 区分하였는데 韓國은 1960 年代初인 當時에 中進國의 上位水準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大學以上の 高等教育은 先進國에 比하여도 부족하지 않으며 지난 (1978 年) 4 月 來韓했던 스웨덴의 허만·허드베리히에 의하면 韓國의 높은 經濟成長潛在力은 ① 높은 教育熱 ② 試行錯誤가 없는 開發戰略 ③ 韓國人의 빠른 技術習得 能力 ④ 韓國人의 勤勉등 모두 人的要素에 있다고 結論지었던 것이다. 이는 그동안 1962~77 年까지의 年平均 10%의 高度成長에 있어 무엇보다 重要한 役割을 하였고 向後의 經濟成長에 있어서도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北韓의 경우에는 우수한 潛在力을 갖는 우리 民族들을 政治的인 利用物로 타락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開發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 月 5 日 國土統一院이 主催한 「北韓의 靑少年」이라는 主題下의 심포지엄에서도 發表되었듯이 우선 北韓의 社會主義教育의 基本原理는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라는 이른바 3化에 目標를 두고 있기 때문에^{註 4)}, 個個人의 潛在的인 能力을 開發하고 人格을 開發하는데에는 目標를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綜合的인 人格形成은 그들의 3化의 目標에 違背되므로 이를 배격하며 個人의 能力의 向上은 全體主義에 違背되므로 역시 배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에 있어서는 經濟成長에 寄與할 수 있는 創意的이고

能率的인 人力開發은 배제되어 왔으며 그보다도 首領이 要求하는 대로 생각하고 行動하는 唯一思想만이 存在하고 그에 立脚한 人的 資源이어야 하기 때문에 經濟成長에의 人的資源으로서의 寄与度는 低調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南北韓이 統一되면 現段階에서 南韓의 約45%에 해당되는 北韓住民들을 効率的으로 開發할 경우 지금보다도 한층 높은 經濟成長寄与率을 보일 수 있으리라고 推定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南北韓이 共產化된다면 지금까지 經濟成長에 寄与했고 그를 위한 人力開發에 最大의 目標을 두었던 南韓의 人的資源이 共產獨裁를 위한 政治的 思想的 利用에 犧牲당하게 됨으로써 經濟成長에의 寄与度는 크게 低下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 自然資源의 賦存

南北韓의 自然資源은 다같이 豊富하지 못하나 分斷時에 비하면 統一後에는 可用資源이 그만큼 倍加될 것이다. 国土面積은 現在 南韓이 98,477 km^2 로써, 北韓이 122,370 km^2 로써 韓半島全体는 220,848 km^2 가 되므로 統一되면 雙方이 거의 倍加됨을 알 수 있다.

특히 南北韓은 좁은 国土이면서도 地理적으로 賦存資源의 差異가 커서 統一後에는 補完的인 效果가 클 것이다. 이는 다 아는 바와 같이 北韓은 工業資源이 상대적으로 많고 南韓은 農業資源이 많은 까닭이다. 現在 主要鉍物의 埋藏量을 推計하면 다음과 같다.

鉄鉍은 南韓이 121百萬噸에 비해 北韓은 13億噸으로 韓半島全體는 1,421百萬噸으로 그 構成比는 北韓이 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金은 南韓이 118萬噸 北韓이 234萬噸 合計 352萬噸으로 그 構成比는 33.5% 對 66.5%이다. 또한 銅은 各各 11,243千噸과 16,870千噸으로 都合 28,113千噸인데 그 構成比는 40.0% 對 60.0%이고 鎳이 64千萬噸과 256千噸으로 都合 32萬噸으로 構成比는 20% 對 80%이다. 한편 마그네사이트와 같은 것은 北韓에만 65億噸으로 南韓에는 없으며 無煙炭은 南北韓 13,191百萬噸中 南韓에는 11.0%인 1,450百萬噸, 北韓에는 89.0%인 11,741百萬噸, 有煙炭은 250百萬噸中 南韓에는 2%인 5百萬噸, 北韓에는 98%인 245百萬噸의 分布를 보이고 있다. 鉍產物中 南韓이 더 많은 것은 銻鉛과 石灰石뿐인데 石灰石은 韓半島全體의 5,267百萬噸中 南韓이 4,199百萬噸으로 79.7%이고 北韓은 1,068百萬噸으로 20.3%이며 銻鉛은 8,202千噸과 8百萬噸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重石도 各各 12,749千噸과 19,123千噸으로 分布面에서 큰 차이가 없다.

위와 같이 主要鉍產物中 鉄鉍, 金, 銅, 有·無煙炭, 마그네사이트 등의 資源이 圧倒적으로 北韓側에 分布되었고 南韓은 石灰石이 圧倒적으로 많으며 重石과 銻鉛은 大差가 없으나 아무튼 北韓의 地下 資源이 豊富하다.

〈表 3〉 地下資源의 埋藏量

(單位 : 千噸)

	南 韓		北 韓		合 計
	埋藏量	百分比	埋藏量	百分比	
鐵 銛	121,368	8.5%	1,300,000	91.5%	1,421,368
重 石	12,749	40.0	19,123	60.0	31,872
닉 켈	64	20.0	256	80.0	320
金	1,180	33.5	2,340	66.5	3,520
銅	8,202	50.6	8,000	49.4	16,202
마그네 사이트	—	—	6,500,000	100.0	6,500,000
石灰石	4,199,300	79.7	1,068,100	20.3	5,267,000
無煙炭	1,450,449	11.0	11,741,000	89.0	13,191,499
有煙炭	5,000	2.0	245,000	98.0	250,000

위와 같이 南北韓의 地下資源의 偏在가 심하므로 統一되면 資源의 利用이 한층 効率的일 것으로 推定되며 그만큼 成長에의 寄与度가 높아질 것이다.

한편 農業資源은 耕地面積에 있어 南韓이 2,347千町步, 北韓이 2,054千町步로 韓半島全体는 4,401千町步에 이르고 그 構成比는 南韓이 53.3%로 다소 많은 편이나 특히 食糧의 主穀을 生産하는 논의 面積은 全体 1,837千町步中 南韓이 1,204千町步로 65.5%를 차지하고 北韓은 633千町步로 34.5%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1976年 現在의 穀物生産量은 감자류를 包含하여 南韓이 8,205

千噸, 北韓이 4,542千噸으로 總12,747千噸에 대한 構成比는 64.4% 對 35.6%의 比率로 南韓이 우세하다. 그러므로 統一後에는 食糧供給도 補完的인 關係에 있으므로 資源面에서도 統一이 얼마나 아쉬운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賦存資源에 있어 統一後에는 成長潛在力이 現在의 分斷狀態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第 2 章 供給側面에서의 成長潛在力 評價

1. 過去の 成長実績

가. 韓國의 成長実績과 要因

우리는 統一後의 成長潛在力을 具體적으로 評價하기 위하여 우선 過去 10 年間の 南北韓의 成長実績과 그 要因들을 먼저 分析하여야 하겠다. 韓國의 成長実績인 이에 다른 資料들에 의하여 널리 소개되었으므로 간단히 그 要因만을 간추려 정리하여 北韓側의 実情을 대비하는데 参考할 수 있도록 하겠다.

韓國經濟는 1966 ~ 76 年의 10 年동안 本格的인 高度成長을 추구하고 73 年以後의 世界的인 資源波動에도 불구하고 年 10.7 %의 成長을 기록하였다. 이 期間中 國民所得의 純增加率은 9.7 %인데 이는 生産의 額面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즉 $GNP = f(N, K, t)$ 의 生産指數를 전제로 하면 成長率은 GNP 의 增加率 = $F(\Delta N, \Delta K, \Delta t)$ 의 關係에서 勞動力投入增加率, 資本投入增加率, 技術(生産性)向上의 세가지 要因으로 分解할 수 있다.

韓國開發院(KDI)의 推計에 의하면 1966 ~ 76 年까지의 國民所得의 年平均成長率 9.7 %에 대한 成長寄与率은 勞動投入이 3.9 % 포인트, 資本投入이 2.1 % 포인트, 要素單位당 生産量의 增加率이 3.7 % 포인트로써 $9.7 = 3.9 + 2.1 + 3.7$ 의 關係가 成立되었다.

이것은 各要素의 增加率과도 關聯되는데 勞動投入增加率은 期間中

4.6%로써 0.847 배가 成長寄与率에 反映되어 3.9%포인트의 기여를 했으며 資本投入增加率は 9.7%나 되었으나 그 0.216 배만이 成長寄与率로 反映되어 2.1%포인트의 기여를 했던 것이다.

推計했던 KDI의 견해에 의하면 資本投入增加率의 成長寄与率에 대한 反映이 적은 이유는 企業의 높은 設備投資率을 反映하여 設備스톡(stock)이 12%나 增加되었으나 投資財源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海外貯蓄에 대한 元利金償還 및 果実送金이 컸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끝으로 生産要素의 单位当産出量の 增加 즉 生産性向上에 의한 成長寄与率은 3.7%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産業構造의 改

<表 4> 韓國의 成長要因別成長寄与率

(單位: %)

	1966~76 (実績)			1977~91 (展望)		
	成長率	寄与率		成長率	寄与率	
GNP	10.7			10.1		
国民所得	9.7	9.7	(100.0)	9.5	9.5	(100.0)
要素投入	6.4	6.0	(61.8)	5.7	5.4	(56.8)
労働投入	4.6	3.9	(40.2)	2.6	2.3	(24.2)
資本投入	9.7	2.1	(21.6)	12.2	3.1	(32.6)
生産性向上	3.9	3.7	(38.1)	4.6	4.1	(43.2)
資源再配分	0.8	0.8	(8.2)	1.0	0.9	(9.5)
規模利益	2.4	2.3	(23.7)	2.2	2.0	(21.1)
技術進歩	0.6	0.6	(6.2)	1.3	1.2	(12.6)

資料： 韓国開發院，長期經濟社會發展，1977.9.30，〈表3-1〉에서

발췌

흡에 의한 것이 0.8%포인트, 規模의 利益에 의한 것이 2.3%포인트, 순수한 技術進步의 成長寄与率이 0.6%포인트를 構成하고 있다.

한편 KDI의 推計에 의하면 韓國經濟는 1971~91年の 長期展望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実績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큰 變化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綜合적으로 年平均 10.1%의 GNP 成長率과 9.5%의 國民所得成長率을 予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KDI의 「長期經濟社會發展」에 収録되어 있으므로 詳述하지 않겠다. 註 5)

나. 北韓의 GNP와 成長実績

지금까지 北韓의 國民所得의 推計方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觀點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統計上의 技術的問題에 대해 깊이 論議하지 않겠으며 다만 지금까지 推計할 수 있었던 資料를 통하여 成長要因을 分析하는데 參考하겠다.

첫째로 北韓이 發表하고 있는 予算資料를 基準으로 하여 統一院에서 推計한 바에 의하면 GNP가 1967年の 4,996 億원에서 76년에는 13,621 億원으로 2.7 배가 되었으며 年平均 11.8의 成長

率을 보였다. 이와 같은 成長率은 韓國의 10.7%보다 높지만 韓國의 成長率은 實質成長率인데 비하여 北韓의 成長率은 經營成長

〈表 5〉 予算과 國民總生産推定

(單位:百萬元)

	予 算 (A)	北韓概念 所得 (B)	A —(%) B	韓國概念 GNP (C)	成長率
1967	410.66	549.01	74.80	4,996.0	10.7
1968	520.37	656.18	76.56	5,971.2	19.5
1969	531.90	691.14	76.96	6,289.4	5.3
1970	623.22	801.98	77.71	7,298.0	16.0
1971	635.74	806.57	78.82	7,339.7	0.6
1972	743.03	933.69	79.58	8,496.6	15.8
1973	856.00	1,052.38	81.34	9,576.6	12.7
1974	1,011.53	1,237.43	81.74	11,261.2	17.5
1975	1,158.63	1,404.57	82.49	12,781.6	13.5
1976	1,251.32	1,496.74	83.60	13,620.8	6.6
67~76 平均					11.8

註 1) (C)는 (B)의 91%임.

資料: 統一院 推計

率이다. 北韓의 경우 우리와 같은 變動價格體制가 아니므로 經常價格과 不變價格을 따로이 分離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北韓

貨幣價值와 物價의 變動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특히 70年代에는 對自由圈의 商品貿易이 行해졌고 石油波動後의 原價上昇 要因等이 전혀 商品價格을 不變으로 維持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한편 北韓의 GNP를 支出接近法에 의하여 推計한 資料에 의하면 1974, 75, 76年의 3年間に 北韓원으로 1974년에는 120億원, 75년에는 134億원, 76년에는 146億원으로 推計되고 있으며註 6), 이를 予算接近에 의한 推計와 對比하면 74年의 경우 支出接近이 1.06倍, 75년에는 1.05倍, 76년에는 1.07倍의 차이가 있어 대체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支出接近法은 時系列이 부족하여 장기간의 成長率을 比較할 수 없어 큰 參考를 할 수는 없겠다.

<表 6> 北韓의 GNP에 대한 支出

(單位:百萬北韓원)

	1974	1975	1976
民間消費支出	5,793.37	5,961.88	6,136.20
政府消費支出	4,739.38	5,570.07	5,984.52
(中, 軍事費)	3,046.74	3,637.60	3,981.14
固定資本形成	3,033.20	3,286.23	3,585.11
在 庫	221.11	- 224.24	81.51
輸 出	1,528.61	1,580.75	1,675.59
輸 入 (-)	3,486.02	2,821.84	2,817.90
國民總生產	12,001.55	13,406.97	14,611.55

한편 中央情報部の 資料에 의하면 1961年부터 70年까지의 10年間 年平均 8.8%의 成長率을 기록하고 있어 앞서 予算支出에 의한 11.8%의 成長率과는 3%포인트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時系列에 包含된 年度の 차이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同一年度の 경우에도 70年の 경우 予算接近은 72億 98百萬元인데 情報部推計는 75億 4百萬元으로 2.8%의 차이가 있으며 다른 年度도 역시 차이가 있다

<表 7> 北韓의 GNP (情報部推計)

1960 ~ 70

(單位:百萬元北韓元)

	G N P (A)	成長率	予算接近 (B)	A — B
1960	3,250.06	—	—	
1961	3,527.26	8.5	—	
1962	3,817.52	8.2	—	
1963	4,153.91	8.8	—	
1964	4,673.01	12.4	—	
1965	5,097.26	9.1	—	
1966	5,311.88	4.2	4,996.02	1,197
1967	5,981.84	12.6	5,971.21	1,112
1968	6,640.86	11.0	6,289.39	1,082
1979	6,807.33	2.5	7,298.03	1,028
1970 平均 61~70	7,503.77	10.2 8.8		

한편 달러貨表示의 GNP와 그 成長率을 南北韓을 比較해 보면 <表 8>과 같으며 1967~76年の 10年間 韓國은 年平均 21.0%의 成長率을 기록하였음에 反하여 北韓은 12.5%에 불과함으로써 成長率의 隔差가 가장 크다. 이러한 要因은 北韓원의 달러貨에 대한 換率을 어떻게 評價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며, 특히 韓國도 70年代에는 外換事情의 好轉으로 換率의 變動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經常成長率과 같은 높은 比率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表 8> 南北韓의 弗貨表示 GNP

(單位：億弗)

	韓 国	成 長 率	北 韓	成 長 率
1967	42.4	11.4	21.1	9.3
1968	50.5	19.1	25.7	21.8
1969	64.0	26.7	27.2	5.8
1970	75.6	18.1	31.9	17.3
1971	87.5	15.7	34.6	8.5
1972	98.2	12.2	37.5	8.4
1973	123.7	26.1	44.5	18.7
1974	171.6	34.6	48.2	13.8
1975	187.6	12.5	53.8	11.7
1976	250.9	33.7	58.1	9.0
67~76 平均	—	21.0	—	12.5

資料： 平和統一研究所，南北韓經濟現況比較， p.22.

2. 成長潛在力의 評價

가. 北韓의 成長潛在力

北韓의 GNP에 대한 資料는 앞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모두 一致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成長実績을 앞으로의 成長潛在力의 評價에 利用하기에는 制約이 많다. 그러므로 우선 生産 函數를 中心으로 制限된 資料들이지만 再整理해 보겠다.

우선 가장 간단한 方法은 해로드 (R.F. Harrod)의 完全雇傭成長率에 관한 公式 즉 $G_n = \alpha + \lambda$ 를 利用하는 方法이다. 위에서 α 는 勞動人口增加率, λ 는 勞動生産性的 增加率이다.

北韓에 있어서 勞動人口의 增加率は 中央情報部の 資料에 의하면 1961년부터 72년까지 總平均 5.82%나 되는 높은 增加率을 보였으나 1965年以後에는 年平均 3%로 거의 固定된 比率로 推計되고 있다. 이와 같은 增加率は 韓國의 就業人口增加率が 과거에 4.1%이었던 것과 比較하면 1961~64년이 높았기 때문에 61~72年の 期間에는 우리보다 높으나 1965~72年の 期間에는 低率이며 앞으로는 우리도 年 3%의 增加率로 推算하고 있으므로 南北韓이 같은 增加率로 볼수 있다.

總人口增加率は 南韓이 1.6%, 北韓은 2.4%로 北韓이 현저히 高率인데 勞動人口增加率は 장차 同率일 것으로 推計할 수 있음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說明할 수 있다. 첫째 韓國은 人口增加率が 그동안 크게 低下되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勞動人口增

加率は 総人口加率보다 높으며, 특히 休戰後의 高出生率로 인하여 労働人口增加率이 아직도 매우 높다. 둘째 北韓은 이에 비하여 総人口增加率이 南韓보다는 높으나 그 감소추세가 크지 않으므로 労働人口增加率과의 隔差가 韓国보다는 적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労働人口增加率은 南北韓 다같이 年3%를 적용하겠다.

<表 9> 北韓의 經濟活動人口와 GNP

	GNP 1) (百萬北韓원)	成長率 (%)	經濟活動 2) 人口(千人)	1人当生産量 (千원)	增加率 (%)
1967	4,996	10.7	4,578	1,091	7.49
1968	5,971	19.5	4,715	1,266	16.04
1969	6,289	5.3	4,856	1,295	2.29
1970	7,298	16.0	5,002	1,459	12.66
1971	7,340	0.6	5,162	1,422	2.54
1972	8,497	15.8	5,307	1,601	12.58
1973	9,577	12.7	5,466	1,752	9.43
1974	11,261	17.5	5,630	2,000	14.15
1975	12,782	13.5	5,799	2,204	10.2
1976	13,621	6.6	5,973	2,280	3.45
67~76 平均		11.8			8.6

註 1) 予算接近 GNP임.

2) 經濟活動人口增加率은 年3%임.

以上에서 $G = \alpha + \lambda$ 의 公式를 적용하면 $3.0 + 8.6 = 11.6\%$ 의 成長率이 算出되며 이는 事實상 年度別 GNP成長率을 그대로 推算한 11.8와 큰 차이가 없다. 그 理由는 勞働者 1人當生産量으로 表示된 勞働生産性은 GNP를 勞働人口로 나눈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事實상 勞働生産性을 左右하는 것은 資本의 投入과 技術向上等の 여러가지와 相互關聯되므로 KDI가 우리 成長潛在力을 推計하는데 利用했던 데니슨(E.F. Denison)의 方式으로 区分하여 檢討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問題는 北韓의 資料가 얼마나 이를 利用할 수 있는나에 依存된다고 보겠다.

이에 앞서 産業別로 勞働人口, 生産量, 生産性, 生産性增加率, 成長寄与率을 計算해 보면 <表 8>과 같다. 이 表는 中央情報部の 資料에 의한 것이며 時系列이 1961~70年의 10年間이므로 70年代의 것이 包含되지 못하였음이 유감이다. 生産性은 産業別GNP를 經濟活動人口를 나눈 것이며 寄与率은 生産性增加率을 經濟活動人口構成比로 加重한 成長率이다.

우리는 産業別生産性の 成長寄与率을 보면 農林漁業이 1.22%포인트, 鎡工業이 1.31%포인트, 其他部門은 -0.11%포인트이므로 이를 合하면 2.42%포인트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全体의 勞働人口增加率 3%를 이에 合하면 불과 5.42%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成長寄与率을 勞働人口로 加算했기 때문이므로 勞働人口增加率을 産業別로 分析해 보면 鎡工業의 總成長寄与率이 더욱 커지게됨을 알 수 있다.

〈表 10〉 北韓の 産業別生産性と 成長寄与率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6	61~70 平均
農林漁業											
G N P	956.6	971.1	1,138.8	1,178.9	1,243.5	1,304.4	1,378.1	1,457.8	1,544.8	1,619.4	
就業人口	1,953	2,063	2,178	2,300	2,430	2,457	2,484	2,511	2,539	2,569	
生産性	489.8	470.7	522.9	512.6	511.7	530.9	554.8	580.5	608.4	630.4	
同増加率	-3.56	-3.09	11.09	-1.97	-0.18	3.75	4.50	4.63	4.81	3.62	2.28
成長寄与率	-2.06	-2.24	6.35	-1.08	-0.1	2.07	2.44	2.47	2.51	1.86	1.22
鉱工業											
G N P	1,585.9	1,773.2	1,908.9	2,292.8	2,624.7	2,786.8	3,289.6	3,185.1	3,763.5	4,267.5	
就業人口	725	790	854	857	911	965	1,021	1,080	1,141	1,215	
生産性	2,187.4	2,244.5	2,235.3	2,675.3	2,881.1	2,887.8	3,221.9	2,949.2	3,298.4	3,512.3	
同増加率	9.02	2.61	-0.41	19.68	7.69	0.23	11.57	8.46	11.84	6.48	6.03
成長寄与率	1.93	0.57	-0.09	4.03	1.62	0.05	2.58	1.94	2.78	1.57	1.31
其他部門											
G N P	984.7	1,073.3	1,106.1	1,201.4	1,229.1	1,220.7	1,314.2	1,367.9	1,499.1	1,616.9	
就業人口	704	737	765	1,033	975	1,023	1,073	1,124	1,176	1,218	
生産性	1,399.8	1,456.3	1,445.9	1,163.0	1,260.6	1,193.2	1,224.8	1,217.0	1,274.7	1,327.5	
同増加率	-6.23	4.11	-0.71	-19.57	8.39	-5.35	2.65	-0.64	4.74	4.14	0.85
成長寄与率	-1.28	0.85	-0.14	-3.95	2.07	-1.21	0.62	-0.15	1.08	1.01	-0.11

註 1) GNP는 百万北韓원, 就業人口는 千人, 生産性은 千北韓원임.

<表 11> 北韓의 生産性과 労働人口의 成長寄与率

	生産性成長寄与率			労働人口增加率		
	農林業	鎡工業	其他	農林業	鎡工業	其他
1961	-2.06	1.93	-1.28	5.57	3.72	6.34
1962	-2.24	0.57	0.85	5.63	8.97	4.69
1963	6.35	-0.09	-0.14	5.57	8.10	3.80
1964	-1.08	4.03	-3.95	5.60	0.35	35.03 ¹⁾
1965	-0.1	1.62	2.07	5.65	6.30	-5.61
1966	2.07	0.05	-1.21	1.11	5.92	4.92
1967	2.44	2.58	0.62	0.10	5.80	4.89
1968	2.47	-1.94	-0.15	1.09	5.78	4.75
1969	2.51	2.78	1.08	1.11	5.65	4.62
1970	1.86	1.57	1.01	1.18	6.49	3.57
61~ 70 平均	1.22	1.31	0.11	2.80	5.13	3.01

6.44%포인트로 매우 높으며 農漁業이 4.02%포인트, 其他部門이 2.9%포인트로 이를 합하면 13.09%의 成長率로 計算되게 된다.

나. 南北韓의 要素要因別 成長潛在力의 評價

(1) 勞動投入과 成長寄与率

勞動人口增加率은 앞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北韓의 경우 1965年 以後에는 年3%로 推定되고 總人口增加率은 1970年以後 2.4%로 推定하고 있다.

그런데 北韓에 있어서 勞動人口의 增加率이 純전히 經濟成長에 얼마만큼 寄与할 것인가를 推定하는 것은 미지수이다. 앞의 項에서 分析한 勞動生産性은 資本 및 技術增加가 包含된 것이므로 여기에서 資本 및 技術增加에 의한 것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北韓의 勞動增加率 1%의 成長寄与率으로써의 反映이 南韓과 같다면 3%의 勞動增加率의 成長寄与率은 約2%포인트의 成長寄与率을 보일 것으로 보며 앞으로는 그 成長寄与率이 더욱 높아져서 韓國의 77~91年の 成長寄与率과 같다면 2.6%포인트가 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南北韓의 經濟構造의 차이로 인하여 그와같은 成長寄与率을 적용시킬 수 없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차 南北韓이 統一되어 韓國의 體制대로 成長한다면 2.6%포인트의 成長寄与率을 적용시키는데에 큰 問題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北韓의 體制대로 成長한다고 가정하려면 現在의 北韓의 勞動力의 成長寄与率이 얼마인가를 推算해야 할 것이다.

데니슨方式의 要素別 成長要因分析에 있어서는 勞動投入의 增加要因에는 就業者 즉 勞動參加者數의 增加率과 그 成長寄与率外에 勞動時間과 勞動의 質의 變化를 들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는 勞動

時間이 67~76年의 期間에 0.5%의 增加率을 보였고 勞動의 質도 마찬가지로 0.5%의 增加率을 보였으며, 이는 그대로 成長寄与率로 反映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77~91年의 期間에는 勞動時間은 1.2%씩 減少하고 成長寄与率은 1.0%의 減少로 予測하였고 勞動의 質은 繼續해서 0.6%의 增加率과 0.5%의 寄与率로 表示되고 있다.

北韓에 있어서는 이 部門의 予測은 매우 곤란하다. 이를 推計할 資料가 없음은 勿論이나, 그보다도 勞動의 質과 勞動時間등은 供給의 側面뿐 아니라 需要의 側面に 依存되는데 市場經濟가 없는 共產社會에서 需要에 의하여 派生되는 要素供給의 增加를 推定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韓國의 경우 就業者의 增加率도 勞動人口增加率뿐 아니라 勞動需要에 따른 失業減少率도 包含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北韓社會와 다른 點이다. 그러나 勞動力供給의 增加率은 어쨌든 北韓社會에 있어서는 勞動人口의 增加率로 看做할 수 있으며, 그의 成長寄与率은 北韓의 GNP規模가 韓國보다 적으며 따라서 相對的인 勞動1單位의 增加에 의한 成長寄与率이 韓國과 거의 같다고 結論 짓고 싶다 註 7)

勞動時間의 增加率은 失業의 減少率과 相對적으로 關聯지을 수 있다. 勞動需要에 비하여 勞動供給이 초과되어 失業率이 높을 때에는 勞動時間도 相對적으로 不足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潛在失業의 減少率과 같은 概念으로 把握할 수 있다. 潛在失業은 두가

지 側面에서 勞動投入量을 變化시킨다. 첫째는 農村에서 年間 繼續해서 農業生産에 參加하지 못하고 상당한 期間의 農閑期에는 季節的失業狀態에 있는 경우를 들수 있으며, 둘째는 就業機會의 不足으로 高級人力이 單純勞動에 종사함으로써 質的인 面에서의 投入量의 減少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동안 工業化에 의하여 農業人口가 工業部門에 吸收됨으로써 季節的失業의 潛在的人口가 적어졌을 뿐 아니라 農業人口조차도 새마을運動以後 各種의 農家副業으로 季節的失業의 期間이 단축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高級人力의 需要가 急激히 增加됨으로써 質的인 意味의 潛在失業은 急激히 감소되었고, 最近에는 오히려 高級人力일수록 需要에 비해 供給이 不足해지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勞動의 質的改善에 의한 投入增加率は 需要側보다도 供給側에서 얼마나 人力開發에 의한 質的改善이 可能한가에 依存된다고 말할 수 있다.

킬링스워드 (C.C.Killingsworth)는 1967年 上院의 雇傭 및 人力開發委員會의 証言에서 産業構造의 變化에 따라 既存의 勞動供給과는 質的으로 새로운 高級의 勞動需要가 생기기 때문에 한편으로 高級人力은 供給不足의 gap이 생기고 既存人力은 需要減少에 따른 構造的失業 (structural unemployment)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현상을 77~91年の 韓國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韓社会에 있어서는 市場經濟가 없으므로 勞動의 需要를 測定할 수 없으며 오직 計劃当局의 計劃에 따라 供給의 質的變化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決定할 것이다. 北韓社会에 있어서는 失業率의 概念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勞動時間의 變化는 考慮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勞動의 質的變化는 共產社会에 있어서도 後進社会에서 先進社会로 移行됨에 따라 先進技術의 導入 등에 의하여 質的인 變化가 可能하다고 생각한다.

統一後에는 韓國의 경우 就業人口 約 6 百万名 (1976 年) 의 10%에 해당되는 軍인과 北韓의 경우 經濟活動人口 550 万名の 約 10%에 해당되는 軍인들의 상당수가 勞動人口로 参与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勞動參加者の 年增加率は 統一前의 경우 3.0%이었으나, 統一後에는 그보다 10%가 더 늘어난 3.3%의 增加率로 推算하였다.

한편 勞動의 質에 있어서는 北韓의 경우 技術水準 등의 차이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利潤原理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質的改善에 대한 意慾이 적을 것이므로 韓國의 折半으로 推定하였다. 強制力에 의한 統制經濟는 量的統制는 可能할지 모르나 質的改善을 促進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統一後에는 資本主義的經濟體制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北韓의 勞動力도 南韓과 마찬가지로 質的改善이 可能할 것으로 推定되며, 이와 반대로 社會主義體制를 적용시키면 勞動의 質은 現在의 北韓과 마찬가지로 低下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具體的인

資料를 活用할 수 없으므로 現在 KDI가 推計한 韓國의 勞動의 質的增加率과 成長寄与率에 比하여 韓國式의 統一의 경우에는 增加率이 50%가 더 커지고 北韓式의 統一의 경우에는 50%가 鈍化되는 것으로 假定하여 成長寄与率을 推定하겠다.

勞動投入寄与率의 推計에 대한 各國의 資料를 比較하고 앞의 假定에 따른 南北韓 및 統合後의 寄与率을 比較하면 <表 13>과

<表 12> 勞動投入의 成長寄与率

		国民所得 增加率(A)	就業者 数(B)	勞動時 間(C)	勞動의 質(D)	B -(%) A	C -(%) A	D -(%) A
韓 国	1966-76	9.7	2.9	0.5	0.5	29.9	5.2	5.2
	1977-91	9.5	2.8	-1.0	0.5	29.5	-10.5	5.3
日 本	1953-71	8.81	1.16	0.21	0.48	13.2	2.4	5.4
美 国	1948-69	4.00	1.20	-0.21	0.31	30.0	-5.0	7.8
카나다	1950-67	4.95	1.82	-0.20	0.23	36.8	-4.0	4.6
英 国	1950-62	2.38	0.50	-0.15	0.25	21.0	-6.3	10.5
프랑스	1950-62	4.70	0.08	-0.02	0.39	1.7	-0.4	8.2
西 独	1950-62	5.27	1.49	-0.27	0.15	23.8	-4.3	2.4
이탈리	1950-62	5.60	0.42	0.05	0.49	7.5	0.9	8.8
화 란	1950-62	4.07	0.78	-0.16	0.25	19.2	-3.9	6.1

<表 13> 南北韓 및 統合後의 勞動投入의 成長寄与率

	北業者數		勞動의 質		勞動投入	
	增加率	寄与率	增加率	寄与率	增加率	寄与率
韓國 (1977~91)	3.0	2.6	0.6	0.5	—	3.1
北韓 (1977~86)	3.0	2.6 ¹⁾	0.3	0.3 ³⁾	—	3.9
統一後 (A)	3.3 ²⁾	2.9 ²⁾	0.6	0.5	—	3.4
(B)	3.3 ²⁾	2.9 ²⁾	0.3	0.3	—	3.2

1) 勞動人口增加率이 南韓과 같으므로 寄与率도 같다고 假定 하였음. 勞動의 weight가 南韓보다 다소 크게 反映되고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음.

2) 軍人力의 經濟部門轉換을 10% 감안하였음.

3) 南韓의 50% 反映하였음.

같다. 勿論 北韓과 統合後의 勞動投入의 要素別寄与率을 假定한다는 것은 計量的으로는 容認될 수 없으나 어디까지나 論理的假定에 의해 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와같이 假定한 것이다.

(2) 資本投入과 成長寄与率

KDI의 推計에 의하면 韓國은 1966~76년에 있어서 總 資本增加率은 9.7%이며 그 成長寄与率은 2.1%포인트로 推定하였다. 이와 같은 資本의 成長寄与率은 國際적으로 比較하면 1953~71년에 있어서의 日本과 同率이며 다른 主要國家들보다 높다.

그것은 開發途上國이기 때문에 資本의 投資需要가 旺盛하여 다른 主要國家들보다 높은 投資率을 形成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KDI는 앞으로 77~91년의 期間中에는 總資本投入의 增加率이 12.2%로 높아지고 成長寄与率도 3.1%포인트로 增加될 것으로 推計하였다.

1966~76년의 成長寄与率 2.1%포인트는 資本增加率 9.7%의 21.6%이며, 77~91년의 成長寄与率 3.1%포인트는 資本增加率 12.2%의 25.4%이다. 이와 같이 資本增加率의 成長에 대한 反映度는 대체로 投資의 GNP에 대한 比率과 비슷하다. 즉, 投資率만큼의 加重量이 成長寄与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正確히 投資率과 比較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다. 1967~76년의 平均投資率은 26.2%인데 成長寄与率에 대한 資本增加率의 加重量은 21.6%이므로 실제 投資率에 비하여 82.4%가 反映된 셈이다.

中央情報部の 資料에 의하면 北韓의 投資增加率은 1961~70년의 期間에는 13.0%이고 投資率이 22.7%이므로 成長寄与率의 加重量을 投資率과 같다면 2.95%포인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投資率의 82.4%를 加重하면 2.43%포인트가 된다.

앞의 表에서 1960年代의 投資率은 上半期보다도 下半期가 급속한 增加率을 기록하였으므로 1966~70년의 5年間만 平均하면 投資率이 26.3%, 投資의 年平均增加率이 17.1%로써 더욱 높다. 이를 감안하면 70年代에도 投資率이 繼續 늘어날 것으로 推定할 수 있으나, 崔周煥氏가 推計한 74~76년의 3年間の 投資率을 보면 1974

<表 14> 北韓의 投資의 變化

(單位：百萬北韓元)

	投資額	對GNP比率	對前年增加率
1960	687.25	21.1 (%)	- (%)
1961	720.51	20.4	4.84
1962	691.25	18.1	- 4.06
1963	773.69	18.6	11.93
1964	852.69	18.3	10.24
1965	1,037.10	20.3	21.60
1966	1,122.48	21.1	8.23
1967	1,342.30	22.4	19.58
1968	1,870.11	28.2	39.40
1969	2,056.05	30.2	9.88
1970	2,230.45	29.7	8.48
61~70		22.7	13.0
66~70		26.3	17.1

년에는 27.1%, 75년에는 22.8%, 76년에는 25.1%이며 投資의 增加率は 75년에 8.3%, 76년에 9.1%로써 더욱 적어졌다.

이는 70年代에 北韓의 投資財源調達이 크게 制限되었고 특히 70年代부터 投資財源의 一部를 外債에 依存하였으나 이는 곧 對外公信力の 惡化로 인해 밖에 부담함으로써 74年을 고비로 75,

76년에는 外債依存이 급격히 減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表 15>와 같이 人民經濟費의 增加率は 1968~76年間 年平均 16.6%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의 對GNP比率은 44.6%의 상당한 높은 比率이다. 이는 70年代부터 人民經濟費中에 軍事費의 一部를 은폐계상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1967~71년까지 軍事費가 年平均 31.3%를 차지하던 것이 72~76년에는 갑자기 16.2%로 半減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崔周煥氏의 調整方式에 따르면 人民經濟費中에서 國家基本建設費를 固定投資額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1966~70년에 平均 59%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表 15> 人民經濟費의 增加率

單位：百萬北韓元

	人民經濟費	對 GNP 比率	增加率
1967	1,997.80	40.0	
1968	2,353.50	39.4	17.8
1969	2,411.93	38.3	2.5
1970	3,001.35	41.1	24.4
1971	3,024.80	32.4	7.8
1972	4,233.67	49.8	39.9
1973	4,869.44	50.8	15.0
1974	5,580.85	49.6	14.6
1975	6,593.14	51.6	18.1
1976	7,210.42	52.9	9.4
平均		44.6	16.6

이 比率을 적용한다면 67~70年의 投資率은 $44.6\% \times 0.59 = 26.3\%$ 라고 간단히 調整할 수 있으며 이는 우연히도 66~70年의 平均投資率과 같은 水準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北韓의 資本投入의 成長容与度를 推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調整하고 싶다. 첫째로 資本增加率은 15%内外로 보고 投資率은 25~30%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이것은 사실상 韓國의 경우보다 높게 評價된 水準이다. 韓國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投資財源의 一部를 海外貯蓄에 依存할 수 있었으나 北韓은 그렇지 못하므로 投資財源의 조달에 限界性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韓의 国内貯蓄率(蓄積率)은 68~70年과 같은 경우에는 27.1%의 높은 水準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62~70年의 期間을 加重平均하면 22.5%의 貯蓄率으로써 全期間中에 있어서도 韓國보다는 높지만 投資率을 比較하면 全期間中 韓國의 26.5%보다 떨어진다.

表에서도 알 수 있듯 北韓經濟는 모든 生産手段이 社会化되어 있으므로 民間貯蓄은 없다. 中央政府는 所得分配에 直接 干涉하고 있기 때문에 複雜한 租稅制度가 없이 可用資源의 大部分을 直接 財政部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投資財源의 大部分이 財政部門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住民生活이야 아무리 低水準이더라도 貯蓄率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投資率에 있어서는 年度의 차이는 있으나 韓國의 경우보다 낮으며, 그 理由는 海外貯

〈表 16〉 南北韓의 投資財源

(單位：%)

韓 国 ¹⁾	1962~66	67~71	72~76
投資率	17.3	26.6	26.4
國民貯蓄率	8.0	15.1	19.6
民間	6.8	9.0	14.7
政府	1.2	6.1	4.4
海外貯蓄率	8.3	10.6	6.9
北 韓	1960~61	62~67	68~70
投資率	20.8	19.8	29.4
蓄積率	20.0	19.8	27.1
財政部門	16.3	16.1	23.4
國營企業 ²⁾	3.7	3.7	3.7
海外貯蓄	0.8	—	2.3

註 1) 韓國의 投資率과 貯蓄率의 合計가 一致하지 않는 年度는 統計上 不一致에 의한 것임.

2) 輸出入差(入超)만을 包含하였음.

資料：北韓側：中央情報部推定

蓄依存率이 거의 미미한 까닭이다.

그러나 70年代에는 北韓의 海外借入比率이 增加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그것은 貿易収支의 赤字率에 의하여 推定할 수 있다. 70年

代の 北韓의 貿易収支赤字는 <表 17>와 같이 1971~76 年에 있어 GNP에 대해 4.4%에 이르고 있으며, 대체로 71年부터는 年度別로 起伏이 심하지만 貿易赤字만큼의 海外貯蓄率을 形成하였다

<表 17> 北韓의 貿易収支赤字

(單位：百萬美弗)

	輸 出	輸 入	赤 字 (A)	GNP(B)	$\frac{A}{B}$ (%)
1971	386	443	57	3,460	1.6
1972	452	516	64	3,750	1.7
1973	529	601	72	4,450	1.6
1974	550	1,150	600	4,820	12.0
1975	520	930	410	5,380	7.6
1976	660	830	170	5,810	2.9
71~76 平均					4.6

고 볼수 있다. 그러나 表에서 알수 있듯 1974 年에 貿易赤字率이 12.0%로 크게 늘었다가 75年과 76年에는 다시 7.6%, 2.9%로 크게 減少되고 있으며 이는 北韓이 外債에 대한 元利金償還의 不履行등으로 對外公信力이 低下됨으로써 借入이 어려워진 까닭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北韓의 海外貯蓄依存率은 크게 期待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韓國의 경우도 장차에는 海外貯蓄依存이 없어질 뿐 아니라 오히

러 元利金償還때문에 負의 海外貯蓄으로 轉換될 것이다. 그러면 서도 投資率은 1977~81년에 27.4%, 82~86년에 29.2%의 높은 比率을 考慮하고 있어 国内貯蓄率을 적어도 30%内外에 이를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北韓의 投資率이 25%以上の 水準으로 보더라도 크게 無理할 것은 없을 것 같다.

만일 北韓의 限界資本係數를 2.5로 본다면 成長率은 年10%라고 간단히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各要素의 成長寄与率을 推定하는가, 더욱이 資料도 不充分한데 그와 같은 推定을 하는 것은 無理한 것이 아닌가 하는 反問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限界資本係數가 간단히 2.5라고 假定하는 것이 더욱 無理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要因을 檢討해 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韓國의 경우 과거에 限界資本係數는 대체로 2.7 정도이었으나 앞으로는 1977~81년에는 2.97, 1982~86년에는 3.21로 繼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重化学工業의 比重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北韓은 60年代의 第1次7個年計劃때 부터 重工業爲主의 工業化를 추구하였으므로 韓國보다 다른 사정이 같다면 限界資本係數는 높았어야 한다.

둘째로 北韓의 成長寄与率을 앞에서 1961~70년에는 2.4로 보았는데 만일 資本增加率이 韓國과 같은 12.2%이고 投資의 反映率이 25.4%라면 3.1%포인트가 될 것이나 우선 70年代以後의 北韓의 資本投入增加率은 初期에는 外債에 의해 높아질

수 있었으나 後期에는 外債調達이 어려워짐에 따라 鈍化될 것으로 보이므로 韓國보다 資本增加率이 높아지리라고 假定할 수는 없다.

그러나 北韓의 GNP가 南韓보다 적기 때문에 GNP에 대한 投資의 比率은 韓國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資本投入의 成長寄与率은 대체로 韓國과 같다고 推定할 수 있다.

統一後에는 南北韓의 雙方이 막대한 軍事費負擔이 경감되고 이것이 投資財源으로 轉換되면 投資추과 投資增加率이 다같이 增大될 것으로 推定된다. 1976年 現在 韓國의 軍事費負擔率은 5.3%, 北韓은 14.9%인데 이를 南北韓을 合計하여 比率로 환산하면 7.1%에 該當된다. 따라서 만일 統一後에는 GNP에 대한 軍事費負擔率을 5% 정도의 水準으로 維持한다면 2.1%포인트의 投資率 增加가 可能하며 이를 投資增加率의 比重으로 加重하면 成長寄与率을 0.3%포인트를 增加시킬 수 있다. 만일 統一後 軍事費比率을 3% 정도로 한다면 4.1%포인트의 投資率增加가 可能하며 0.5%포인트의 成長寄与率增加가 可能하다. 이를 감안하면 統一後 資本投入의 成長寄与率은 3.6포인트로 늘어난다고 볼수 있다.

한편 統一後에는 北韓의 埋藏된 地下資源을 開發하여 工業用原料로 使用할 수 있으므로 固定資本의 形成을 促進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埋藏된 資源이 곧 可用資源이 아니므로 資源開發을 擴大시킴으로써 實物投資를 增大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産業別 成長潛在力을 考察할 때에 다시 檢討하겠다.

資本投入의 成長寄与率을 綜合하고 國際적으로 比較하면 <表 18 >

과 같다.

<表 18> 資本投入의 成長寄与率

(單位：%)

	1966~76 實 績	1977~91 展 望	北韓(推定)	統 一 後	
				韓日式成長	北韓式成長
增 加 率	9.7	12.2	12.0	13.8	13.6
投 資 率	26.2	29.2	25.0	26.0	25.0
成長寄与率	2.1	3.1	3.0	3.6 ¹⁾	3.5 ²⁾

1) $3.1 + 0.5 = 3.6\%$

2) $3.0 + 0.5 = 3.5$

<表 19> 主要國의 資本投入의 成長寄与率

(單位：%)

	成 長 率 (A)	成長寄与率 (B)	B -(%) A
韓 國 (66~71)	9.7	2.1	21.6
(77~91)	9.5	3.1	32.6
北 韓		3.1	
日 本 1953~71	8.81	2.10	23.8
美 國 1948~69	4.00	0.79	19.7
카나다 1950~67	4.95	1.14	23.0
英 國 1950~62	2.38	0.51	21.4

	成 長 率 (A)	成長寄与率 (B)	$\frac{B}{A}$ (%)
프랑스 1950 ~ 62	4.70	0.79	16.8
西 独 1950 ~ 62	6.27	1.41	22.5
이탈리 1950 ~ 62	5.60	0.70	12.5
화 란 1950 ~ 62	4.07	1.04	25.6

(3) 生産性向上의 成長寄与率

生産性向上은 資本主義先進國의 成長寄与率 가운데 가장 比重이 크다.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38.1%로 다른 나라들 보다 적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70% 이상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나라들도 資源豐富한 美國과 캐나다를 除外하고는 모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美國과 캐나다도 다른 要因보다 生産性의 成長寄与度가 가장 큰 것은 틀림없다.

그동안 韓國의 生産性은 1966 ~ 76 年에 年平均 3.9% 向上되어 成長에는 3.7% 포인트의 寄与率을 보였으며 勞動投入의 寄与率 3.9%에 다음 가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77 ~ 91 年에는 生産性 즉 要素單位當生産의 增加率은 4.6% 포인트로써 國民所得 成長率 9.5%의 43.2%를 占하면서 가장 큰 寄与率의 比重을 차지하게 될 것 같다. 그만큼 韓國經濟의 要素別成長要因도 先進國의 類型에 接近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生産性向上의 要因은 다시 세가지로 区分되는데 資源再分配에 의

<表 20> 主要国の生産性向上の成長寄与率

	GNP 成長率 (A)	生産性寄与率 (B)	B - (%) A
韓 国 1966 ~ 76	9.7	3.7	38.1
日 本 1953 ~ 71	8.81	4.86	55.2
美 国 1948 ~ 69	4.00	1.92	47.75
카나다 1950 ~ 67	4.95	1.96	39.60
英 国 1950 ~ 62	2.38	1.27	53.36
프랑스 1950 ~ 62	4.70	3.46	73.62
西 独 1950 ~ 62	6.27	3.49	55.66
이탈리 1950 ~ 62	5.60	3.94	70.36
화 란 1950 ~ 62	4.07	2.19	53.81

한 것과 經濟規模의 拡大에 따른 大規模生産의 利益에 의한 것과 技術進歩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1967 ~ 76 年の 期間에는 農業勞動의 減少, 즉 工業化에 따른 勞動生産性の 增加가 0.7% 自營業主의 減少 즉 企業化에 따른 生産性の 向上이 0.1%로 도 합 0.8%이다. 規模의 經濟의 利益은 經濟規模의 拡大에 따른 生産性向上이 1.4%, 消費構造의 變化에 따른 生産性向上이 1.1%로써 2.5%이며 순수한 技術進歩가 0.6%이다.

1977 ~ 91 년에 있어서는 資源再配分効果는 과거보다 약간 높은

0.9%포인트의 寄与가 予想되고 있는데 이는 流通構造의 改善과 輸送部門의 近代化로 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대로 高度 成長에 따른 規模의 經濟의 利益은 過去보다 다소 낮은 2.0%포인트로 推定하였고 技術進歩의 寄与率은 過去の 2배나 되는 1.2%포인트로 予測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技術進歩寄与率은 過去の 日本,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実績에 비하면 相對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고 KDI는 스스로 評價하였다.

北韓에 있어서는 資源再配分面에 있어서는 農業勞動力의 相對的減少率이 1972년에 있어서 1963년에 비해 13.6%이며 이는 韓國의 같은 期間의 20.1%보다는 다소 적다. 이에 비하면 工業部門의 相對的增加率은 北韓은 1963~72년에 있어 13.8%이며 이는 같은 期間에 韓國의 65.1%나 되는 엄청난 增加率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그러나 1972年度의 産業別人口構成比는 <表 21>과 같이 北韓의 農業部門은 49.5%로써 韓國의 50.6%보다 약간이나마 低率이며 工業部門은 北韓이 25.6%로써 韓國의 14.2%보다 越等히 높다. 따라서 就業人口構成比에 있어서는 北韓의 工業人口比率이 南韓보다 높은 편이나 一定期間의 工業人口增加率은 南韓이 월등히 높다. 따라서 産業人口의 再配分에 의한 成長寄与率은 北韓이 韓國보다 低率일 수 밖에 없다.

北韓에 있어서는 産業部門의 人口移動 즉 低生産性 産業으로부터 高生産性 産業으로의 人口移動에 따른 成長寄与率은 韓國에 비해

<表 21> 南北韓의 産業別就業構成

(單位: %)

	農林水産業		鎂工業		社会間接資本및其他	
	年增加率	構成比	年增加率	構成比	年增加率	構成比
韓國						
1967		55.2		12.8		32.0
1972		50.6		14.2		35.2
1976		48.2		17.8		34.0
67~76	1.4		11.6		4.8	
北韓						
1967		54.3		23.3		23.4
1972		49.5		25.6		24.9
63~72	2.5		5.6		4.5	

대체로 1/2 정도에 불과하다고 假定하면 資源再配分效果는 0.5% 포인트 정도로 推計하면 좋을 것 같다.

1976年 現在 全人口에 대한 農業人口의 比重은 南韓이 38.2% 인데 北韓은 42.5%로써 北韓이 오히려 4.3%포인트가 더 높다.

重工業比率이 높은 北韓의 非農業人口가 南韓보다 높은 것은 工業人口보다도 서비스部門의 人口가 적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對比 가능한 1972年의 産業別 就業人口 構成을 보더라도 北韓의 其他 産業部門 및 非生産部擲의 人口는 24.9%로써 南韓의 社会間接資

本 및 서비스部門의 35.2%보다 10.1%포인트나 적다. 특히南韓의 産業 및 서비스部門의 就業者構成比는 20.0%인데北韓의 非生産部門은 14.4%로써 5.6%포인트의 隔差를 보이고 있다.

KDI에서는 韓國에 있어서 1967~76年の 期間中 自營業主의 減少로 인한 生産性向上의 成長寄与率을 0.1%포인트, 77~91년에는 0.3%포인트로 보고 있으나北韓에는 이에 該當되는 部門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統一後에는 就業人口의 構成에 있어서 農業部門이 더욱 減少되고 그대신 社会間接資本 및 輸送部門의 就業者構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資源配分面에서는北韓의 輸送構造를 획기적으로 改善하여 生産性增大效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잘 아는 바와 같이北韓의 輸送은 地形的인 与件으로 인하여 輸送手段의 선정 및 發展에 隘路가 크다. 狼林山脈을 中心으로 經濟圈이 東西로 分離되어 있는北韓은 韓半島의 分断으로 인해 종전에는 中央部인 서울을 中心으로 連結되어 있던 輸送体系가 무너짐으로써 커다란 打撃을 받았다. 그러므로北韓은 輸送体系의 再確立을 위해 東西輸送網의 隔離現象을 해소하기 위한 努力에 集中하였으나 自然的 与件을 克服하지 못하여 아직도 커다란 성과를 挙우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自然的条件 때문에 鐵道輸送에 主로 依存하고 있는 것이北韓의 輸送体系의 特徵이다. 1960年에 鐵道 93%, 道路 5.6%, 水道 1.4%를 차지하던 輸送分担率이 72년에는 鐵道가 90.7%로 약간 減少되었을 뿐이다. 이것

은 南韓의 경우 国内貨物輸送에 있어 鐵道가 1961년에는 90.8% 이었으나 71년에는 49.6%로 大幅減少되고 76년에는 49.5%로 약간더 減少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南韓은 公路는 61년의 8.4%에서 71년에는 30.9%, 海運은 0.8%에서 29.5%로 크게 늘어나 鐵道보다 公路와 海運으로 輸送體系가 이행되고 있으며 76년에는 公路와 海運도 71年보다 減少되고 空輸가 增加된 것이다.

이와 같은 現實에 비추어 統一後에는 輸送體系의 改善으로 인한 資源의 效率配分의 效果가 커질 것으로 期待된다. 이로 인한 成長寄与率을 얼마나될지 推定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1~2%포인트는 可能할 것이라고 假定해도 크게 잘못된 아닐 것 같다.

統一後의 資源再配分에 의한 生産性增大效果는 이밖에도 鉍工業 및 電力資源의 再配分에 따른 寄与率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推定된다. 먼저 에너지部門을 考察하면 1976年 現在 南北韓의 에너지源別構成比가 <表 22>과 같이 南韓은 油類依存이 56.3%이나 北韓은 石炭에 72.9%를 依存하고 있으며 앞으로 韓國은 점차 原子力依存의 比重이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統一後에는 燃料源別에 에너지供給의 選別可能性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즉 어느 한 燃料源에 偏重되지 않으므로 에너지費用의 절감과 따라서 生産性的의 向上이 可能해질 것으로 推定된다.

다음에는 經濟成長에 따른 規模의 經濟의 利益을 들수 있는데 KDI의 推計에 의하면 韓國이 67~76年の 実績은 同增加率이 2.4%, 成長寄与率이 2.3%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77

〈表 22〉 南北韓의 에너지源別構成

	韓 國		北 韓	
	千 噸	構成比(%)	千 噸	構成比(%)
石 炭	16,420	32.0	35,200	72.9
石 油 処 理	18,320	56.3	1,000	8.7
発 電 施 設	4,810 (千kw)	—	4,644	—
発 電 量	231 (億kwh)	1.5	213	11.7
薪 炭	6,225	10.3	3,000	6.7

~91年の 展望은 増加率이 2.2%, 成長寄与率이 2.0%포인트이다.

이와 같은 規模經濟는 消費構造의 變化와 經濟規模의 拡大등 두 가지에 北韓에 있어서는 價格構造에 의한 需要의 變化를 予想할 수 없으므로 消費構造의 變化의 成長寄与率은 생각할 수 없으며 經濟規模의 拡大에 따른 成長寄与率은 GNP의 成長率이 南韓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전제하면 거의 같은 水準의 増加率과 成長寄与率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다.

技術進歩는 KDI의 推計에 의하면 1977~91년에 1.2%포인트의 成長寄与率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과 같이 生産性向上은 두개의 重要な 點을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로 勞動生産性과 資本生産性을 合한 要素單位當 生産性이기 때문에 그 増加率은 거의 그대로 成長寄与率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國民所得	生産性	産業間	規模의	技術進歩
9.7	3.7 (38.1)	0.8 (8.2)	2.2 (22.7)	0.7 (7.2)
9.5	4.1 (43.2)	0.9 (9.5)	2.0 (21.0)	1.2 (12.6)
8.81	4.86(55.2)	0.95(10.7)	1.94(22.0)	1.97(22.4)
4.00	1.91(47.8)	0.30(7.5)	0.42(10.5)	1.19(29.8)
4.95	1.90(39.6)	0.64(12.9)	0.66(13.3)	0.66(13.3)
2.38	1.22(53.3)	0.12(5.0)	0.36(15.1)	0.79(33.2)
4.70	3.46(73.6)	0.95(20.2)	1.00(21.2)	1.51(32.1)
6.27	3.45(55.7)	1.01(16.1)	1.61(25.7)	0.87(13.9)
5.60	3.94(70.4)	1.42(25.3)	1.22(21.8)	1.30(23.2)
4.07	2.19(53.8)	0.63(15.4)	0.78(19.2)	0.78(19.2)

(單位：%)

<表 23 > 主要國의 生産性의 成長寄与率

理論上으로는 生産性增加率은 100% 故로 成長寄与率이 되어야 하는데 GNP에는 財貨의 附加價值 뿐 아니라 서비스部門도 包含되고 있기 때문에 100%보다는 약간 차이가 지는 成長寄与率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生産性增加率이 단순한 要素投入의 增加率에 대한 成長寄与率보다 그 比重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으며 <表 23> 와 같이 先進國의 경우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4) 供給側

一 要約

지금까지 우리는 項目別로 生産要素別 投入增加率과 生産性 增加率을 分析하고 그 成長潛在力을 比較하였다. 韓國의 計數는 全的으로 KDI의 分析結果이며, 北韓側의 計數와 統一後의 計數는 各各 몇가지의 原則에 立脚하여 작성하였다.

첫째로 勞動 및 資本의 投入增加率은 各種의 計數에 의해 推定 이 可能하였다. 勞動人口의 增加率은 北韓에 있어서도 年 3%이며 이는 KDI가 推計한 南韓의 增加率과 公교롭게 一致하였다. 따라서 統一後에도 勞動人口 增加率이 같아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軍人力의 勞動人口 轉換에 의해 年間 3%의 10%가 더 늘어난다는 것으로 보아 3.3%로 推定하였다.

要素增加率의 成長率은 GNP에 대한 要素投入의 加重價와 關聯되는데, 내재적으로 그 加重價는 南北韓이 같다고 보았다. 資本投入의 增加率은 北韓의 경우 과거의 추정치에 의하여 測定 이 可能했으며 그 加重價는 대체로 GNP에 대한 投資率으로써 적용 시켰다. 統一後에는 國防費의 經濟投資轉換에 의하여 韓國에 비해 4.1%포인트가 增加될 것으로 推定했고 GNP에 대한 投資率의 차이에 따라 A案의 成長率과 B案보다 약간 높다.

生産性의 增加 및 寄與率이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되는데 經濟規模의 擴大와 技術進步의 增加率 및 成長率은 南北韓이 같다 고 보았고 따라서 統一後에도 같다고 생각하였다. 資源再分配은

現在의 北韓의 産業構造 및 企業化에 따른 生産性 增加의 余力은 적으므로 南韓의 折半으로 보았고 統一後에는 地理條件 및 資源利用 등에 의해 A案은 韓國보다 0.3 포인트, B案은 北韓보다 0.3 포인트 높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不變價格을 전제로 한 GNP의 成長率은 韓國은 年10.5%, 北韓은 年8.8%, 統一後에는 A案은 年11.9%, B案은 年9.7%의 成長이 可能할 것으로 推計하였다.

<表 24> 成長要因別 實質成長率의 展望

	韓 國		北 韓		A 案		B 案	
	要素 增加率	成長 寄与率	要素 增加率	成長 增加率	要素 增加率	成長 增加率	要素 增加率	成分 增加率
勞動 (N)		3.1		2.9		3.4		3.1
勞動增加	3.0	2.6	3.0	2.6	3.3	2.9	3.3	2.9
勞動의質	0.6	0.5	0.3	0.3	0.6	0.5	0.3	0.3
資本 (K)	12.2	3.1	12.0	3.0	13.8	3.6	13.5	3.4
生産性 (t)		4.3		2.2		5.6		3.2
資源再配分	1.0	0.9	0.5	0.4	1.4	1.3	0.8	0.7
經濟規模의 擴大	1.3	1.2	1.0	0.9	2.0	1.8	1.7	1.5
消費構造의 變化	1.1	1.0	—	—	1.4	1.3	—	—
技術進步	1.3	1.2	1.0	0.9	1.3	1.2	1.1	1.0
合計 (GNP成長)		10.5		8.1		12.6		9.6

3. 弗貨表示 GNP의 成長展望

가. 弗貨表示成長率의 推定

南北韓의 GNP는 弗貨表示에 의하여 對比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南北韓의 弗貨表示GNP에 있어서도 對美弗의 換率을 어떻게 評價하느냐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發生한다. 韓國에 있어서는 最近에는 國際収支事情이 好轉되면서 對美換率이 484 원으로 거의 固定되어 있으므로 近年에는 經常GNP와 거의 같은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北韓의 換率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評

<表 25> 南北韓의 弗貨表示GNP

(單位: 億弗)

	韓 國	成 長 率	北 韓	成 長 率
1968	50.6		25.7	
1969	64.0	26.5	27.3	6.2
1970	75.6	18.1	31.9	16.8
1971	87.5	15.7	34.6	8.5
1972	98.2	12.1	37.5	8.4
1973	123.7	26.0	44.5	28.6
1974	171.6	38.7	50.6	13.7
1975	187.5	9.3	56.6	11.9
1976	250.9	33.8	61.7	9.0
平 均		22.5		12.9

価되고 있다. 지금까지 統一院에서 使用한 南北韓의 弗貨表示 GNP 와 그 成長率은 <表 25>와 같다.

그러나 과거의 南北韓의 弗貨表示 成長率을 장래의 予測에 적용시킬 수 없으며 더욱 南北統一假定下의 成長率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生産要素別 成長潛在力과 寄与率을 통한 네 개의 成長率을 根拠로 弗貨表示 GNP를 算出하였다. 그러나 앞서의 成長率은 自國通貨表示의 不變成長率이다. 이것은 弗貨表示의 不變成長率과도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 自國通貨表示의 不變成長率은 經常 GNP를 物價上昇率, 즉 GNP 디플레이터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弗貨表示의 不變成長率은 어떤 基準年度의 換率이 그대로 維持될 수 있는 成長率이며 따라서 美國의 物價上昇率, 즉 弗貨의 GNP 디플레이터만큼은 不變價格보다 높게 表示될 것이며, 經常價格은 經常 成長率을 그대로 적용한 것과 같다.

KDI의 說明에 따르면 1960年代에 Balassa와 Shimomura에 의하여 不變弗貨表示의 GNP 成長率과 自國通貨表示의 不變成長率사이에는 다음의 차이가 있다.

不變弗貨表示 GNP 成長率

$$= \frac{1 + \text{名目 GNP 成長率}}{(1 + \text{美國의 GNP 디플레이터 增加率}) (1 + \text{달러 당 換率 上昇率})} - 1$$

自國通貨表示 GNP 實質 成長率

$$= \frac{1 + \text{名目 GNP 成長率}}{1 + \text{GNP 디플레이터 增加率}} - 1$$

이다. 따라서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不變弗貨表示成長率은 美國의 GNP 디플레이터增加率과 換率의 차이만큼 不變成長率보다 높게 表示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 問題를 評論할 必要는 없으며 다만 弗貨表示의 GNP 成長率은 위의 방식에 의하여 적용시켰던 韓國의 弗貨表示 成長率이 不變成長率보다 얼마나 높은가에 의하여 네개의 GNP 成長率을 推定하였다.

즉 1975年價格의 韓國의 弗貨表示成長率은 年 13.7%로써 年 10.5%의 1.30476……배이므로 이 倍率을 北韓의 不變成長率 8.8에 곱하면 10.6%가 되고 統一後의 A案은 12.6에 곱하여 16.4%, B案은 9.7에 곱하여 12.7%라는 成長率을 推定하였다. 이와 같이 해도 論理的으로 잘 못이 아닌 것은 不變成長率은 어느 나라나 基準이 같은 實質成長率이므로 오직 美國의 GNP 디플레이터만큼만 弗貨表示成長率이 높아지는 까닭이다.

北韓의 不變弗貨表示成長率이 10.6%인 것은 1967~76年의 予算에 의한 國民所得成長率 11.8%에 비하면 1.5%포인트가 낮으며 經常弗貨表示成長率 12.9%보다는 2.3%포인트가 낮다.

한편 1975年價格의 弗貨表示成長率에 美國의 GNP 디플레이터를 곱하면 經常價格의 弗貨表示成長率이 될 것이다. KDI는 韓國의 元貨表示 不變成長率 10.5%에 비해 1,305배인 13.7%를 不變美弗表示成長率로 보았고 다시 그 1,358배인 18.6%를 經常價格의 弗貨表示成長率로 보았다. 우리는 北韓의 成長率에 대해서도

8.1%의 1,305 배인 10.5%를 不變弗貨表示成長率로 보고 다시 그 1,358 배인 13.7%를 經常弗貨表示成長率로 推定하였다. 마찬가지로 統一後의 A案은 12.6%의 1,305 배인 16.4%가 不變弗貨表示成長率이고 그 1,358 배인 22.2%가 經常弗貨表示成長率로 보았으며 B案은 9.7%의 1,305 배인 12.6%가 不變弗貨表示成長率이고 그 1,358 배인 17.1%가 經常弗貨表示成長率이라고 推定하였다.

1976 年의 韓國의 GNP는 75 年價格으로 258 億弗이고 經常價格으로 272 億弗이며 北韓의 GNP는 75 年價格으로 62 億弗, 經常價格

< 表 26 > 弗貨表示成長率 및 GNP

(單位 : 億 鎊)

		1976	1981	1986	年增加率	원貨成長率
韓國	1975 年價格	258	511	995	13.7	10.5
	經常價格	272	686	1,623	18.6	18.6
北韓	1975 年價格	62	102	168	10.5	8.1
	經常價格	65	123	234	13.7	—
A 案	1975 年價格	320	683	1,461	16.4	12.6
	經常價格	337	918	2,502	22.2	22.2
B 案	1975 年價格	320	582	1,058	12.6	9.7
	經常價格	337	745	1,648	17.1	—

格으로 65 億弗이므로 各各 11.5%와 15.6%의 弗貨表示成長率을

적용시키면 1981년에는 각각 107億弗과 144億弗, 86년에는 각각 184億弗과 300億弗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76년에 비해 不變價格으로는 2.97倍, 經常價格으로는 4.62倍의 成長이다.

이는 韓國의 3.86倍와 5.97倍에 비하여 成長規模가 低率이다.

統一後 A案은 75年價格으로 1976년에는 南北韓의 GNP를 합한 320億弗인데 15.5%의 成長率을 적용시키면 1981년에 658億弗, 86년에는 1,352億弗로 76년의 4.23倍이며, 經常價格으로는 1976년에 337億弗인데, 21.0%의 成長率을 적용시키면 81년에는 874億弗, 86년에는 2,267億弗로 1976년의 6.73倍이다. 한편 B案은 75年價格으로는 1976년에 320億弗, 81년에 582億弗, 86년에는 1,058億弗로 76년의 3.31倍이며, 經常價格으로는 1976년에 337億弗, 81년에 745億弗, 86년에 1,648億弗로써 4.89倍이다.

그리하여 10年동안 GNP成長에 있어서 A案과 B案의 隔差는 不變價格으로 A案은 4.23倍인데 비하여 B案은 3.31倍에 불과하며 B案은 統一을 전제하지 않은 韓國의 3.86倍의 成長보다도 低率이다.

勿論 지금까지의 GNP의 弗貨表示成長率에 있어 元貨表示 不變成長에 대한 相對的比率을 南北韓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論議의 여지가 있다. 北韓의 경우 自國通貨表示價格의 不變價格과 經常價格의 隔差가 없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不變成長率을 먼저 推定하였으므로 美貨表示의 不變成長率을 적용시킬 때에 美國의 GNP 디플레이터成長率의 倍率을 乘할 수 있

〈表 27〉 弗貨表示 1人当GNP

(单位:弗,千人)

			1976	1981	1986
1人当GNP	韓国	1975年価格	720	1,317	2,363
		經常価格	757	1,768	3,857
	北韓	1975年価格	383	561	824
		經常価格	402	696	1,148
	A案	1975年価格	615	1,201	2,349
		經常価格	648	1,614	4,024
	B案	1975年価格	615	1,018	1,634
		經常価格	648	1,304	2,465
人 口	韓国		35,860	38,807	42,088
	北韓		16,158	18,192	20,383
	A案		52,018	56,871	62,177
	B案		52,018	57,151	62,791

價格으로는 A案이 3,718弗, B案이 2,625弗로 1,093弗의 격차가 생긴다.

으므로 크게 問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 人口增加率과 1人当 GNP

韓國의 人口增加率は 年 1.6%로 推算되나 北韓의 人口增加率は 1976~86년에는 2.3%를 적용시켰다. 이는 中央情報部の 推計에 의한 것이며 1976년에 北韓人口는 16,158千名이었으므로 81년에는 18,192千名, 86년에는 20,383千名으로 推定된다.

한편 南北韓의 人口는 1976년에 52,018千名인데 統一後에는 A案의 경우 南北韓의 人口增加率의 人口比率에 의한 加重平均値가 1.84%인데 北韓人口分이 家族計劃등으로 다소 低下될 것으로 보아 年平均 1.8%의 增加率로 計算하였다. 그 결과 1981년에는 56,315千名, 1986년에는 60,967千名이며 이는 分斷된채의 南北韓을 合한 人口數에 비하면 81년에는 683千名이 적고 86년에는 1,504千名이 적다. 한편 B案의 경우는 北韓의 人口分의 人口增加率이 적게 鈍化될 것으로 보아 年 1.9%를 적용시켰다. 그 결과 81년에는 57,151千名, 86년에는 62,791千名으로 推算된다.

따라서 1人当 GNP는 統一後에는 A, B案이 다같이 1976年の 경우 75年價格으로 615弗, 經常價格으로는 648弗이나 81년에는 75年 價格으로 A案은 1,168弗, B案은 1,018弗로 150弗의 格差가 생기고 經常價格으로는 A案이 1,552弗, B案은 1,304弗로 248弗로 격차가 생긴다. 그리고 86년에는 75年價格의 경우 A案은 2,218弗, B案은 1,684弗로 534弗의 격차가 생기고 經常

第3章 産業別成長의 展望

1. 鉍工業

가. 統一前의 現況과 展望

南北韓의 鉍工業立地는 당초에는 北韓에 偏重되었으며 北韓은 1960年代부터 重工業爲主의 鉍工業生産基盤을 擴充해 왔다. 이에 비하여 南韓은 1960年代부터 開放體制에 適應하기 위하여 輕工業의 生産基盤을 擴充한 뒤에 70年代에는 重化學工業의 急激한 發展을 이룩하고 있다.

北韓은 工業發展에 最優先順位를 주어 工業部門에 人的, 物的諸資源과 各種 支援을 집중시켰다. 특히 60年代의 7個年 計劃에부터 工業生産을 年平均10% 成長시켜 目標年度인 67년에는 60년에 비해 3.2배의 目標를 두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資本 및 技術支援을 提供해야 할 소련과 中共의 相互紛爭의 틈바구니에서 計劃대로 援助를 받지 못한 것이 커다란 차질의 要因이었고, 内部的으로 는 軍事戰略에 치중하여 山間 地에 軍需産業基地를 형성하는등 非經濟的立地選定에 기인하여 당초의 目標를 達成치 못하여 計劃期間을 70년까지 3個年이나 延長하였다.

70年代에는 東西陣營의 和解基調가 造成되고 韓國의 成功的인 經濟成長에 자극받아 自由陣營에의 門戶를 開放하여 對外債入을 試圖하였으나 76年末 現在 22億달러로 추정되는 債務의 元利金償還

能力이 不足하여 繼續的인 資本財輸入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輸出競爭力을 樹立할 수 없는 Autarky 体制에 기인된 것이며, 그 結果 70年代의 6個年計劃도 75年8月末로 終結하고 76~77年의 2年을 완충기로 設定하여 計劃未達部門을 補完하면서 78년부터 84년까지 7個年計劃을 推進하기에 이른 것이다.

中央情報部の 추계에 의하면 1961~70年の 期間에 北韓의 工業 成長率은 年平均 12.8%로써 1961~71년에 韓國의 工業成長率이 16.6%나 되었던 것에 비하여 크게 低率이며 그 結果 工業總生産額은 北韓의 경우 70년에 있어 60년의 3.3배인데 그중 生産財는 3.7배 消費財工業은 2.8배에 이르고 있어 韓國은 같은 期間에 工業生産額이 4.5배이고 重工業은 7.8배 輕工業은 3.5배의 增加率로써 北韓보다 모두 急速히 成長하였다. 71~76年の 期間에는 北韓의 工業生産額은 年平均 14.0%, 全期間中 2.2배이고, 그중 生産財는 年平均 14.6%, 全期間 2.3배, 消費財工業은 年平均 12.7%, 全期間 2.0배의 成長実績이었다. ^{註8)}

韓國은 같은 期間에 工業生産額은 年平均 % 全期間 배이고 그중 重化学工業은 年平均 % 全期間 배, 輕工業은 年平均 %, 全期間에 배의 成長을 하였다.

KDI의 추계에 의하면 韓國은 1976~91년까지의 工業成長率을 年平均 13.6%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重化学工業은 16.2% 輕工業은 10.5%의 成長率로 추정하였다.

그리하여 1976년에 重化学工業과 輕工業의 比率이 46.7%對53.3

%이었으나 91년에는 65.1%对 34.9%가 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1960년에 이미 生産財工業이 55%, 消費財工業이 45%로
 重工業比重이 컸고 60年代末에는 54对 46으로 오히려 약간이나마
 輕工業比重이 커지고 있어 韓國의 工業構造와 对照的이다.

특히 鎳業에 있어서는 이미 第1章에서 檢討하였듯이 北韓의 地下
 資源이 韓國보다 많기 때문에 그 開發의 潜在力이 크며 現在까지
 의 生産実績도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1976年末 現在 南北韓의 主要 鎳工業生産実績은 <表 28>과
 같다. 鐵鎳石과 石炭等의 鎳産物과 銑鉄生産量은 北韓이 南韓보다
 많으며 그밖의 工産物은 모두 南韓이 많으나 電力, 工作機械, 트랙

<表 28> 南北韓 主要鎳工業生産実績

1976年末

	单 位	韓國 (A)	北韓 (B)	$\frac{A}{B}$ ($\frac{B}{A}$)
電力, 設備容量	千kw	4,810	4,640	1.04
發電量	10億kw H	23.1	21.3	1.08
鐵鎳石	千屯	720	7,070	(9.82)
石 炭	"	16,401	42,500	(2.59)
銑 鉄	"	1,980	2,850	(1.44)
鋼 鉄	"	3,440	3,440	1.0
工作機械	"	48.0	30.0	1.6
트랙터	"	24.6	21.0	1.2
自動車	"	48.3	10.0	4.83
化学肥料	"	284	275	1.03
시멘트	"	1,278	625	2.04
織 物	百萬m	1,750	490	3.57

터, 化学肥料, 銑鉄 및 鋼鉄등 重化学工業生産物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石油化学에 있어서는 韓國은 76年末現在 1,832萬屯의 原油处理能力을 갖는 精油工場施設을 갖추고 있으나, 北韓은 73年부 터 소련의 支援으로 100萬屯規模의 原油加工工場을 建設中에 있으 므로, 石油化学 및 輕工業은 엄청난 격차를 갖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앞으로는 鉄鋼, 自動車, 造船, 機械電子등의 重工業도 韓國이 北韓을 크게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GNP에서 차지하는 鉍工業의 比重을 보면 中央情報部の 추계에 의하면 1970年 현재 57.3%이며 같은 해 韓國의 22.8 %보다 월등히 比重이 크다. 이는 北韓의 工業立地가 有利하고 農業立地가 不利하다는 自然条件에 기인되기도 하나 또한 市場經濟 가 없는 北韓은 商業 및 서비스部門의 比重이 적은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統計概念上的의 理由도 指摘할 수 있다. 北韓은 産業 分類上 工業部門에 製造業뿐 아니라 鉍業, 電力工業, 木材工業(一部 林業包含), 水産業까지 包含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鉍工業部門 보다 도 範圍가 넓다. 뿐만아니라 工業生産額은 附加價值概念이 아니고 모든 工場 및 企業 의 總生産額을 합한것이므로 中間生産物이 중 복 計算되어 있다.

그러므로 北韓의 工業比重이 높은 것은 實際로 比較하기에 意義 가 크지 않으나 아무튼 相對的으로 農業은 自然条件에 의해, 商業 은 社会主義이므로 그 比重이 적을 것이므로 工業의 比重이 커지 는 것은 當然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北韓의 工業部門의 比重은 같은 社會主義國家들과 比較하면 <表 29>와 같이 역시 相對的으로 低水準에 있음을 알 수 있다.

韓國의 工業構造는 <表 30>과 같이 1976年 現在에는 先進工業國에 比하여 脆弱하나 1991년에는 現在의 先進工業國水準을 따라

<表 29> 共產主義國家의 工業比重

(單位：%)

	對GNP 比重 (64 ~ 65年)	對農·工業 (65 ~ 68)	生産財工業 比衆(67年)
北 韓	55.0	78.0	53.0
불가리	45.0	79.7	56.5
헝가리	58.0	76.7	62.3
東 獨	64.4	80.0	66.7
폴란드	50.9	72.6	64.4
루마니아	48.9	71.9	64.0
체코	64.3	80.0	60.6

資料：소련科学院，現代코리아，1971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韓國의 工業構造가 相對的으로 脆弱했던 理由는 開放經濟體制下에서 輸出增大를 至上目標로 하고 무조건 輸出可能産業만을 無差別的으로 開發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輸出産業 및 輸出構造를 重化学工業으로 改編하고 比較優位가 있는 産業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면서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指向할 것이다.

나. 統一前提下的 工業化展望

南北韓의 鈹工業構造는 統一이 되면 相互補完的 役割을 할 것으로 推測된다.

鈹産物資源이 北韓에 偏重되어 있으나 全体的 資源構造가 過剩狀態에 있지 않으므로 資源의 相当部門은 海外依存이 必要한 것이다. 따라서 資源需給에 있어서 北韓에 埋藏된 地下資源과 南韓의 開放體制에 依存한 經濟構造는 統一後에는 보다 効率的인 資源利用이 可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統一이 된 다해도 封鎖體系를 政策基調로 삼는 社会主義體制가 支配된다면 開放體系에 의한 海外資源의 活用은 여전히 制限될 수 밖에 없다.

(1) 鉄鋼工業

예를들면 鉄鋼工業의 경우 韓國의 鉄鋼材需給을 보면 1976年現在 需要의 側面에서는 內需가 粗鋼基準으로 396万7千吨 輸出이 176万千吨으로 總需要量 573万1千吨에 比하여 輸出이 30.8%를 차지하고 있으나 77~91年の 期間中 內需의 伸張率は 年13.9% 輸出伸張率は 年15.6%에 이르게 되어 91年度에는 內需가 2,777万9千吨으로 總需要의 64.2% 海外輸出이 1,548万9千吨으로 總需要의 35.8%로 輸出의 比重이 增加되고 있으며 특히 供給側에

〈表 30〉 主要国외 工業構造

(單位：%)

輕工業 重工業	重工業	重工業	음식료품	섬유	기타	重化學工業	化學	非金屬	第1次金屬	金屬 機械 電子
韓國(1975)	1,137	53.2	22.7	21.0	9.5	46.8	21.6	4.6	3.7	16.9
(1991)	0.495	33.1	12.1	10.7	10.3	66.9	18.1	4.8	5.7	38.3
日本(1955)	0.761	43.2	11.4	15.2	16.6	56.8	17.3	5.5	11.5	22.5
(1970)	0.466	31.8	8.0	8.2	15.6	68.2	12.5	4.8	9.6	41.3
西獨(1953)	0.812	44.8	19.4	13.9	11.5	55.2	11.3	5.5	11.0	26.6
(1970)	0.488	32.8	12.9	8.0	11.9	67.2	14.5	5.1	11.0	26.6
美國(1953)	0.715	41.7	10.6	10.3	20.8	58.3	11.6	4.1	9.0	34.6
(1970)	0.555	35.7	10.0	8.3	17.4	64.3	13.4	3.1	47.6	
英國(1953)	0.587	37.0	10.3	13.9	12.8	63.0	11.6	3.1	8.9	38.2
(1970)	0.548	35.4	12.7	8.9	13.8	64.6	10.3	3.3	8.2	41.8
벨기에(1953)	0.972	49.3	21.7	15.9	11.7	50.7	8.6	4.3	10.6	26.4
(1970)	0.792	44.2	18.3	13.1	12.8	55.8	8.5	4.0	9.7	31.8
네델란드(1953)	1.119	52.8	19.9	17.8	15.1	47.2	11.1	3.8	3.0	29.2
(1970)	0.549	35.5	16.6	6.8	12.1	64.5	23.6	4.1	4.7	31.8

서는 鐵鋼財生産施設의 輸入依存이 1976년에는 22.6%이나 1991년에는 工業의 경우 40.1%, II案의 경우 16.7%에 이르고 있는데 I案은 輸入이 輸出의 80%인 경우이고 II案은 輸入이 輸出의 40%인 경우이다.註 9)

이와같이 供給側뿐 아니라 특히 需要側에서의 輸出比重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鋼鐵工業은 建設期間이 보통 5年以上의 長期間이고 일단 建設되면 操業率의 변동이 不可能하여 短期的供給彈力성이 낮기 때문에 적어도 10年이상의 長期需給展望에 따라 綜合적으로

<表 31>

韓國의 鐵鋼材需給展望

(單位：千M/T, 粗鋼基準)

	1976 (実績)	1981	1986	1991	年增加率 (%)		
					76~81	82~86	76~91
内輸	3,967	8,518	16,293	27,779	16.5	13.9	13.9
輸出	1,764	4,270	8,811	15,489	19.3	15.6	15.6
需要合計	5,731	12,788	25,104	43,268	17.4	14.4	14.4
生産(I)	3,409	9,372	18,056	30,877	18.4	14.0	14.8
輸入(I)	769	3,416	7,048	12,391	28.1	15.6	19.0
生産(II)	3,409	11,080	21,580	37,072	21.7	14.3	16.1
輸入(II)	769	1,708	3,524	6,196	14.2	15.6	13.9
供給合計	4,178	12,788	25,104	43,268	20.5	14.4	15.7

註 1) (I)은 輸入이 輸出의 80%, (II)는 40%일 때임.

2) 供給実績은 75年임.

로 經濟的 技術的 妥當性을 檢討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과 같은 閉鎖的인 經濟體制를 繼續한다면 鐵鋼工業의 伸張에는 커다란 限界性에 直面할 것이다. 韓國의 경우 鐵鋼需要에 있어 海外輸出의 比重도 점차 增加될 뿐아니라 國內需要도 鐵鋼材를 사용하는 製品의 輸出增加에 크게 依存된다.

그리하여 韓國의 경우 1981년에 鐵鋼材의 需要量이 937萬噸 내지 1,108萬噸으로 추정되며, 浦項製鐵만도 81년까지 年間 生産能力을 850萬M/T로 擴張할 計劃으로 있으며 이밖에 第2의 綜合製鐵工場을 建設할 計劃으로 있다.

北韓의 경우 1976年 現在까지는 鋼鐵生産量이 344萬噸으로 우리와 같은 規模이고 銑鐵生産能力은 286萬噸으로 韓國의 198萬噸보다 능가하는 狀態이다.

앞으로 81년에는 韓國의 綜合製鐵工場의 擴張에 의해 北韓보다 훨씬 擴大될 것으로 보인다.

韓國의 경우 앞의 <表 31>에서 본 바와 같이 1986년에 鐵鋼材의 需要量 2,510萬噸에 比하여 國內生産量을 2,158萬噸으로 計劃하고 있으며 (II案) 적어도 (I案) 1,805萬噸을 넘을 計劃이다.

北韓의 경우 7個年 計劃에 의하면 鋼鐵生産能力이 84년에 800萬噸에 이를 것이므로 南韓의 鐵鋼材生産量 보다는 적다. 그러나 韓國의 鐵鋼材는 銑鐵, 鋼鐵, 圧延의 比重이 1976年現在 38:65:100으로 國際水準인 60:80:100보다 不均衡的인 生産構造에 있으나 앞으로는 浦鐵의 擴張으로 銑鐵과 鋼鐵의 生産比率이 더욱 커

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統一을 假定하면 A案의 경우 北韓쪽에 綜合製鐵工場을 더욱 建設하여 供給을 增加시킬 수 있을 것이다. 1976年の 鋼鐵生産量은 北韓의 경우에도 344万吨인데 이는 모두 国内需要量으로 보면 南北韓의 總需給量은 <表 32>와 같을 것이다. 즉 1976년에는 国内需要가 $3,967 + 3,440 = 7,407$ (千吨)이고 海外輸出이 1,764 (千吨)이므로 南北韓의 總需要量은 9,171千吨이며 海外輸入은 985千吨 国内生産은 8,186千吨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77~81年の 国内需要增加率과 海外輸出增加率 国内生産增加率과 輸入增加率을 利用하여 作成한 것이다.

첫째, 国内生産은 韓國式統一의 경우 第2, 第3의 綜合製鐵의 建設이 5年마다 可能的 것으로 보아 1976年度의 南北韓의 總生産量 8,186千吨의 14.0%의 增加率(KDI의 82~86年 平均成長率)을 적용하면 81년에는 15,761千吨, 86년에는 30,347千吨을 供給하게 된다.

둘째, 需要側에서는 먼저 海外需要는 國際市場事情에 依하여 韓國의 单独輸出時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KDI의 推計를 그대로 적용하면 81년에 4,270千吨 86년에 8,811千吨이 可能하다. 만일 統一後에는 鐵鋼生産量이 늘었으므로 輸出을 30%만 더 增加시킨다면 71~81년에는 $19.3\% \times 1.3 = 25.1\%$ 82~86년에는 $15.6\% \times 1.3 = 20.3\%$ 가 되어 81년에는 5,405千吨, 86년에는 13,627千吨에 이르게 된다.

세제로 国内需要는 77 ~ 91의 平均增加率 13.9%를 적용하면 81년에는 14,199千吨 86년에는 27,219千吨으로 增加된다.

네째 国内需要와 輸出을 合한 總需要에서 国内生産을 減하면 輸入需要가 발생한다.

以上の 推計는 상당한 恣意性이 있다고 생각되나 몇가지 成長의 仮定에 의하여 전혀 不可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統一後 B案의 경우는 어떠할까. 우선 鐵鋼材의 海外輸出이 크게

<表 32> 統一後 (A案)의 鐵鋼材需給展望

(單位：千/T)

	1976 (実績)	1981	1986	年平均增加率(%)	
				77~81	82~86
總需要	9,171	19,604	32,624		
国内需要	7,407 ¹⁾	14,199	27,219	13.9	13.9
輸出	1,764	5,405	13,627	25.1	20.3
總供給	9,171	19,604	32,624		
国内生産	8,186 ¹⁾	15,761	30,347	14.0	14.0
輸入	985	3,843	2,277		

1) 1976年 南北韓의 合計임.

增加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国内需要도 開放經濟体制가 아니라면 成長이 제한될 것이다. 특히 共產主義体制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北韓에서 經驗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工業生産의 各分野에 있어서 技術開發과 原資材供給의 차질등으로 設備의 擴大가 지연되고 生産効率が 低下되는 事例가 많으므로 生産의 伸張이 資本主義下의 企業運營의 경우에 比하여 鈍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需要의 側面에서는 共產圈의 1955 ~ 74년에 있어서의 需要의 增加率인 0.8%를 적용하고 生産의 增加率로 같은 期間의 共產圈의 增加率인 6.8%를 적용하여 그 격차를 輸出量으로 추계할 수 있다.^{註1)}

<表 33> 統一後 (B案)의 鉄鋼材 需給展望

(單位: 千M/T)

	1976	1981	1986	77~86 平均 增加率 (%)
總需要	9,171	11,374	15,804	
国内需要	7,407	10,292	14,301	6.8
輸出	1,764	1,082	1,503	
總供給	9,171	11,374	15,804	
国内生産	8,186	11,374	15,804	6.8
輸入	985 ¹⁾	-	-	

1) B案의 경우, 輸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2) 機械工業

韓國의 機械工業은 그동안 技術水準의 向上 및 輸出伸張과 더불어 繼續伸張하여 1976年 現在 1조 7,116億원의 生産額을 記錄하여 1962년에 비하면 32.3배, 1970년에 비하면 8.18배에 伸張으로 1970年 이후 76년까지 製造業全體의 4.14배, 全産業의 3.84배 보다 월등하게 빠른 成長을 하였다. 그러나 1976年에도 機械額 輸入額은 21億달러로 國內需要의 52.0%를 차지하였고 특히 産業用機械는 內需의 81%를 輸入에 依存하였다. KDI의 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工作機械生産은 1976~81년에는 年平均 28.5%, 1982~86년에는 年平均 25.9%의 增加率로서 86년의 機械保有台數는 205千台로써 76년의 48千台에 비하여 4.3배의 增加를 計劃하고 있다.

北傀에 있어서도 機械工業을 중추로 重工業優先의 成長政策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工作機械部門에서는 相當한 發展을 이룩하여 6千屯포세스를 비롯한 20m선반 및 各種 工作機械의 生産能力을 保有하였고 76년까지 3萬台의 生産目標을 實現시켰다.

앞으로 南北韓이 統合될 경우 機械工業의 發展 展望은 A案과 B案의 차이가 크지 않고 어느 경우이던 繼續 工業發展의 中樞的 役割을 할 것으로 보인다.

輸送機械의 代表的 部門인 自動車工業은 1976年現在 韓國은 48,292台的 自動車를 生産하였으며 앞으로 81년의 自動車需要量은 28萬台, 86년에는 1百萬台에 이를 것으로 推算되고 있다. 北韓

은 1976年 現在 3万台의 自動車를 生産하였으나 주로 貨物車生産에 集中하고 있어 乘用車의 開發은 落後된 狀態에 있다.

따라서 統一後에는 A案의 경우 乘用車와 貨物車의 生産이 다같이 크게 增大될 것으로 推定되나 B案의 경우에는 貨物車生産의 增大에 集中하게 되므로 全體의 自動車生産量은 A案보다 B案이 점점 적어질 것이다. 특히 韓國은 1976年 現在 乘用車 1,016台, 트럭 117台를 輸出하였고 77년에는 乘用車輸出이 무려 1万台 트럭이 2千台로 本格的인 自動車輸出이 이루어져서 81년에는 乘用車 93千台 트럭 32千台를 輸出하고 86년에는 乘用車 317千台, 트럭 93,800台를 輸出함으로써 自動車輸出國으로 登場할 수 있을 것이다.^{註11)} 따라서 A案의 경우 현재의 南北韓의 自動車生産能力과 國內需要의 增加外에 韓國의 輸出展望을 모두 包含시킬 수 있으나 B案의 경우에는 輸出展望을 包含시킬 수 없으며 國內需要에 있어서도 乘用車의 需要는 크게 減少될 것이므로 全般的으로 生産実績도 떨어질 것이다.

(3) 電子工業

電子工業은 勞動集約的이고 低資源 및 低에너지消費産業이며 1人당 資本裝備率이 낮고 附加價值率이 높아 韓國의 特性에 적합하여 輸出産業으로 크게 伸張하였다.

1970年까지만 해도 電子工業의 總生産額이 1億달러에 불과했으나 76년에는 14億달러로써 무려 14배의 生産增加를 기록하였고, 輸出額은 55百萬달러에서 10億4千萬달러로 18.9배나 늘었다.

KDI의 推計에 의하면 앞으로 1981년에는 生産額이 1조 7,500 億원으로 76年の 5,012 億원보다 3.5 배로 늘고, 輸出額은 19 億 9 千万달러로 76年の 2 배가 되며, 1986년에는 生産額이 3조 9,400 億원, 輸出額이 41 億 4 千万달러로 81年보다 2.25 배, 2.08 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電子工業은 거의 開發되지 않고 있으며 極히 初歩的인 段階에 있다. 이는 電子工業이 무엇보다도 輸出産業으로 써의 特性을 갖고 成長할 수 있는 部門인데 北韓은 封鎖體制이므로 이 部門의 開發을 등한히 한 까닭이다.

앞으로 統一後 이 部門은 A案과 B案 격차가 가장 커질 部門의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 A案의 경우 生産能力은 南韓人口에 다 北韓人口를 合한 勞動力人口의 增加分만큼 生産能力이 擴大될 것이며 따라서 輸出도 增加될 것으로 보인다. 1976年の 北韓의 經濟活動人口는 5,999 千名으로 韓國의 12,556 千名の 47,7%가 되며 電子工業에 投入될 수 있는 人力이 統一後에는 적어도 다른 産業보다 相對的으로 적지않다면 그만큼 人的資源이 增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勞動力人口의 成長寄与者가 約 80%이라고 보면 1981년에는 KDI 推計值인 韓國의 生産量 1조 7,500 億원에 $1,447 \times 0.8 = 1,3576$ 을 곱하면 2조 3,758 億원의 生産量이 可能할 것이며 1986년에는 5조 3,489 億원의 生産量으로 推定할 수 있다. 한편 国内需要는 北韓人口가 南韓人口의 45%이므로 国内市場規가 1.45

배로 增加될 것으로 보아 1981年의 需要額은 8,300 億원의 1.45 배인 1 조 2,035 億원이고 86年에는 2 조 8,710 億원으로 推算된다. 그리하여 輸出額은 81年에는 2,422 百万달러 86年에는 5,120 百万달러에 이를 것으로 볼 수 있다.

< 表 34 > 統一後 (A 案) 의 電子工業需給

	단 위 ¹⁾	1976 ²⁾	1981	1986	年增加率 (%)
生 産	10 億원	501.2	2,375.8	5,348.9	28.1
内 需	10 億원	201.0	1,203.5	2,871.0	31.7
輸 出	百万달러	1,040	2,422	5,120	-

1) 1975年 不變價格임.

2) 北韓의 実績은 없는것으로 보고 韓國의 実績만 計上

統一後 B案은 北韓의 現体制를 假定할 때 電子工業의 發展이 크게 기대될 수 없으나 그동안 南韓에서 開發해온 電子工業을 全面的으로 除去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1976年의 韓國의 実績에서 内需 및 海外出의 增加가 顯著하게 鈍化되는 狀態가 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에 對하여는 假定이 어려우므로 計算을 하지는 않겠으나 電子工業成長은 가장 큰 격차가 豫想된다고 推測할 수 있다.

(4) 化学工業

韓國의 化学工業은 3次計劃이후 급속히 成長하여 1961년에 1970年 不變價格으로 467億원의 生産額에 비하여 1976년에는 8.624億원으로 年平均21.5%의 높은 成長率을 기록하였고 GNP構成比는 1.2%에서 8.2%로 加重되었다. 지금까지 鉄鋼, 電子工業 및 섬유, 合板등의 分野는 輸出主導産業이었음에 비하여 化学工業은 輸入代替産業의 特徵을 가지므로 国内需要에 依存 發展하였다.

北韓은 化学工業發展에 必要한 石灰石, 無煙炭, 褐炭, 黑煙등의 原料資源을 保有하고 있어 咸興地區를 중심으로 東海岸에 化学工業基地가 集中되어있다. 同地區의 興南은 硫酸 窒酸 암모니아등의 無機化学工業이 集中되어 있고 특히 興南肥料工場은 大規模施設을 갖추어 化学肥料生産量은 1972년에 125万吨, 76년에 275万吨의 実績을 올렸고 7個年計劃에 의하면 84년에는 500万吨에 이를 것으로 計劃되고 있다. 이는 韓國이 76년에 284万吨의 生産実績과 비슷하며 81년의 313万吨 보다 많으나 比較 年度의 차이가 있으므로 대체로 같은 水準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肥料를 비롯한 無機化学의 部門은 南北韓統一後에 A案과 B案이 크게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国内需要와 供給이 均衡되는 水準에서 成長될 것이다.

한편 最近 重要한 成長産業인 石油化学工業은 韓國에 있어서는 1970年代부터 急速히 伸張되고 있다.

東海岸北部에 咸北炭田을 배경으로 메타놀을 生産하는 아오지化学工

場이 있으나 精油産業 및 石油化学工業이 本格的으로 開發되지 않고 있다.

韓國은 1964年 蔚山精油工場建設以後 72년에 石油化学컴비나르가 建設되었고 69년에 湖南精油의 建設以後 麗川地區에도 石油化学컴비나르가 建設되어 合成纖維, 플라스틱, 原料, 合成고무原料등이 本格的으로 生産되고 있다. 韓國의 石油化学 및 合成樹脂工業은 꾸준히 增大하는 國內需要와 1981년부터 展望되는 1次 내지 2次加工品에 대한 輸出需要가 점차적으로 增大될 것이므로 1990年代까지는 本格的인 國際單位의 産業分野로 成長할 것이 豫想된다. KDI 추계에 의하면 石油化學生産額은 1976년에 2,589億원으로 부터 81년에는 5,874億원(76年不變價格)으로 2.3배가 되고 86년에는 1조 256億원으로 다시 1.75배로 다시 增加될 것으로 展望된다.

南北統一을 假定할때에 A案의 경우에는 石油化学工業에 積極적으로 投資하여 現在 韓國이 計劃하고 있는것 以上으로 增大될 것으로 보이나 B案의 경우에는 消極적으로 投資의 擴大가 크게 이루어 지지 못하여 成長이 鈍化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纖維工業

韓國에 있어서는 纖維工業生産量은 第3次5個年計劃期間인 72~76年에도 年平均 32.9%의 成長으로 同期間中 製造業全體의 生産增加率 27.0%를 上廻하였다.

이는 70年代以後 韓國이 重化学工業의 發原에 注力하였으나 여전히 輕工業에 對해서도 輸出需要의 增大와 內需의 增大로 그 成長

速度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北韓의 生産実績은 中央情報部에 추계에 의하면 1965년에 織物生産量이 2億7千萬m에서 67년에 5億m로 增大될 計劃이었으나 76年実績이 4億9千萬m로 그 伸張이 크게 不振한 狀態에 있으며, 76년에 韓國의 織物生産量 17億7千m에 比하면 28%에 不過하다. 이와 같은 추세는 北韓이 그간 軍需産業을 위주로 鉄鋼, 機械등의 重工業開發에는 注重하였으나 輕工業開發은 크게 等한히 하였음을 나타낸다.

織維工業은 한편으로 勞動集約的인 반면에 資源集約的이기 때문에 北韓에 있어서는 勞動과 資源이 다같이 不足하여 開發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開放体制이므로 附加価値率만 높으면 資源集約的이라도 開發이 可能的한 까닭에 점차 輸出産業으로 開發하여 왔다.

예를들면 1971년에는 需要面에서 內需가 55%, 輸出이 45%이었으나 76년에는 內需가 42%, 輸出이 58%로 바뀌어진 것이다.

그러나 韓國에 있어서도 점차 勞動力不足과 重化學開發에 따른 相對的技資財源의 減少등 對內的要因과 輸入規制의 強化, 國際競争의 加速化등 對外的要因으로 여러가지 險路에 直面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KDI의 추계에 따르면 1976 ~ 91年の 期間中 輸出物量은 39萬噸에서 926千噸으로 年平均 5.9%의 增加에 그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南北韓의 統一을 가정하면 A案의 경우 지금까지 不足했던 北韓

住民들의 需要增加에 기인되어 内需의 伸張이 이루어져서 당분간 内需와 輸出을 병행하여 착실한 伸張이 可能할 것으로 추정된다.

韓國의 1976年の 絨維의 国内消費量은 韓國의 경우 278千吨인데 北韓은 韓國의 28% (앞에서 絨物生産比率로 추정하면 28%이다) 라고 보면 77,924 吨으로 추정되며 이는 1人当 4.8 kg에 해당되어 韓國의 1人当消費量 7.8 kg보다 62%에 해당되며 1972年の 5.2 kg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적어도 北韓人口 16,250千名の 消費量을 韓國水準과 같게 하려면 国内需要가 48,750 吨만큼 더 늘어야 한다.

<表 35> 統一後 (A案) 의 絨維需給展望

	1976 (A)	1981 ²⁾	1986 ²⁾ (B)	$\frac{B}{A}$
1人当消費(kg)	6.8	12.0	14.5	1.9
人口 (千人) ¹⁾	52,090	56,871	62,177	1.2
国内消費量 (千M/T)	356.3	682.5	901.6	2.5
輸出推定 (")	390.0	657.0	822.0	2.4
生産量 (")	746.3	1,339.5	1,723.6	2.3

資料: 1) <表 1>을 參照

2) KDI, 前掲書, p. 353 表 15-126 및 p. 354, 表 15-

127 參照

統一後 南北韓의 人口추계와 KDI가 추계한 韓國의 1人当消費量을 기준으로 纖維消費를 展望하면 A案의 国内需要量이 추정될 수 있다. 여기에 韓國의 海外輸出展望을 包含하면 總生産量을 推定할 수 있다. 그 결과 1981년에는 134万吨 86년에는 172万吨의 纖維生産이 豫測된다. 그러나 統一後에도 B案의 경우에는 現在의 生産量에서 크게 增加시키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現在 北韓住民의 1人当消費量에 비하여 南韓의 消費量이 월등히 높음으로 追加의 生産所要量을 要求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原綿이던 化学纖維이던 原料가 많이 投入되므로 北韓式經濟体制에서는 이러한 分野의 生産에 크게 注力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5年後인 1981년에 現在의 韓國水準의 消費量으로 充足하고 86년에는 韓國의 82 - 86年の 中間水準에 充足하며 輸出伸張은 韓國보다 현저히 鈍化될 것으로 보아 81년까지 76年の 1.5배 86년까지 76年の 1.8배정도로 추정하면 B案은 <表 36>과 같다.

<表 36> 統一後(B案)의 纖維需給展望

	1976 (A)	1981	1986 (B)	$\frac{B}{A}$
1人当消費(kg)	6.8	7.8	9.9	1.5
人口(千人)	52,090	57.151	62,791	1.2
国内消費量(千M/T)	356.3	445.8	621.6	1.7
輸出推定(〃)	390.0	585.0	702.0	1.8
生産量(〃)	746.3	1,030.8	1,323.6	1.8

(6) 工業化展望의 綜合分析

우리는 統一前提下의 工業化展望에 대하여 北韓의 資源의 豊富하고 南北韓이 다같이 中점을 두어온 鉄鋼 및 機械工業과 輸出産業인 電子工業과 內需産業인 化學工業, 消費財工業인 織維工業等 代表的인 部門에서 A案과 B案을 豫測하였다. 推計에 있어서의 假定과 問題點을 再編하지 않고 이를 綜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鉄鋼工業의 總需要와 總供給은 1986년에 있어서 A案은 32,624千屯, B案은 15,804千屯으로 A案이 B案의 2.06배이며 77 ~ 86年の 增加額은 A案이 23,453千屯으로 B案의 6,633千屯의 3.5배 增加率(1986/1976)은 A案은 3.5배 B案은 1.7배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輸出增加率과 國內需要의 增加率의 차이에 기인된다.

둘째로 機械工業은 다시 여러 種類로 分類되어야 하며, 工作機械는 具體的인 數字의 推計를 하지 못하였으나 A案과 B案의 격차가 다른 部門보다는 가장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自動車工業은 크게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A案의 경우 本格的인 自動車輸出국이 될 것이나 B案의 경우 消極的인 內需에 그치고 車種에 있어서도 貨車의 生産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A案의 경우 지금까지 開發되지 않았던 北韓地域의 公路가 훨씬 더 開發되고 1日生活圈으로 高速道路網을 建設할 것이 豫想되나 B案의 경우 그와같은 開發로 크게 진전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電子工業은 A案의 경우 1986년에는 生産額이 5조 3489億원으로 76年の 5,012億원의 10배이상으로 擴大될 것이며, 內需는 2조 8,710億원으로 76年の 14.2배나 늘고 輸出은 5,120百萬달러로 76年の 4.9배가 될 것인데 그 중요요인은 勞動人口의 增加로 供給能力이 增加되고 南北韓 總人口의 增加로 國內市場도 擴大될 것이며, 여전히 輸出産業으로써의 發展도 繼續할 것이기 때문이다. 南北韓統一後 가장 현저한 增加率을 기록할 수 있는 分野는 電子工業일 것이다.

그러나 B案의 경우 共產主義社會는 라디오, 텔레비존등의 mass-media의 開發을 許容할 수 없으므로 內需의 增加는 勿論이며 輸出도 크게 伸張되지 못하므로 電子工業은 A案과 B案의 格차가 가장 큰 部門이 될 것임이 分明하다.

네째로 輸入代替産業인 化學工業은 A案과 B案의 格차가 적을것이나 石油化學工業은 상당한 格차가 豫想된다.

다섯째로 消費財工業인 纖維工業의 生産展望은 1986년에 A案의 경우 1,717千吨으로 B案의 1,443千吨보다 19%정도 많으며 76~86年の 期間中の 增加量은 A案이 1,015.6千吨으로 B案의 696.3千吨보다 45.9%가 더 많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다른 生活必需品에 해당되는 輕工業部門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統一後의 에너지 需給展望

統一後의 에너지 需給은 石炭部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겠으

나 石油 및 原子力등의 部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開放体制下에서 가장 效率的인 經濟發展을 구상할 A案의 경우는 에너지源別 需給構造가 상당히 伸縮性있게 變化하면서 發展할 것이나 B案의 경우는 封鎖体制의 특성때문에 주로 石炭 및 水力등 国内賦存資源에의 依存으로 에너지源別 需給構造가 크게 硬直的인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南北韓의 에너지開發과 앞으로의 需給展望에 나타난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韓國에 있어서는 向後의 高度成長을 추진하는데 에너지增加率도 이와 같은 속도가 必要하다고 전제하고 世界全体의 에너지展望과 国内資源을 綜合하여 신축성있는 開發戰略을 樹立하고 있으므로 統一後 A案은 이러한 戰略이 維持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 需要에 있어서 韓國은 1人당에너지消費量을 1975年の 575달러에서 1991년에는 3,900달러로 6.78배로 增加시킬 計劃인데 이는 日本의 1972年の 3,514달러 英國의 1973年の 3,845달러 이탈리아의 1973年の 3,042달러보다 많으며 1971년에 있어서의 4,194달러나 西獨의 4,730달러 보다는 낮다. 1986년에는 無煙炭換算으로 추계한 總需要展望에 의하여 相對比率로 추정하면 2,500달러의 水準에 이를 것이다. 南北韓統一後 A案은 만일 北韓人口를 包含하여 1人당에너지消費量을 2,500달러로 하려면 에너지 總需要量은 86年の 人口比率이 南韓人口에 비해 統一人口는 1.47배로 豫상되므로 無煙炭換算으로 161,436千屯의 1.47배인

237,311千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韓國의 1991年の 需要量 260,226千吨 보다는 약간 적다.

北韓은 韓國에 비하여 比較的 豊富하게 매장된 石炭資源의 開發을 위해 「發展3大原則」을 제기하고 石炭과 電力을 주된 에너지源으로 設定하여 그 開發에 주력하고 있다. 70年代에 6個年計劃의 目標年度인 70년까지 石炭生産目標를 5,000 내지 5,300万吨으로 定하고 石炭生産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基本設備의 不振과 深部化되는 生産條件의 惡化등으로 計劃보다 未達한 4,250万吨의 実績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해의 韓國의 1,640만톤보다 2.6배나 되는 生産量이다.

統一後 A案의 경우에도 資源내셔널리즘時代에 直面하여 国内賦存資源을 最大限 開發해야 함은 變함이 없으며 특히 北韓地域에 比較的 豊富하게 매장된 石炭資源을 最大限 開發하여 에너지의 石炭依存率을 높이게 될 것은 B案의 경우와 같을 것이다.

北韓은 7個年計劃이 끝나는 84年の 石炭生産量을 最大限 8千万吨으로 計劃하고 있으며 南韓은 86年の 無煙炭供給量을 23百万吨으로 計劃하고 있으므로 統一의 경우 A, B案이 다같이 이들의 合計인 11千万吨 내외 즉 北韓地域의 86年生産量을 1億吨으로 본다면 約12千万吨의 供給이 可能할 것이다. 이것은 A案의 경우의 86年度 需要量 237百万吨의 50.6%에 해당된다.

그러나 石油 및 原子力등의 에너지依存率은 A案과 B案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韓國의 경우 石油依存度가 76년에 57%나 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石油依存度を 相對적으로 낮추어 91년에는 50%水準으로 減少시키며 그대신 石炭과 原子力의 比重을 76년의 32%에서 46%로 大幅增加시킬 것이며, 특히 原子力은 76년에는 전혀 없었으나 78년에 가동된 原子力發展과 앞으로 繼續 原子力發電所를 建設하여 81년에는 無煙炭換算 177萬屯으로 全体の 18%, 86년에는 16,416千屯으로 全体の 10.1%를 供給할 計劃이다. 이와같은 에너지供給方式은 統一後 A案에 繼續될 것이며, 다만 石油依存率은 北韓地域의 石炭供給擴大分만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表 37> 統一後 (A案)의 에너지需給展望

(單位: 無煙炭換算千屯)

	1975 (A)	1981	1986 (B)	$\frac{B}{A}$
總需要	110,261 (100.0)	145,617 (100.0)	237,311 (100.0)	2.15
石炭	58,445 (53.0)	82,758 (56.8)	123,364 (51.9)	2.11
水力	1,965 (1.8)	2,468 (1.7)	5,317 (2.2)	2.71
石油	29,733 (26.9)	44,977 (30.9)	83,112 (35.0)	2.79
原子力	-	1,770 (1.2)	16,416 (6.9)	-
薪炭	20,118 (18.2)	13,644 (9.4)	9,102 (3.8)	0.45

1) 韓國需要 × (1 + 北韓人口比率)

石炭供給增加와 人口增加로 인한 需要增加의 相互聯関關係에 의하여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이나 76年の 石油供給量 29,733千屯은 韓國의 供給量과 같으며 81年の 44,977千屯은 韓國의 供給量 63,738千屯 보다 18,761千屯 적고, 86年の 83,112千屯은 韓國의 供給量 88,790千屯 보다 5,678千屯이 적다. 이는 다른 에너지源別供給量과 需要量을 비교하여 不足分을 石油에 依存할 것으로 計算한 것인데 KDI의 추계 보다 작어져서 論理的으로도 타당하다.

水力은 北韓이 韓國의 1.5 ~ 2배로 보아 合算하였고 薪炭은 北韓이 韓國의 3배로 보아 合算하였으며 原子力은 韓國의 計劃量을 合算하였다.

統一後 B案의 경우는 石油依存이 거의 없어진 대신 薪炭依存이 다소 늘것이며 原子力依存은 韓國이 이미 建設한것에 依存할 것으로 보아 86年の 水準은 다소 低下될 것이다.

現在까지 北韓의 精油工場은 73年 9月 100万屯規模의 工場을 建設한데 불과하다. 그러나 統一後 南韓地域의 精油工場을 活用할 수 있으나 封鎖體制를 전제로할 때 현재의 石油輸入量보다 크게 增加시키지 않을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일 86년까지 76年の 石油供給보다 1.5 배정도만 增加된다고 가정하고 原子力은 81年の 水準에 그친다고 보며 薪炭은 76年과 같다고 보고 其他는 A案과 거의 같다고 할때 總供給量은 <表 38>과 같을 것이다.

A案의 경우는 需要가 供給量을 정하였으나 B案의 경우는 供給

<表 38> 統一後 (B案) 의 에너지需給展望

(單位 : 無煙炭換算 千噸)

	1976 (A)	1981	1986 (B)	$\frac{B}{A}$
石 炭	58,445(53.0)	82,758(57.3)	123,364(63.1)	2.11
水 力	1,965(1.8)	2,468(1.7)	5,317(2.7)	2.71
石 油	29,733(26.9)	37,166(25.7)	44,599(22.9)	1.50
原子力	-	1,770(1.2)	1,770(0.9)	1.00
新 炭	20,118(18.2)	20,118(13.9)	20,118(10.3)	1.00
總供給	110,261(100.0)	144,280(100.0)	195,108(100.0)	1.77
(A案)	110,261(100.0)	145,617(100.9)	237,311(121.6)	2.15

량이 需要量을 正하게 되며 그것이 곧 1人당에너지 消費量을 正하게 할 것이다.

2. 農水産業

가. 統一前의 現況과 展望

韓國에 있어서 農林水産業은 지난 1967 ~ 76 年에 年平均 3.8%의 成長率에 그쳐 鈷工業의 19.5%, 社會間接資本의 15.4%보다 는 말할 것도 없으며 全産業의 成長率 10.7%에 크게 뒤지고 있다. 그 結果 農林水産業의 GNP에 대한 相對的比重은 1966年

의 35.4%에서 76년에는 22.0%로 떨어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繼續되어 1986년에는 13.8%에 이를 것으로 豫測된다. 北韓에 있어서는 1961 ~ 70年の 期間中 農林水産業이 年平均 5.4%의 成長率로 鎡工業의 12.0%나 GNP의 8.3%보다는 低率이나 그 成長率 隔差가 韓國보다는 적다는 것은 한편 특이하다. 그러나 北韓의 農林水産業의 GNP에 대한 比重은 1970년에 21.6%로써 같은해 韓國의 27.9% 보다 적으며 1976年 現在 南北韓의 農業生産構造를 비교하면 <表 39>와 같다.

總耕地面積은 韓國이 2,347千町歩로써 北韓의 2,054千町歩보다 14.3% 더 넓다. 특히 畚面積은 韓國이 1,204千町歩로써 北韓의 633千町歩의 90.2%가 더 많으며 田面積은 北韓의 1,421千町歩가 韓國의 1,143千町歩보다 24.3% 더 많다. 그러나 韓國의 平均氣溫이 월 등히 높아서 農業生産에 유리하다.

農業人口는 1976年 現在 韓國은 1,315만名으로 全体人口의 36.7%인데, 北韓은 693萬名으로 42.5%이어서 相對的인人口比重은 北韓이 높으나 絶對人口는 韓國이 89.8%가 더 많다.

韓國에 있어서는 農業人口의 都市流出로 인하여 相對的으로 減少되고 있으나 특히 1968年 이후에는 絶對人口數가 年2.2%의 速度로 減少되고 있다.

農村人口의 轉出은 農村의 潛在的失業을 完化시키고 農家戶當 耕地面積을 增大시킬 것이나 한편 勞動能率이 높은 靑壯年層의 離農으로 農業勞動力構成을 弱화시킬 것이다. 이에 対応하여 農業機械

< 表 39 >

南北韓의 農業構造

- 1976 -

	韓 国(A)	北 韓(B)	B/A
總耕地面積 (千町步)	2,347	2,054	1.143
畝面積 (")	1,204	633	1.902
田面積 (")	1,143	1,421	0.804
農業人口 (千人)	13,153	6,930	1.898
總人口比重 (%)	36.7	42.5	-
年平均氣溫	10° ~ 14°	2° ~ 10°	-
農林漁業生產額 (10 億원)	2,891	1.62 ¹⁾	-
對 GNP 比率 (%)	22.0	21.6 ¹⁾	-

1) 1970 年度임.

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 農業人口의 相對的比重은 韓國보다 높으나 絶對人口가 현저히 不足하며 따라서 耕地面積에 대한 人口比率은 韓國보다 적을 것이므로 農業勞動力 不足現象이 한層 더할 것이다. 따라서 農業機械化의 必要性은 北韓이 한層 더 切實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韓國의 農業機械化는 1976年現在 耕耘機 122千台, 防除機 164千台, 揚水機 85.7千台, 脱穀機 144.8千台등을 保有하고 있으나

트랙타는 790 台뿐이다. 트랙타는 앞으로 86 年에 15 千台로 增加 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다른 機械類는 몰라도 트랙타가 7 ~ 8 万台로 추산하고 있어 農業機械化에는 앞서 있다. 이는 農業勞動力이 不足하고 田作의 比率率이 많으며 集團農場形態로 生産組織이 大型化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北韓은 1954 ~ 59 年에 社會主義의 協同農場體制를 完成시켰고 일찍부터 機械化를 시작했으나 韓國은 1970 年代에 새마을運動에 참여 機械化의 先行條件인 農路擴張, 耕地 및 區劃整理, 集團栽培 農業의 協同化가 可能함으로써 最近에 이르러 機械化가 急激히 進전되고 있으며 비록 出發은 늦지만 發展速度는 北韓을 앞지르고 있다.

農業生産 基盤에 있어 이밖에 水利 및 灌溉施設, 施肥 및 農藥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는 南北韓의 큰 차이가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品種改良등에 의해 土地生産性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韓國의 育種水準은 世界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좋은 育種理論과 經驗을 蓄積에 기울지 않았으며 最新 種施設과 특히 國際的 育種研究機構와의 交流等 不斷한 努力의 結果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하여 育種部門에는 北韓이 韓國보다 落後되고 있으며 이는 國際的 交流의 부족 理論과 技術의 開發不足에 기인되고 있을 것이며, 現在 北韓에서 재배하고 있는 主要作物의 品種水準을 보아서 알 수 있다.

특히 畝面積 1 町步當 粟生産量이 韓國은 3.88 屯이나 北韓의

경우 2.98 屯으로 76.8%에 불과한 것은 무엇보다도 品種改良과 當農技術등에 있어 落後된 까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果實, 蔬菜 및 特用作物과 畜産 및 養蚕등의 經濟性이 높은 農業部門은 北韓이 韓國보다 뒤떨어진 것이 分明하다.

韓國의 所得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畜産物需要가 急増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畜産業育成에 크게 努力하였으며 特用作物과 養蚕등은 經濟性도 높을뿐 아니라 海外輸出과 연결되어 크게 增加되고 있으며 68年以後 農村所得増大事業과 70年代의 새마을事業으로 이 部門의 發展이 加速化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食糧供給에도 苦慮해야할 形便이며 市場經濟가 없으므로 經濟作物이 권장될 수 없거니와 특히 輸出과 연결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1976年度의 南北韓의 穀物生産実績을 보면 <表 40>과 같다.

이를 人口와 比較하여 1人當生産量과 需要量을 추정할 수도 있다.

韓國의 경우 쌀 生産量은 4,669千屯으로 1人當 130.2 kg인데 消費量은 4,538千屯으로 1人當 126.6 kg이었으므로 131千屯의 剩餘가 생긴 것이다.

北韓의 쌀 生産量은 1,884千屯으로 1人當 115.9 kg로써 韓國의 1人當消費量 126.6 kg에 비하면 91.5%의 水準이다. 그러나 韓國은 穀物の 總生産量이 7,692千屯이나 消費量은 10,270千屯으로 2,578千屯을 海外輸入에 依存하였으며 1人當穀物消費量은 286 kg에 이른 것이다. 이에 比較하여 北韓은 穀物の 總生産量이 4,542千屯으로 1人當 279.5 kg에 불과하여 韓國의 消費量에 비하면 97.7

< 表 40 >

南北韓의 穀物需給

- 1976 年 -

	韓 国			北 韓			
	總生産量 (A)	消費量	1人当 消費量 (B)	總生産 量(C)	1人当 生産量 (D)	C A	D B
穀物總生産	7,692	10,270	286.0	4,542	279.5	59.0	97.7
(옥수수除外)	7,632	9,299	259.5	2,391	147.1	31.3	56.7
쌀	4,669	4,538	126.6	1,884	115.9	40.3	91.5
보리쌀	1,759	1,713	47.8	59	3.6	3.4	3.4
밀	82	1,819	50.7	-	-	0.0	0.0
콩	311	418	11.7	-	-	0.0	0.0
薯類	718	718	20.0	208	12.8	29.0	64.0
옥수수	60	971	27.1	2,151	132.4	3.585.0	488.6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穀物의 種類에 있어서 北韓은 옥수수가 2,151 千屯으로 47.3%를 차지하고 있으며 韓國은 옥수수消費량은 9.4%에 불과한것과 對照的이다. 더욱이 韓國은 옥수수生産은 6 万屯으로 穀物全體의 0.7%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911 千屯을 輸入해온 것은 家畜飼料로 使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國際的으로도 옥수수는 食糧이라기 보다 飼料에 包含시키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飼料에 해당되는 옥수수가 47.3%나 되는 것이다. 만일 옥수수를 제외하면 北韓의 1人当穀物消費는 147.1 kg로써 韓

국의 51.4%에 불과한 것이다.

나. 統一後의 農業展望

統一後에 있어서 農業部門의 生産基盤과 GNP에서 차지하는 相對的比重등은 A案과 B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案의 경우 穀物の 消費量의 制限이 없을 것이므로 海外輸入依存이 있을 것이고 B案은 生産範圍內的 消費를 強要하게 될 것이나, 穀物の 需給에 있어서 커다란 격차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한편 特用作物과 畜産 및 養蚕등의 部門에 있어서는 A案과 B案의 상당한 隔差가 豫測되고, 水産業도 遠洋漁業에 있어 A案과 B案의 격차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主要穀物生産량을 推定해보면 76年現在 쌀은 4,669千屯의 生産량을 기록한 韓國과 北韓의 1,884千屯의 生産량을 합하면 6,553千屯이지만 A案의 경우 北韓地域의 畝面積當 生産量이 南韓地域과 같아진다면 2,456千屯으로 增加될 것이며 이를 4,669千屯과 합하면 7,125千屯으로 豫想된다. 이를 KDI가 推計한 1981年 및 1986年の 쌀生産量의 76年對比增加率을 곱하면 1981년에는 8,619千屯, 86년에는 9,780千屯으로 豫想되며 穀物總生産量도 米穀增産分을 調整하여 KDI의 推計에 의한 年增加率을 2.65%로 적용하면 <表41>과 같다. B案의 경우에도 穀物生産量에 큰 變化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B案의 경우 쌀의

<表 41>

쌀 및 穀類生産展望

- 統一後 A案 -

	1976	1981	1986	年增加率
쌀	7.125	8.619	9,780	2.6
穀物	12.806	14,559	16,553	2.6

土地生産性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豫想되나 具體적으로 推定할 根拠가 없어서 計算하지 않았다.

다음 特用作物의 경우 種類가 多樣하고 消費에 있어 品種別代替性이 많다.

특히 蔬菜類는 栽培技術의 向上으로 年中 어느때나 生産이 可能하고 肉類消費量의 增加와 더불어 補完的인 需要가 增加될 것이며

果實類는 新品種의 開發과 所得向上에 따른 消費增加가 豫想된다.

그러나 A案에 비하여 B案의 경우 市場經濟가 없으므로 需要의 變化를 豫想할 수 없고 따라서 生産에 있어서도 多樣化와 量的인

成長을 다같이 기대할 수 없다. KDI의 推計에 의하면 穀物の 生産增加率이 87 ~ 91년에 있어 年 2.58%에 비해 蔬菜類는 年

7.26%, 果實類는 6.85%의 生産增加率을 豫想하고 있어 穀物보

다 높은 增加率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統一後 A案의 경우에

더욱 크게 적용될 것이다. 특히 北韓地域은 田面積이 南韓地域보

다 높고 옥수수生産량이 많은데 統一後에는 그 一部分가 蔬菜 및

果実生産에 轉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畜産用飼料의 需要가 增大되므로 옥수수 需要도 커질 것이므로 크게 轉換되지는 못할 것이다.

畜産物은 A案의 경우 가장 높은 增加率을 보일 것이다. 앞으로 韓國的經濟成長에 있어서 畜産物과 水産物의 消費增加率은 飮食物에 있어서 가장 클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이다. KDI의 推計에 의하면 肉類의 1人当消費는 1976年의 6.84 kg에서 81년에는 8.82 kg, 86년에는 11.25 kg로 77~81년에는 年5.2%, 82~86년에는 4.99%의 成長率을 보일 것이며, 水産物의 1人当消費는 1976年의 47.81 kg에서 81년에는 68.09 kg, 86년에는 93.71 kg로 77~81년에는 年7.33%, 82~86년에는 6.6%의 높은 增加率을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食生活의 變化

<表 42> 韓國의 1人当消費量

(單位: kg)

	1976	1981	1986	年增加率(%)	
				77-81	82-86
穀物	286.00(64.0)	301.57(57.8)	326.02(53.0)	1.07	1.57
蔬菜類	89.11(19.9)	119.05(22.8)	152.49(24.8)	5.96	5.08
果実類	17.22(3.9)	23.87(4.6)	31.56(5.1)	6.75	5.74
肉類	6.84(1.5)	8.82(1.7)	11.25(1.8)	5.22	4.99
水産物	47.81(10.6)	68.09(13.1)	93.71(15.2)	9.04	8.34
合計	446.98(100.0)	521.40(100.0)	615.03(100.0)	-	-

를 살피기 위해 穀物, 蔬菜, 果實, 肉類, 水産物의 1人当消費量과 그 構成比의 變化를 보면 <表 42>와 같다.

A案의 경우 반드시 南北韓의 統合人口의 消費水準을 이와같이 向上시킬 수는 없을 것 같으나 總生産의 增加가 可能하다면 消費水準의 向上이 可能할 것이다. 北韓地域의 田面積이 많으므로 相對的으로 相對的으로 穀物을 감소시키는 대신 果實과 채소, 그리고 畜産의 增加可能性은 크다고 생각한다. B案의 경우에는 穀物의 生産比率이 커지고 果實과 蔬菜類등이 相對的으로 적을 것임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다.

3. 社会間接資本

가. 統一前의 現況과 展望

北韓에 있어서는 모든 生産手段이 社会的所有이므로 社会間接資本이라는 概念이 따로 없으나 우리가, 社会間接資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部門, 즉 電力, 建設, 輸送, 通信등의 部門을 생각할 수 있다.

電力은 第2次에너지部門으로 에너지産業에 해당되나 南北韓의 發展施設과 現況을 보면 1976年現在 韓國의 發電施設은 481万kw이고 北韓은 454万kw로 큰 차이가 없으며 發電量에 있어서도 韓國이 231億kwH, 北韓이 220億kwH로 역시 큰 차이가 없다.

韓國에 있어서 電力需要는 GNP成長보다도 急速히 伸張될 것으로 보이며, KDI의 추계에 의하면 1977-81년에 年平均15.6%, 1982 - 86년에 年平均12.1%로써 GNP의 成長率보다 높게 추정

하였다.

그러나 電力의 第1次에 너지源別로 分析하면 韓國은 1976年까지 火力이 93.3% 水力이 6.7%이나 北韓은 1970年까지 水力이 85%, 火力이 15%로 그 構造가 크게 다르다. 韓國에 있어서는 火力中에도 油類에 依存하는 比重이 全體의 85.5%나 되나 앞으로 1991년에는 17.5%로 감소되고 原子力依存이 60.8%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할 것으로 計劃되고 있다.

北韓에 있어서도 1976년에는 火力의 比重이 50%로 增加될 計劃이며, 이는 動力需要의 增加에 비하여 水資源依存의 限界性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이 火力依存은 油類의 供給이 制限되었기 때문에 주로 石炭과 薪炭에 依存되어야 하므로 이 역시 크게 伸張하기 어려운 形便이다.

建設部門은 南北韓의 比較가 매우 어렵지만, 韓國은 最近 中東을 비롯하여 建設業의 海外進出이 活潑해지고 建設業이 急速하게 伸張되고 있으나 北韓은 이러한 海外進出이 不可能한만큼 다른 어느 部門보다도 南北韓의 格차가 크다고 생각한다. 韓國의 建設業은 60年代까지는 經濟成長에 따른 國內建設의 增加와 더불어 成長해 왔으나 70年代 특히 石油波動後에는 中東붐을 통해 海外建設 發注額이 76년에 25億달러를 초과했고 78년에는 70億달러이상에 이를 것으로 앞으로는 海外要因이 建設業成長에 큰 比重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國內建設에만 依存하는 北韓의 建設業은 韓國에 비해 커다란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韓國의 建

設業은 國際的水準으로 向上되고 있으나 北韓의 建設水準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한편 運輸 및 保管業은 1976年現在 韓國의 경우 附加價值生産이 GNP의 5.2%를 차지하였다. 이는 1962年の 2.7%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이다.

1976年の GNP는 12조 1,434 億원인데 國內貨物輸送은 196 億屯 - km로써 GNP 1달러당 貨物輸送量이 約 1屯 - km에 到達하여 先進國水準에 이른 것이다. 앞으로 1986년에는 1975年不變價格으로 29조 7千億원에 이를 것이고 貨物輸送量은 660 億屯 - km가 될 것이다.

한편 旅客輸送量도 1976년에 586 億人 - km이었는데 86년에는 1,520 億人 - km로 늘어날 것이다. 이와같은 物量 및 旅客의 輸送 需要의 增加는 經濟規模의 急成長에 따라 불가피하다.

韓國의 경우 輸送手段別로 分析할때에 貨物輸送은 1976年 總輸送量인 196 億屯 - km중 50.7%가 鐵道이고, 22.1%가 公路, 27.2%가 海運이며, 특히 無煙炭, 肥料, 鉍石, 시멘트, 糧穀, 木材, 油類 등의 大量貨物이 鐵道에 依存되고 있다. 그러나 旅客輸送에 있어서는 總 569 億人 - km중 公路가 73.3%, 鐵道가 24.9%의 分担率을 보였고 航空, 海運 및 地下鐵은 0.6 ~ 0.7%에 불과하나 앞으로 都市化와 所得增大의 傾向에 따라 地下鐵이 大衆交通手段이 되고 航空利用이 높아지면 이 部門의 分担率도 커질 것이다.

北韓의 경우 輸送手段은 1976年 現在 貨物의 경우 總 237 億屯 - km의 90.5%가 鐵道이고 7.0%가 道路 2.6%가 海運으로 分

担되었고, 旅客의 경우에도 138 億人 - km 중 鐵道가 61.8%, 道路가 37.8%, 海運이 0.4%로 鐵道依存度가 圧倒的이다.

이는 地形關係등의 要因도 있으나 北韓의 경우 基本的으로 高速道路의 建設이 없는등 公路利用의 与件이 開發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一般的으로 高速道路의 建設과 自動車台數가 增加되면 이에 反比例해서 鐵道利用이 減少되는 것이 先進各國의 共通된 經驗인데 韓國은 이러한 추세를 걸고 있으나 北韓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表 43>와 같이 1976年現在 北韓은 鐵道總延長이 4,324 km 로써 韓國의 5,631 km에 비하면 76.8%의 規模인데 道路의 總延長은 2萬 km로써 韓國의 45千 km에 비하면 44.4%에 해당되어 相對的으로 道路裝備率이 더욱이 鐵道에 있어 總延長은 작지만 電 鐵化된 鐵道는 1,223 km로써 韓國의 424 km의 2.9배나 되며, 機 關車保有台數는 812台로 韓國의 773台보다 많고 貨車도 19,578 台로 韓國의 16,055台보다 많으며, 더욱이 貨物輸送量은 7.183萬 屯으로 韓國의 4,396萬屯보다 63%가 더 많다.

이에 비하여 道路는 總延長이 우리의 절반도 못될 뿐 아니라 韓國은 高速度道路가 1,142 km인데 北韓은 전혀 없으며, 包裝道路 도 韓國의 1,056 km에 비해 北韓은 697 km로 적고 自動車保有台 數도 韓國의 256,335台에 비하여 北韓은 138千台로 53.8%에 不過하다.

北韓은 地理的으로 不利한 條件때문에 海運手段은 더욱 不振하여 港灣의 荷役能力은 韓國의 35.7%에 불과하고 더욱이 船舶保有는

<表 43>

南北韓의 輸送部門現況

- 1976 -

	單位	韓國(A)	北韓(B)	$\frac{B}{A}$ (%)
鐵道總延長	km	5,631	4,324	76.8
電 鐵	km	424	1,223	288.4
機關車	台	773	812	105.0
貨 車	台	16,055	19,578	121.9
貨物輸送	千 屯	43,960	71,830	163.4
道路總延長	km	44,906	20,000	44.5
高速道路	km	1,142	-	0.0
包裝道路	km	1,056	697	66.0
自動車	台	256,335	138,000	53.8
港灣荷役能力	千 屯	56,000	20,000	35.7
船 舶	千 屯	3,060	186	6.1

資料：国土統一院

6.1%에 불과하다. 이는 海岸의 連結部門이 南韓地域에 位置한 채 分斷됨으로써 東海와 西海間의 海運이 不可能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韓國은 國際輸送에 있어 旅客은 航空手段이 97.1%, 貨物은 海運이 99.8%의 分担率으로써 각각 航空과 海運이 크게 發

達되고 있으나 北韓은 貿易도 적고 封鎖體系下에서 國際間的 人的 物的交流가 消極的이므로 自然히 國際輸送手段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나. 統一後의 展望

(1) 電力

社會間接資本에 있어서 電力部門은 統一後에도 큰 變化가 없겠으나 輸送部門에 있어서는 커다란 變化가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電力部門은 統一後에는 南北韓의 現在의 發電容量과 장차의 計劃이 서로 補完되어 에너지源別로 水力, 火力, 原子力이 조화되면서 火力 등의 油類依存을 相對的으로 감소시켜나갈 것이다. 다만 A案에 비하여 B案의 경우 原子力發電所의 追加設立이 可能할 것인지 의문되며 따라서 發電用에너지에 있어서의 原子力の 比重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2) 輸送

輸送部門은 統一以後 劃期的인 變化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休戰線에 의한 韓半島의 分斷은 서울을 中心으로 연결되었던 輸送體系가 무너지고 특히 北韓은 地形的인 條件으로 인하여 東西間의 輸送이 매우 어렵고 海運業의 發達이 困難하였다. 그러나 統一이 이루어지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韓半島의 中部를 연결하는 南北韓全地域의 交通이 이루어지고 특히 A案의 경우 高速道, 路의 建設에 의해 北韓地域도 1日生活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現在 高速道路는 国内는 勿論이며 海外建設의 經驗을 갖고 있으므로 A案의 경우 北韓地域의 高速道路建設은 時間問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北韓地域에서 生産되는 石炭供給이 豊富하므로 電力과 鐵道의 開發도 活潑하며 鐵道網도 南北韓을 連結하여 크게 發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數量的으로 計算할 수는 없으나 大體로 A案의 경우 貨物輸送量은 GNP 1弗當 1屯-km에 거의 肉迫할 것으로 보면 A案의 경우 <表 26>의 資料를 보면 1981년에는 1975年價格으로 GNP가 658億弗이 되고 86년에는 1,352億弗이 될 것이므로 輸送量도 A案의 경우 1981년에는 650億屯-km内外이고 1986년에는 1,350億屯-km内外가 될 것이다. 그러나 B案의 경우에는 公路의 輸送分担率이 저하되고 全體的으로 GNP 1弗當 輸送量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GNP의 격차도 있으므로 貨物輸送에 있어서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

GNP 1弗當 輸送量을 적게 평가하는 이유는 旅客이나 貨物의 移動에 많은 制限이 따를 것이며, 특히 封鎖體制이므로 貿易依存度가 크게 감소하여 海外輸送은 勿論이며 그와 連結되는 国内輸送도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B案의 경우 76年現在의 北韓의 GNP 1弗當 貨物輸送量은 0.7屯-km로 추산되므로 B案에는 0.7屯-km를 적용하면 76년에는 224億屯-km, 81년에는 407億屯-km, 86년에는 740億屯-km로서 A案에 비하면 76년에는 70% 81년에는 61.8%, 86년에는 54.7%로 그 격차가 점점 커질

것이다.

旅客輸送에 있어서는 A案과 B案이 더욱 현저하게 차이가 생길 것
 것이다. 北韓式的 統制經濟에 있어서는 레이저人口는 상상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季節을 따라 觀光旅行을 할 수 있는 A案의 경우

< 表 44 > 統一後의 貨物輸送

	單位	1976 (A)	1981	1986 (B)	$\frac{B}{A}$
A案					
GNP	億달러	320	683	1,461	4.2
貨物輸送 ¹⁾	億吨 - km	320	683	1,461	4.2
B案					
GNP	億달러	320	582	1,058	3.3
貨物輸送 ²⁾	億吨 - km	224	407	740	3.3

1) GNP 1 弗当 1 吨 - km

2) GNP 1 弗当 0.7 吨 - km

와 極히 統制될 것으로 보이는 B案의 경우의 旅客輸送의 격차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나 計數化할 對比資料가 없어, 數量分
 析은 생략하겠다. 註12)

(3) 通 信

通信部門에 있어서도 A案과 B案은 顯著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는 現代社會에 있어 신경과 같은 通信手段의 開發에 크게 注力하고 있으며, 通信은 輸送과 함께, 때로는 輸送의 役割을 代替하면서까지 그 需要가 급증되고 있으므로 最適通信體系의 確立을 目標로 하고 있다. 더욱이 高度의 情報社會에 있어 對話뿐 아니라 데이터 또는 圖像 등의 情報傳達機能을 통해 産業社會의 活動을 向上시키고 企業活動의 效率을 높이며 國際化를 促進시켜 나갈 것이다.

1976年現在 電話需要는 1,913千回線이나 77~81년에는 年平均 15.2%의 높은 伸張率로 81년까지 3,889千回線으로 擴大시키고 82~86년에는 年平均 14.0%의 伸張率로 86년까지 8,452千回線으로 늘려 10年동안 4.4배가 될 것이며 電信施設은 3,810回線에서 77~81년에 年平均 20.6%의 伸張率로 81년에는 9,700回線, 82-86년에는 8.7%의 伸張率로 86년까지 14,490回線으로 10年間 3.8배가 될 것이며 電話器의 普及台數는 76년에 100人當 4.6台에서 86년에는 25.8대로 增加시킬 計劃이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는 現在 通信網의 構成이 주로 行政目的과 國家主要企業所 또는 作業所에 重點적으로 設置하고 있을뿐 一般的으로는 極히 制限된 通信手段을 강구하여왔다. 北韓은 通信施設로 소련, 中共, 東獨, 헝가리, 체코, 日本 등의 外國產과 北韓製의 電話機를 병용하고 있으며 1976年現在 電話台數는 30万台로 推算되는데

一般人的 電話加入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큰 擴張은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 韓國의 1986년에는 電話加入供給量 8,198千回線中 家庭用이 4,770千回線으로 58.2%, 91년에는 14,254千回線中 家庭用이 10,076回線으로 70.7%를 차지할 것인데 이밖에 業務用도 大部分 民間企業이 많으므로 北韓式의 電話供給方式과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A案의 경우 北韓地域의 坊坊曲曲에 電話 및 通信施設이 設置되고 北韓地域에 南韓地域으로 부터 많은 住民이 移住할 뿐 아니라 通信量이 늘어날 것이므로 電話 및 通信需要는 北韓人口分만큼 더 增加될 것으로 보이나 供給能力의 制限을 받아 그 伸張率이 決定될 것이다.

그러나 通信施設의 供給能力도 北韓經濟가 吸收되고 國防費등의 節減으로 인한 投資轉換分등을 감안할때 社会間接部門, 특히 緊急한 需要가 豫想되는 輸送, 通信部門에는 크게 增加할 것이다. A案의 경우 全國民이 需要者인 同時에 投資家이므로 通信部門의 伸張率은 크게 增加될 것이다.

그러나 B案의 경우에는 統制經濟가 繼續되는限 通信의 自由가 保障되지 못하고 특히 一般人的 通信施設利用이 制限될 것이므로 現在 南韓이 保有한 施設보다 더 크게 伸張될 展望은 적다.

4. 貿易과 國際收支

가. 南北韓의 貿易構造와 政策基調

韓國은 1960년에 輸出總額이 不過 32.8 百萬달러로써 北韓의 154 百萬달러의 21%이었으나 1976년에는 7,715 百萬달러로 늘어나 北韓의 660 百萬달러의 11.7배에 이르게 되었다.

南北韓이 1次產品輸出에 그쳤던 1960년에는 北韓의 資源이 많으므로 輸出이 많았으나 韓國은 輸出主導의 成長을 했고 北韓은 內需爲主의 成長을 하였기 때문에 그토록 엄청난 隔差를 가져왔다. 어차피 資源不足한 南北韓이 앞으로 開放型成長과 閉鎖型成長의 어느것을 選擇하느냐에 따라 점점 더 엄청난 隔差로 擴大될 것이며 이는 곧 國民經濟全體, 즉 GNP 成長의 隔差의 가장 重要한 要因이 될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 輸出入이 産業發展에 얼마나 影響을 주고 있는가는 産業聯関分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먼저 輸出의 生産誘發效果를 보면 1960년에는 4.2%로 아주 적었으나 66년에는 10.6%, 73년에는 25.5%로 繼續 높아졌다. 이에 反하여 國內消費의 生産誘發依存度는 60년의 84.1%에서 66년에는 72.8%, 73년에는 56.9%로 繼續 감소되었고 投資의 生産誘發依存度는 60년의 11.7%에서 66년에는 16.6%, 73년에는 17.6%로 역시 꾸준히 增加되었으나 輸出의 生産誘發效果보다는 적게 增加되었다. 앞으로도 韓國과 같이 國內市場이 狹少한 나라에서는 輸出이 生産

誘發과 成長을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 분명하다.

KDI의 추계에 의하면 GNP에 대한 輸出依存度는 1976年の 30%에서 81년에는 42%, 91년에는 55%의水準으로 크게 높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1991年の 輸出總額은 1975年價格으로 543億달러로 추계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人口 45万名에 대해 1人당 1,200달러이다.

네델란드와 스웨덴은 이미 1962년에 1人당 1,200달러의 輸出을 이룩하였고, 現在에는 2,000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며, 現在 우리의 1990年代의 人口規模보다 上廻하는 西獨과 프랑스는 1人당 1,500달러의水準에 있으므로 앞으로 15年後에 이들의水準을 따라가는 것은 지나치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註13)

그러나 1人당 輸出額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輸出構造가 重化学工業

<表 45> 輸出 및 最終需要의 生産誘發效果

(單位: %)

	1960	1966	1973
輸出依存度	4.2	10.6	25.5
消費依存度	84.1	72.8	56.9
投資依存度	11.7	16.6	17.6
合計	100.0	100.0	100.0

資料: 各年度の 産業聯関分析

品中心으로 高度化되어야 할 것임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편 輸入을 生産總額으로 나눈 輸入係數는 1960年의 12.3%에서 73년에는 18.0%로 크게 增加되었다. 또한 1973年の 輸入商品의 用途를 보면 全輸入額의 73.8%가 中間財이고, 나머지 26.6%가 最終需要部門에 使用되었는데 그중에서도 18.5%가 投資財이고 消費財는 7.7%에 불과하였다. 이와같이 資源이 不足한 우리나라에서 中間財의 輸入依存은 産業成長에 크게 寄与하였으며 이와같은 높은 輸入依存이 없이는 産業成長이 不可能하였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自給自足原則 (Autarky)에 따라 60年代末까지는 輸出의 範圍에서 輸入을 했을뿐 아니라 輸出에 있어서도 1次産品만을 輸出하였을뿐 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製造, 즉 輸出産業을 育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1970年代에 資本財의 輸入이 없이는 計劃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貿易赤字를 許容하면서 輸入을 擴大하려 했으나 輸出産業을 育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元利金償還能力이 없어서 貿易赤字를 擴大시키지도 못하는 形便인 것이다. 그리하여 GNP에 대한 輸出依存度는 1961年の 9.4%에 비하여 年度別로 起伏이 많을뿐아니라 76年에도 11.4%로써 크게 增加되지 못하였다. 輸入依存度도 역시 1961年の 9.8%에서 76년에 14.3%로 크게 늘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北韓의 輸出商品構成에 있어서는 1976年에도 1次産品이 65%를 차지하고 工産品은 35%에 불과하였으며 韓國의 10%대 90%의 構成比와는 对照的이다.

<表 46 >

南北韓의 輸出入依存度

(單位: %)

	1961	1966	1970	1976
輸出依存度				
韓國	1.7	6.6	10.2	30.7
北韓	9.4	10.0	9.9	11.4
輸入依存度				
韓國	13.1	18.8	24.3	35.0
北韓	9.8	9.9	11.7	14.3

특히 北韓의 貿易政策은 國家經理에 의한 「計劃貿易」으로 實施되고 있으므로 貿易은 어디까지나 國內經濟에 종속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들은 社會主義經濟建設을 위하여 必要한 物資를 일정한 輸入計劃에 따라 輸入하고 輸出은 이와같은 輸入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므로 무엇 이던지 있는 財貨를 輸出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輸出產業이 生産活動을 擴大시키고 輸出이 GNP成長을 주도한다는 積極的인 概念이 아니고 國內産業을 위해 必要한 物資의 輸入을 위하여 輸出하는데 불과하므로 消極的인 것이다. 이것은 너시 (R. Nurkse)가 敗北主義的 解決策이라고指摘한 初期 共產主義의 輸入制限政策의 결과와 關聯된다고 볼 수 있다. 後進國이 先進國의 誇示效果 (demonstration effect)를 도입해서는 안되

므로 鐵의 帳幕을 쳐놓고 對外交流을 차단하므로써 輸入을 제한하고 消費財生産을 抑制해 온 것이다. 이와같은 政策의 結果 消費에 있어서의 誇示效果도 없고 高級의 消費財産業도 없기때문에 對先進國의 工產品輸出도 不可能할 것임은 린다(S. B. Linder)의 代表的需要理論을 통하여 例示할 수 있다. 例컨데 北極人이 冷房器具를 輸出할 수 없고 赤道人이 溫房器具를 輸出할 수 없듯이 誇示效果를 막기 위해 消費財를 生産하지 않는 共產國家가 消費財 輸出은 不可能한 것이다.

나. 統一假定下의 貿易展望

(1) 輸出展望

그러므로 統一假定下에서도 積極的인 貿易擴大를 추구하는 A案과 消極的으로 貿易開放을 制限하는 B案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으로 豫測된다.

우선 A案에 있어서는 輸出供給能力에 있어서 現在 韓國이 開發한 輸出産業과 輸出力量에다가 北韓地域의 資源 및 勞動力등에 의한 輸出品의 生産潛在力을 合한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輸出은 相對國의 輸入需要 즉 韓國을 제외한 全世界各國의 韓國製品에 대한 輸入需要에 依存되므로 世界經濟의 動向과 크게 關聯된다.

A案의 경우 自由陣營과의 유대를 위주로 하면서 最近 東北亞의 情勢變化에 따른 對共產圈貿易의 可能性에도 依存될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A案에 있어서의 對共產圈 接近可能性과 B案에 있어서의 對自由圈 接近可能性이 거의 같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後者가 더 클지도 모르지만, B案은 스스로가 貿易에 있어 消極적이기 때문에 A案보다 貿易의 擴大가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A案의 경우의 對外貿易環境은 現在의 韓國의 環境에 비하면 統一時에는 分斷時에 비하여 對共產圈接近의 可能性은 다소라도 改善될 것으로 보므로 對自動圈貿易을 중심으로 分析한 現在의 韓國의 環境에 이를 加味하면 될 것이다.

앞으로의 世界經濟는 資源民族主義의 抬頭, 保護貿易主義의 傾向, 南北經濟關係의 긴장등으로 世界貿易規模는 1960代와 같은 伸張은 不可能할 것이다. 특히 成長의 鈍化에 따른 先進諸國의 높은 失業率은 증가되 하계 開發途上國의 輕工業製品에 대한 輸入制限을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輸出展望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A案의 경우는 輕工業輸出로 부터 重工業輸出로 輸出構造를 改善할 것이 要求되는데 分斷狀態의 韓國에 비하여 統一後의 韓國은 重工業比重이 컸던 北韓地域이 加勢된 만큼 輸出競爭力은 커질 것으로 생각되며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比重도 增大될 것이다. 그러나 北韓人口를 合한 統一後의 人口에 대해 現在 韓國에서 計劃하고 있는 1人當輸出額과 같은 水準의 輸出이 可能할지는 의문이다. 만일 이와같은 水準이라면 <表47>의 A₁과 같이 1986년에는 455億원으로 76年の 南北韓輸出実績보다 5.9배가 된다. 한편 76年の 南北韓実績의 南北韓1人當輸出額은 147달러로 韓國

<表 47 >

統一後 輸出展望 (A 案)

(單位 : 75 年美 \$)

	단 위	1976	1981	1986
人口	千名	52,018	56,871	62,177
1人当輸出(1)	달러	147	310	551
韓國의 1人当輸出	달러	195	412	732
輸出總額 (A ₁)	百万달러	10,143	23,430	45,514
輸出總額 (A ₂)	百万달러	7,656	17,630	34,310
輸出總額 (A ₂)	百万달러	8,910	20,530	39,918

의 1人当輸出額 195 달러의 75.4 %인데 81 年에도 韓國의 1人当輸出額의 75.4 %인 310 億달러와 551 億달러로 計算하면 <表 47 >의 A₂와 같이 176 億달러와 343 億달러가 된다. 그러나 이는 統一後에도 分断時의 1人当輸出의 比率을 韓國의 豫測值에 적용시킴으로써 다소 과소평가된 것 같다. 따라서 1人当 輸出額을 韓國의 1人当輸出과 1人当輸出(1)의 平均値를 挾하면 1人当輸出(2)는 81 年에 361 달러, 86 年에 642 億달러가 되며 이를 적용시키면 輸出總額(A₃)은 81 年에 205 億달러 86 年에 399 億달러가 된다. 여기서 A₃가 가장 合理的일 것 같다고 생각된다. 86 年에 1人当輸出額이 642 億달러가 된다면 日本이 75 年에 607 億달러이었으므로 大体로 비슷한 数字이다.

現在 韓國의 輸出構造의 轉換 내지는 高度化計劃을 보면 賦存資源이나 技術能力등을 감안하여 高度로 資本集約的인 重化學工業보다는 技術集約性인 産業分野에 力點을 주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를 包含한 輸入原資材를 적게 投入하면서 附加價值가 큰 各種의 機械類와 鉄鋼 및 金屬製品등의 比重이 커질 것이다. A案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輸出構造를 유지할 것이며 北韓地域의 鉄鉍石資源을 이용하여 鉄鋼, 金屬製品 및 機械類가 比較優位를 갖게 될 것이다. 北韓의 1974年度 對소輸出構成을 보면 機械 設備등이 10.1% 鉍物原料 및 金屬이 3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註14)} 앞으로 統一後의 重化學工業中心의 輸出轉換에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와 資源賦存與件이 비슷한 日本은 1975년에 이미 87.6%의 重化學工業製品을 輸出하였는데 韓國은 1991년에 72.5%의 構成比를 計劃하고 있으나 南北統一後에는 그 構成比가 몇年이고 앞당겨 達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76年現在 34.0%를 기록하고 있는 韓國의 重化學製品構成比가 86年에 62.5%로 커진다면 1년에 2.85%포인트씩 增加될 것이므로 만일 그 1割씩만 더 重工業輸出比重이 加速化된다고 보면 1년에 3.1%포인트씩 改善되며 86년에는 $34.0 + 31.0 = 65.0\%$ 의 比重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韓國의 86年 重化學工業 輸出比重인 62.5%보다 2.5%포인트가 더 크며, 75年現在의 네델란드의 64.8%와 거의 같다.

한편 1次産品の 比重은 韓國의 경우 76年現在 4.6%에서 86년에는 1.9%로써 매년 2.7%포인트씩 감소될 것으로 보았으나 A案의 경우 北韓地域의 資源 및 1次産品の 生産量이 커지면 全體의 輸出伸張率과 거의 같은 比率로 增加하여 現在의 構成比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輕工業製品의 輸出構成比는 30.4%가 될 것이므로 韓國의 1986年の 35.6%보다는 5.1%포인트가 적으며 75年 現在의 네덜란드의 25.0%보다는 높다.

韓國은 輸出增加率이 1961 ~ 70년에는 年平均 41.0%, 71 ~ 75년에는 29.5%성장하였으며 76 ~ 80년에는 22.1%, 81 ~ 90년에는 13.6%의 伸張率을 豫測하고 있다. 이 期間中 韓國의 輸出伸張速度는 61 ~ 70년에는 全世界平均 7.8%보다 5.3배 共産圈의 6.8%보다 6.0배의 빠른 속도이고 71 ~ 75년에는 全世界의 5.1%보다 5.8배 共産圈의 8.6% 보다 3.4배의 속도이었다. 그런데 北韓은 1972 ~ 76년에 11.8%의 輸出伸張率으로써 韓國보다는 월등히 낮지만 共産圈이나 全世界平均보다는 높다. 그러나 北韓은 72 ~ 73년에는 輸出伸張率이 높았으나 74 ~ 75년에는 다시 鈍化되었으므로 장차의 輸出伸張率은 11.8%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豫想된다.

KDI에서는 1976 ~ 80년에 世界平均輸出伸張率은 7.1%, 共産圈의 伸張率은 5.5%로 보았으며 1981 ~ 90년에는 全世界平均이 6.9%, 共産圈은 5.5%로 豫想되고 있다.^{註15)}

<表 48>

輸出産品構成展望

- 1975年価格 -

	韓		国		A案 ¹⁾		日 本		네델란드	
	1976		1986		1986		1975		1975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輸出総額	6,996	100.0	30,810	100.0	37,306	100.0	55,727	100.0	34,873	100.0
1次産業	325	4.6	600	1.9	1,716	4.6	217	0.4	3,568	10.2
製造業	6,671	95.4	30,210	98.1	35,589	95.4	55,510	99.6	31,305	89.8
重化学工業	2,376	34.0	19,250	62.5	24,248	65.0	48,792	87.6	22,604	64.8
軽工業	4,295	61.4	10,960	35.6	7,371	30.4	6,718	12.1	8,702	25.0

資料：A案은 除外하고 KDI 前掲書, pp. 78-79, 表 6-2, 3

어쨌든 71 ~ 75 年の 南北韓의 輸出伸張率의 相對的 差이에 의하
여 尙차의 北韓의 輸出伸張率을 推定하면 다음과 같다. 71 ~ 75
年에 韓國은 北韓보다 2.5 倍의 伸張率이었으며 이 比率을 尙차에
도 적용시키면 1976 ~ 80 年에는 8.8%, 81 ~ 90 年에는 5.4
%로 豫測할 수 있다. 그러면 統一後 B 案은 1977 ~ 86 年에 있
어서는 만일 北韓의 輸出伸張率 豫測值를 적용한다면 7%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北韓의 1976 年の 輸出依存度가 11.4%이며 70 ~ 76 年の
輸出依存度는 9.3%인데 만일 1981 年과 86 年에도 대체로 이와같
은 輸出依存度를 유지할 수 있다면 81 年에는 68.6 億달러, 86
年에는 151 億달러가 될 것인데 한편 76 年の 南北韓의 輸出合計
額 8,375 百萬달러에 7%의 輸出伸張率을 적용시키면 81 年에
117.46 億달러 86 年에는 164.75 億달러로 推定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두개의 推定가 크게 差이가 없으나 後者를 選擇하겠
다.

이것은 A 案의 399 億달러의 41.2%에 불과하다.

<表 49> A 案과 B 案의 輸出格差

	1976 (A)	1981	1986 (B)	$\frac{B}{A}$
輸出總額 A 案	7,650	20,530	39,918	5.2
B 案	7,656	11,746	16,475	5.2
B 案/A 案	1.0	57.2	41.2	-

(2) 輸入展望

輸入規模는 南北韓이 統一되면 貿易收支는 不變價格基準으로 黒字로 轉換되거나 적어도 赤字는 아닐 것으로 推測되므로 輸出規模보다 작거나 또는 거의 같은 規模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A案의 경우에는 81年以後에는 貿易收支의 黒字가 可能할 것으로 보고 B案의 경우에는, 대체로 86년에는 均衡水準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1976年 現在 韓國의 輸入商品構造는 食用品 7.5% 非食用原料 18.5% 鈹物性燃料 19.9% 化學製品 4.1% 機械器機 28.4%, 其他의 製品 20.6%로 構成되어 있다. KDI의 推計에 의하면 1986년에는 食料品 7.7%, 非食用原料 19.5%, 鈹物性燃料 16.4%, 化學製品 9.4% 機械 27.5% 其他의 製品 19.4%로 構成될 것으로 추계하였다.

이와같은 추세는 品目別輸入增加率과 關聯된다고 보겠으나 대체로 食料品, 非食用原料 其他의 製品등의 構成費가 늘고 다른 構成比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重化學工業化에 따라 機械類의 輸入依存이 감소되며 그대신 經濟規模가 커지므로 原料의 輸入比重이 늘고 生活水準의 向上으로 食用品 및 기타의 製品의 輸入比重이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우리는 이와같은 韓國의 輸入構造와 比較할 때 統一後 A案에 있어서 北韓住民의 食用品需要의 向上을 위해 이 部門의 輸入依存이 더 늘고 原料의 依存도 대체로 늘어야 하겠으나 그 중에 鐵

鉍石등 鉍産物의 輸入需要가 감소될 것이므로 相對的 比重이 늘지
 못하거나 오히려 減少될지 모르며 鉍物性燃料은 原油와 우라늄은
 輸入이 增加되나 有煙炭은 輸入이 減少될 것이므로 全體的으로 구
 성비는 다소라도 감소될 展望이고 機械類의 輸入依存도 減少될 것
 으로 생각된다.

<表 49>

商品輸入構造의 展望

(單位：百萬\$, 1975年價格)

	韓國				A 案		日本	5 個國 平均 ¹⁾
	1976		1986		1986		1976	1974- 76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接成比	構成比
食料品	642.3	7.5	2,840.0	7.8	3,730.6	10.0	14.5	10.2
非食用原料	1,589.5	18.5	7,070.0	19.5	7,088.1	19.0	20.3	11.6
鉍物性燃料	1,706.7	19.9	5,952.0	16.4	5,968.9	16.0	43.6	23.0
化學製品	822.9	9.6	3,408.0	9.4	3,357.5	9.0	4.1	7.6
機械器機	2,435.9	28.4	9,970.0	27.5	10,072.6	27.0	7.1	21.0
其他의 製品	1,371.7	16.1	7,015.0	19.4	7,088.1	19.0	10.4	27.8
總輸入	8,569.0	100.0	36,250.0	100.0	37,306 ¹⁾	100.0	100.0	100.0

1) 輸出額과 同一規模임.

B案의 경우에는 輸入規模는 輸出規模와 마찬가지로 GNP 成長率과 같거나 그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며, 商品別輸出額에 있어서는 食料品 및 其他의 製品이 크게 減少되고 그밖에 非食用原料와 鉍物性燃料 등도 감소될 것이며 機械器機의 輸入도 A案보다는 감소될 것이다. 이들의 構成比는 食料品 및 其他의 製品은 A案보다 B案이 적고 非食用原料와 鉍物性燃料등은 비슷하며 機械器機는 커질 것으로 豫想된다.

- 註 -

- (1) 本 論文의 基準年度를 1976 年으로 하였으므로 76 年을 대비 하였음.
- (2) H. Leibenstein, Economic Demographic Development, 1968.
- (3) F. Harbison and C. A. Myers, Education, Manpower and Economic Growth, 1964.
- (4) 陳元重教授의 主題發表 : 「北韓의 青少年의 育成政策과 目標」
- (5) 同文獻, p. 29 ~ 31 .
- (6) 崔周煥, 北韓의 GNP 推計, 統一政策 第 4 卷第 1 号, p. 63, 表 15.
- (7) 이에 대해서는 統計資料가 없으므로 計量모델에 의한 推定이 不可能하나, 論理的으로 韓國의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전혀 무리라고 볼 必要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모든 成長要因의 推定은 이와 같은 論理的 推定에 依存할 수 밖에 없음을 거듭 添言한다.
- (8) 北韓의 計數는 中央情報部, 南北韓經濟力比較, 第 1 卷, p. 170 表 48 에서 引用하였음.
- (9) 計數는 KDI, 長期經濟社会發展, pp. 241 ~ 2. 表 15-4 및 15-6 에서 引用하였음.
- (10) 共產圈의 鐵鋼生産 및 消費增加率은 International Iron and Steel Institute 의 資料에 의함.
- (11) 自動車輸出展望은 KDI, 前掲書, p. 255, 表 15-21 에서 引用하였음.

- (12) 1976年 現在 旅客輸送은 韓國이 569億人-km이며 北韓은 138億人-km로 北韓이 韓國의 24.2%에 불과하다.
- (13) KDI, 前揭書, pp.74~75.
- (14) 資料: ユリア 評論, 1976.6.
- (15) 輸出伸張率은 KDI, 前揭書, p.43, 表4-2에 의함.

. Abstract

A prespect economic growth on
the assumption of a unified Korea

By Man Ki Lee

This article is purposed to make a comparison of an economic growth potential between a Korea unified by the south Korea which has sustained a high economic growth through a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and a Korea unified by the North Korea following a planned economic policy in a socialist structure.

A considerable amount of conflict has been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which may arise from the integration of two heterogeneous societies which have developed their ow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ystems. However, it has been taken into account that the unification would bring about the increase in the availability of natural resources and a productive labour force, expansion of domestic market, and a reduction of military burden which are largely contributable to the strength of an economic growth potential.

When assumption is made that Korea is unified by the south Korea being called the case A, it presumes an external expansion of the south Korean economic policy, which has developed the economy in the southern part of divided Korea. The south Korea has achieved a high economic growth by making maximum utilization of labor force and available economic potentials under a open economic structure. Accordingly, the integration of north Korea into south Korea would surely bring about a higher economic growth than ever before as the additional availability of natural resources and labour force will turn out to be a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ve strength and also an expansion of domestic market under a open economic society.

The economic growth potential of a unified Korea is forecasted on the basis of a contribution ratio to growth by factors adopted b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its long-term forecast of a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the south Korea.

Out of this method, GNP of Korea in 1986 for the case A reaches US\$146 billion at the constant price of 1975 and US\$250 billion at the current price as shown in Table.

(p.213 Figure26). The increase rate of population is forecasted by computing a weighted average of increase rate of population in the south and north Korea up to present time and its future trend. Per capita income is based on this weighted average. It comes in 1986 to US\$2,349 at the constant price or 1975 and US\$4,024 at the corrent price.

There was a considerable difficulty in making a forecast for the case B assuming that Korea is unified by the north Korea. It leaves much room for a different opinion depending upon the forecasters.

In the first place, it is hardly estimated how strong the economic growth potential is in the north Korea even during the time of division. A few statistics of economic growth are given in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National Unification Board, and other foreign professional institutions. But they are not identical with one another. This may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statistics was computed from a fractional piece of information and that there must be a difference in making a conceptional adjustment between GNP in a capitalist society and production in a socialist society.

Therefore, the present estimate of growth rate in the north Korea can not be applied for the forecast of the growth potential in Korea unified by north Korea. Though was also given in order to estimate the growth potential of north Korea, though was also given to compute the increase rate of productive labour force and growth rate of labour force productivity. The increase rate of productive labour force was found rather useful but growth rate of labour force productivity was not helpful as it is true with the estimate of growth rate. It is because productivity of labour force is computed by dividing GNP with the number of labour forc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expressed a negative response to the validity of contribution ratios to the economic growth by factors in the socialist economic structure of north Korea. It is because the method of Edward F. Denison whose formular was used for forecasting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assumes a free market system and requires a correct information of economic statistics. However, attention is drawn to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 does not adopt a free market system, and the economic data are also poor and scarce. So the Denison's concept is not applicable to the analysis of the north Korea.

In the economic society like the north Korea, it is considered rather meaningful to apply the increase rate of production factors based on the concept of production function and contribution ratio to the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weight of production factors in GNP. Another word is that it is theoretically more proper to approach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a standpoint of demand or expenditure than of supply and production factors.

Denison's method can not be applied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s it is based on the income approach. Therefore, increase rate of productivity instead of distribution rate of income has been applied under a certain synthesis. The econometricians may oppose the validity of this approach, it was however inevitable to use the method under the circumstances of a limited availability of materials. But the validity of this method can never be lightly regarded.

The growth rate by factors was logically estimated on the assumption of a unified Korea by the north Korea though there are some statistics available. It is shown in Table (p.213 Figure 26) GNP in 1986 reaches US\$105 billion at the constant price of 1975 and US\$164 billion at the current price. Per

capita income reaches US\$1,634 at the constant price of 1975 and US\$2,465 at the current price.

Since the north Korea does not adopt a floating system of exchange, it is not possible to distinguish the constant price from the current price. But in reality, it can not be said that the price is never changeable.

This has not been taken into account in this estimate of GNP in dollars.

Attempt has been made to forecast growth rates by major economic sectors on the assumption of a unified Korea. They do not however cover all sectors because of the limited availability of materials, merely to be used for making macro economic analysis and presenting major changes in factors. This study will serve to be more useful when it is further developed on a long-term basis. I regret that this study has not turned out to be quite satisfactory owing to the lack of time and staff.